

경주캠, '5·20 학생총회' 성사

계열별 모집 반대·성폭력 근절 학칙제정 촉구

지난 20일 오후 1시 경주캠 녹아원에서 재적인원 8천7백 81(99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납부자)명 중 5분의 1이 넘는 1천7백65명이 참석해 학생총회가 성사됐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경주캠 전체학생총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이상섭·불교4)는 이날 오후 1시이후부터 전면적인 수업거부를 선언, 99 교육개혁 및 학생자치권력의 복원을 위한 '5·20 학생총회'를 이끈다 현재 학교측과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날 총회는 ▲정족수 확인 ▲개회 ▲사발식 ▲안전발제·2000년 계열별 모집단위 반대에 관한 건, 성폭력 근절 학칙 초안에 관한 인준권 ▲안전인준 등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안건은 모두 의결됐다.

계열별 모집단위에 대해서 이

상섭 총학생회장은 "학교당국은 정작 교육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을 무시한 채 항상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왔으며, 지금도 2000년도 광역화 모집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비의 등록금 전가 반대, 국가책임하 재정 확충 ▲삼각적인 차원의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소위위원회 구성 ▲민중적이고 공개적인 학사행정 집행 등의 99교육개혁 투쟁 6대 요구안을 학교측에 제시했다

2000년 계열별 모집단위 광역화는 올해 3월 1일부터 고등교육법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28조 제2항으로 2개 이상의 유사한 학과와 경우 한 단위로 모집, 이는 ▲모집단위하에 학과가 존재하는 대학과 전체 또는 단과대학 단위 ▲대계열 소개제 ▲학과군 모집과, ▲모집단위하에 전공이 남는 학부모집으로 나눠지며, ▲학문의 특성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과모집을 하도록 하는 등 크게 세가지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날 4월초 교육개혁종합리포트 '본교의 학생 모집단위 광역화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과제'에서 제시한 내용은 ▲전공필수의 폐지 ▲최소전공이수학점의 하향조정 ▲복수전공의 활성화 등 전공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모집단위의 광역화를 추구하고, 폐쇄적인 전공운영을 지양하고 수요자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공교과과정의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모집단위의 광역화를 실시하고 있는 한대의 경우 전체 학생을 단일 모집단위로 모집하며 이주대는 13개 학부별로 모집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세대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에서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계영(컴퓨터학) 경주캠 교무처장은 "학제개편은

학교에서 7월말에 승인, 8월말에 전국 대학별로 교육부에 상정, 모집인원·요강 등을 놓고 수정절차를 거친 9월경에야 모집단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현재 학교측에서는 광역화모집을 위한 여러 안들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안들 가운데 하나가 계열별 모집단위일 뿐"이라며 "2천년도 임시요강에 대해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논의해 봤으면 한다"고 학생들의 행동을 위한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캠퍼스에서 2천년도 학제개편과 관련해 서울·경주캠퍼스 단과대 학장을

비롯 교육개혁종합관리팀이 모인 가운데 '학제개편추진위원회'가 열렸으며, 이를 통해서 방학기간 중에 구체적인 학제개편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들간의 이해다툼보다는 본교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책이 무엇이며, 그에 따라 과정

되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따라서 만들어 놓은 제도에 따르기 급급했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교수·직원·학생 등 여러 구성원들간에 자발적·능동적인 논의를 이뤄 본교 실정에 맞는 학제개편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9면으로 계속



지난 20일 경주캠 녹아원에서 1천7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됐다.

지면안내

- ☞ 학내자치공간을 진단한다 6~7면
- ☞ 아픔의 현장, 광주를 가다 4면
- ☞ 기(氣)를 알아본다 10면
- ☞ 학내문예패를 살펴본다 12면

보리소

부처님 오신날의 알렐루야

윤 청 광 (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부처님 오신날인 5월 22일, 아침신문의 사회면에는 색다른 사진 한 장이 크게 실려 독자의 눈을 끌었다.

십자가가 배경으로 세워진 어느 시골 성당의 정문앞에 "봉축 부처님 오신날! 알렐루야! 도척성당 교우들이 함께 기뻐합니다"라고 크게 써진 플래카드가 내걸린 사진이었다.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에 있는 도척성당에서 내건 부처님 오신날 봉축 플래카드 사진 한 장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은 우리에게 종교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마음속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또 이 사진 한 장은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화합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 주었다.

그동안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전쟁과 살육과 방화와 약탈이 자행되어 왔다.

최근에 벌어졌던 보스니아 전쟁, 코소보 전쟁도 알고보면 민족분규와 함께 치열한 종교전쟁이었다. 베이루트에서의 총격전과 살육전도 기독교 민병대와 회교 민병대들이 벌인 종교전쟁이었고,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의 전쟁 또한 종교전쟁이었다.

역사가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던 세계1차대전과 세계2차대전으로 죽은 사람 보다는 '종교전쟁'으로 죽은 사망자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만 보아도 그동안 종교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서양종교가 들어온 것은 천주교가 2백년 전, 개신교가 1백년 전인데 최근 몇 년동안 일부 극악스러운 개신교계열의 광신적 집단들에 의해 전국 곳곳에서 사찰이 불타고 불상이 훼손되는 등 '종교적 공격행위'가 수없이 일어났고, 이렇다가는 이땅에서도 저 끔찍하고 무서운 '종교전쟁'이 언젠가는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지경이었다.

이런 때에 천주교 성당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함께 기뻐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오는 겨울 우리 사람에서도 "주님 오신날을 축하합니다"의 멋진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어 화답이 오가게 되면 더욱더 포근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후문앞 일방통행 '눈앞에'

제일병원측과 협의 진전...서울캠 '동약터잡기 운동' 일환

서울캠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박찬정·수교4, 이하 학복위)는 학생처와 관리자, 생활협동조합의 후원으로 '동약터잡기 운동'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

'동약터잡기운동'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후문앞 일방통행 △소강당 문화제 △코카콜라 안마시기 △강의실 내 금연운동 △충전기 확대 설치 △종이컵 재활용 등의 여섯가지 활동중심이며, 이는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학내의 부족한 생활문화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소강당 문화제는 오는 28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앞으로 소강당은 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삼가하고 학생들을 위한 순수 문화생활영역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충전기 확대설치의 일환으로 폐전전지의 재활용을 위해 이달 내로 각 단과대별 학생회실에

충전기를 설치하며, 학생회가 자치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코카콜라 안마시기와 강의실 내 금연운동은 학생들의 의식적인 동참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동약터잡기운동'의 핵심사안은 후문앞 일방통행, 총학생회는 그동안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후문앞 인근 상가지역의 상인들을 방문하여 일방통행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삼성 제일병원측과의 면담을 통해 병원측이 그동안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던 후문앞 일방통행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병원측은 우선 빠른 시일내에 병원내 주차장을 확보하여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환자들의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 밝혔고, 더 나아가 학교측과 공동으로 중구청에 민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에서는 지난 18일, 후문앞 일방통행과 인도설치에 대해 '당사자들간의 방법과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학교측에 보냈다. 봉병인 중구청 교통행정과장은 "올해는 삼성제일병원측과 동국대 △국가보안법 피해자 영남위원회 △진원민중 사업추진이 적극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후문앞 일방통행을 비롯한 '동약터잡기운동'은 학생들의 문화생활 고안과 복지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 운동에 동참할 때 보다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미숙 기자
ionia@cakra.dongguk.ac.kr

"국보법 정당한가"

서울캠 총학주최 대토론회 열려 내일(25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정부의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캠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는 국가보안법 대토론회를 내일(25일) 오후 2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강정구 교수(사회학)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연합 박세길 정책위원장 △국민회의 정책실 법사 △한나라당 정책실 법사 △국가보안법 피해자 영남위원회 가족1인 △법무부검찰 3과가 토론자로 참석하며 인권과 통일 운동에서 보는 국가보안법과 법적 측면에서 보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 입장 발제와 토론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이뤄진다.

또한 국가보안법 존립·대처입법 찬성과 국가보안법 폐지·대처입법을 저지하는 대립되는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참석한 학생, 사회단체, 시민들에게

국가보안법의 폐지 당위성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97학년도 서울캠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던 구장주(경영 (야)4)씨는 "반약 국민회의와 법무부 등의 참석자가 토론에 참가하지 않으면 대처입법에 대한 책임회피로 간주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각 언론사를 통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창원종합사격장에서 '제15회 회장기 전국 사격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대회결과와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소구경복사=단체우승 △소구경 3자세=단체우승 △소구경복사=개인1위(김정환·사회체육4)△소구경 3자세=개인1위(이

축구·야구부 본선진출

각각 연세·인하와 격돌

본교 축구부가 99 전국춘계대학연맹전 예선전을 4조 1위로 마감하고 본선에 올랐다.

이는 지난 22일 열린 16강전에서 조 2위를 기록한 광운대와 경기에서 5대4로 승리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오늘(24일) 효창구장에서 연세대와 8강전을 갖는다.

한편, 야구부는 지난 17일 연세대와 마지막 예선 경기에서 18대 11로 승리해 본선에 올라 오늘(24일) 동대문야구장에서 인하대와 16강전을 치른다.

승훈·사회체육4) △공기소총=단체3위 △센타화이어 권총=개인2위(김성훈·사회체육3) △개신교 권총=개인3위(최시운·경영4) 이와 관련해 학교측은 "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본교 선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얻은 결과인만큼 최고의 성적을 거둬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본교 사격부, 회장기대회 '쾌거'

본교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창원종합사격장에서 '제15회 회장기 전국 사격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대회결과와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소구경복사=단체우승 △소구경 3자세=단체우승 △소구경복사=개인1위(김정환·사회체육4)△소구경 3자세=개인1위(이

승훈·사회체육4) △공기소총=단체3위 △센타화이어 권총=개인2위(김성훈·사회체육3) △개신교 권총=개인3위(최시운·경영4) 이와 관련해 학교측은 "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본교 선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얻은 결과인만큼 최고의 성적을 거둬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한총련 출범식은 평화적으로 개최돼야 합니다.

이적? 왜 이적?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니요.
한총련은 우리 사회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합니다.
그것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를 비판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니까요.

한총련 탄압의 근거는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닌걸요.
그럼 무슨 근거로 한총련을 막습니까?

동대신문사

V I E W F I N D E R D O N G G U K

자비 어둠이 내려도 자비의 불빛은 동학 구석구석을 알일이 비춘다. 마치 부처님의 손길처럼...

촬영=송광수 동문

후문지역 매점건립 건의 예정

생협 지난 18일 임시이사회 열려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 임시 이사회가 지난 18일 오후 2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총대의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7일 개보수공사를 마친 동국관학생식당의 개관에도 불구하고 다량관 학생식당 폐쇄에 따른 식당공간부족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학림관, 학생회관, 정보문화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식당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는 학내 여론에 따라 학교측에 후문 지역에 매점을 건립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건립후보지역으로는 학림관 옆 계산관 여학생부처 자리가 추천되었다.

연구부, 연구년 교수 선정

허천택·김현규·조승환교수

연구교류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 연구부는 지난 17일 연구년 교수 3명을 선정했다. 연구년 제도는 교수가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강의 시간을 없애주는 제도로 연구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이다. 선정된 교수는 허천택(영문학)교수, 김현규(교육학)교수, 조승환(미술학)교수이다. 한편 학술교류부는 2000학년도 1학기 교원해외연수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교원은 △이과대학 화학과 성용길교수(미국)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김재공교수(영국) △정보산업대학 산업공학과 박준영교수(미국)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정대섭교수(일본)이며 내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수를 떠나게 된다.

“운동장, 언제든지 이용하세요”

사용신청 수시 접수 ... 오는 28일부터

운동장 사용신청 방법이 오는 28일부터 변경된다. 관리처(처장=김종욱) 관계과는 매일 1일에만 접수해 당일에만 사용 가능했던 운동장 사용 신청을 수시로 접수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방식이 주말에 외부 단체나 기관이 운동장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것을 감안, 오는 6월부터 예약접수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과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은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서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도모한다”고 말했다.

항공승무원·일반 면접대비 특강

정보산업연합회 이용태회장 강연

항공승무원 및 일반면접을 대비한 특강이 오는 28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항공사들의 하반기 승무원 채용계획에 맞추어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국내외 지원 가능한 항공사별 정보 및 준비사항과 면접을 대비한 화법, 자세, 이미지 연출법 등을 내용으로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된다. 한편, 오는 26일 오후 6시 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신진국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주제로 정보산업연합회 이용태 회장이 강연한다.

‘대학생의 낭만과 문화’ 심포지움

음주·흡연·성의식 문화 주제로 ... 다음달 1일 개최

학생생활상담센터(소장=정진환·교육학)는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대학생의 낭만과 문화”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술·담배·성(性)의 세가지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움은 △대학생의 음주문화 △대학생의 흡연문화 △대학생의 성의식과 문화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당 한시간에 걸친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진다.



“과연 무엇을 위한 대동제였나”

상업성 이벤트 붐물·참신성 부족·학생참여유도 실패

이번 대동제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채 막을 내렸다. 화려하지 못한 축제였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축제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치러진 대동제. 모두가 하나되는 정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일관된 기조 없이 산발적인 이벤트가 주를 이뤘다. 물론, 학복위에서 개최한 대동제 약장터나 생자대의 우리밀 먹기, 민가얼 주점등은 나름대로 의미

를 갖고 있었지만 이들 만으로 위안을 삼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여겨져서 눈에 띄었다. 이번 축제의 문제는 상업성 이벤트, 참신성 부족, 구성원들의 무관심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교에서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코카콜라 불매운동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축제에서 생협을 통해 코카콜라 회사 제품인 파워에이드 시음회가 실시됐고, 광고학과 소모미가얼 주점등은 나름대로 의미

를 갖고 있었지만 이들 만으로 위안을 삼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여겨져서 눈에 띄었다. 이번 축제의 문제는 상업성 이벤트, 참신성 부족, 구성원들의 무관심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교에서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코카콜라 불매운동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축제에서 생협을 통해 코카콜라 회사 제품인 파워에이드 시음회가 실시됐고, 광고학과 소모미가얼 주점등은 나름대로 의미

를 갖고 있었지만 이들 만으로 위안을 삼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여겨져서 눈에 띄었다. 이번 축제의 문제는 상업성 이벤트, 참신성 부족, 구성원들의 무관심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교에서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코카콜라 불매운동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축제에서 생협을 통해 코카콜라 회사 제품인 파워에이드 시음회가 실시됐고, 광고학과 소모미가얼 주점등은 나름대로 의미

함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더구나 동전던지기 등 ‘아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등장하기도 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학생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모습은 단위 학생회의 자립부족에 기인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동제의 기조가 공유되지 못해 중앙과 단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새내기들은 이번 축제를 통해 대학에 대한 남은 환상을 깨닫게 될 것이다. 참신하지 못한 행사, 화려하지 못한 행사였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축제를 치르는 이들에게서 ‘대학’이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학생회, 단과대별 모집에 반발

문과대, 천막농성 실시 ... 모집단위결정은 오는 7월

2000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단과대학별 모집방안이 발표되자 학생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문과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명진관 앞에서 ‘일방적인 학재계편향대 결의대회’를 갖고, 25일부터 3일간 명진관 앞에서 ‘학부제 철폐를 위한 투쟁본부’를 설치해 천막농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에 문과대 비상대책위원회 오종진 위원장은 “학교측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제는 교육환경 개선, 교수 충

원, 교과 개편 등이 선행된 후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며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학재계편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총학생회 역시 학부제 확대 저지를 위한 반대시위를 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에는 단과대차원의 학생총회를 열어 각 단과대에 맞는 발전안과 학생참여 보장을 요구할 것이며, 이후 학부제의 부당성에 대

해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개혁종합관리단의 한 관계자는 “모집단위광역화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학생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무위원회의 학과주임교수회의, 단과대학교수회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므로 일방적인 학재계편향 아니다”라고 말해 입장차이를 보였다. 한편, 모집단위 결정은 오는 7월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자치위원회 건설 추진

오는 6월부터 부분적 활동 예정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의 그야말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도서관을 기존의 정지된 운영에서 벗어나 학생들과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총학생회의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산하 도서관자치위원회(가칭) 건설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도서관자치위원회 건설을 통해 도서관 문제를 도서관에서 직접 생활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총학생회는 실질적으로 이를 방학 중 도서관관을 비롯한 학교측과의 논의를 통해 오는 2학기에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6월 기말고사 기간에 활동 준비위의 형식으로 부분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현재 도서관 4층 열람실에 확실히 관리책임자가 없어 청소·정리 정도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총학생회는 각 열

람실에 학생 열람실장을 두어 열람실에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위원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들을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겠다. 도서관자치위원회를 가장 먼저 건설·운영한 경북대의 경우 가법이나 책 등으로 자리를 맡아 두는 것을 저지하는 자리 검사를 비롯해 세미나실 운영, 공개강좌 진행, 소모임 활동 등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본교의 경우 기본적인 자리검사를 비롯한 학생들의 의견개진 등 도서관의 생활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할 방침이다. 이러한 총학생회의 도서관자치위원회 건설 추진은 학교측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문제까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원충, 26일부터 봄학술제 개최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석중·입학박사과정 3학기)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99대학원 봄 학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제는 △원우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학술제 △세미나팀 활동성 △총학생회가 항상 원우들 옆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기조로 총 13개팀이 참가한다. 발표되는 주제는 △금강산 그림의 전통과 변형 △부작위법 요건에 관한 고찰 △‘사이버 스파이’의 현

실태와 대책마련 △입체음향구현에 관한 연구 △인도불교연구사를 통해 본 과거의 정점들 △경제학에서의 ‘호환성’ △다자간 반복협상에 관한 연구 △정치범죄 연구의 필요성과 그 유형 △도시시설계지도상의 건축현황실태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사·문학이론에 대한 고찰 △직업공무원제와 개방형 공직시스템의 상호문제 △지구지원의 산림환경문제 △제3자음 섞임의 화학적 개선을 통한 습윤강도 발현 등이다.

역경원, 책완간

역경원(원장=김성구)은 지난 20일 ‘어제소요영외’와 ‘어제비장전’을 번역·완간했다. 두 책은 모두 중국 송나라의 태종이 지은 것으로 ‘어제소요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할 것을 설명한 책이다. 또한 ‘어제비장전’은 일종의 불교 시집으로 대승불교에서 설교한 교리의 뜻을 해석·찬양한 것이다.

출자금 배당

- 배당 기간 : 99년 5월 24일 ~ 12월 31일
- 배당 내역

구분	출자원금	배당율	배당액	비고	
학부생	1학년(99학번)	10,000원	없음	0	1999년 1학기 출자
	2학년(98학번)	"	10%	1,000원	1998년 1학기 출자
	3학년(97학번)	"	20%	2,000원	1997년 1학기 출자
	4학년(96학번)	"	20%	2,000원	1996년 2학기 출자
대학원생	석/박사 1학기	"	없음	0	1999년 1학기 출자
	석/박사 3학기	"	10%	1,000원	1998년 1학기 출자
	석/박사 5학기	"	20%	2,000원	1997년 1학기 출자
- 배당 장소 : 상록원 1층 카운터, 생협 사무국(혜화관 1층)
- 배당 방법 : 학생증 IC카드에 유인출전
 - * 무인출전기에서는 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의 사항
 - 회계 연도 단위로 배당하오니 늦어도 99년말까지는 꼭 배당 받으시길 바랍니다.
 - 현금배당은 하지 않으니 필히 IC카드 학생증을 지참바랍니다.
- 문의처 : ☎ 2260-8951 ~ 3, FAX 2271-3129

E-Mail : dgucoop@cakra.dongguk.ac.kr

서울캠 생활협동조합

동국참사람 인증 교육 제3기생 추가 모집

- 동국참사람 인증제란?

본교 졸업예정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특성화 교육을 시킨 후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학교가 인증서를 수여하여 보증하는 제도로서 학생 본인에게는 올바른 가치관과 덕성을 함양하고 사회에서는 동국대학교 학생을 우수한 인력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본교는 이 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국제화, 정보화에 발 맞추고 21세기의 고도 정보화, 세계화 사회를 선도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최고의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사회에 배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교육과정 : 인성교육(1주간 공동체생활), 사회봉사활동, 외국어(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세부 교육 내용은 상담 시 안내)
- 교육기간 : 99년 9월 ~ 2000년 8월 (1년간, 학기 중 교육(평일 오후6시부터 2시간씩))
- 모집인원 : 17명
-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5. 24(월) - 5월 27일(목) 09:00 ~ 17:00
 - 원서접수장소 : 본관 취업과
 - 면접일시 및 장소 : 99. 5. 29(토) 10:00 ~
- 합격자 발표 : 99. 6. 3(목) 취업과 게시판 공고
- 응시자격
 - 99학년도 3학년 재학생(5학기 등록) 중 평점평균 B 이상인 자로서
 -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2000년도 하반기 취업에 걸림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1부 (취업과 교부)
 -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학생에 한함)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17명 참사람 인증 수여자 전원 취업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학생처 취업과 ☎ 2260-3054 ~ 5)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할 것

서울캠 학생처

99학년도 교환학생 선발

- 파견기간 : 99. 9. ~ 2000. 8. (1년간)
- 해당 대학별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파견국	파견대학	선발인원	지원자격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5	현재 학부 3학년(5학기)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이상이고 TOEFL 550점 이상 취득자로서,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중국	남경대학	2	현재 학부 3학년(5학기)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 이상이고 중국어로 정규과정 수혜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대만	중국문화대학	2	현재 학부 3학년(5학기)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이상이고 라시어로 정규과정 수혜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 수확조건
 - 본교측
 - 파견자는 매학기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본교는 정학생 선발규정에 의거한 해당자에 한해 해당학기 수업료의 반액(미국 미시간주립대학 경우 수업료 전액)을 면제
 - 학점인정(취득과목명, 학점, 성적을 그대로 인정) - 졸업학점의 1/4 범위내
 - 해당대학측

파견국	파견대학	수확조건	비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수업료 및 기숙사비 제외 부담	·수입료: 학점당 약 \$200 ·기숙사비:학기당 약 \$2,000
중국	남경대학	·등록금 및 기숙사비 10% 면제	
대만	중국문화대학	·등록금 면제 ·기숙사비 제외부담	
키르기스스탄	국립종합대학	·등록금 면제 ·기숙사비 면제	
- 신청서류
 -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 대학증명서 1부
 - TOEFL 성적표 1부 -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지원자에 한함
- 선발방법 : 공개시험 전형(해당대학별로 상이함)
 - 학교성적 20%
 - 해당국어 필기시험성적 20%
 - 대만국어 회화시험성적 20%
 - 일반면접 40%
- 전형일정
 - 원서교부(접수) 기간 및 장소 : 99. 5. 24(월) ~ 6. 1(화), 본관 2층 학술교류부
 - 전형일시 및 장소 : 99. 6. 4(금) 14:00 ~ , 서울캠퍼스 본관 1층 CI02

서울캠 연구교류처

재학생신체검사

- 재학생의 건강 증진,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치료로 건강한 대학생활을 하기위한 기본적인 건강 검사인 99학년도 재학생 신체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 99. 5. 24(월) ~ 5. 26(수), 3일간
 - 장소 : 본교 보건소
 - 검사항목 :
 - 혈액검사 - 간기능검사(GOT, GPT), 빈혈검사(헤마토크리트, 헤모글로빈), 간염항원·항체, 콜레스테롤, 혈당
 - 소변검사 - 당, 단백, 질염
 - 흉부엑스선촬영
 - 치과검진(치과의사검진)
 - 대상자 : 재학생 전체(신입생 제외)
 - 비용 : 무료

서울캠 보건소

내일(25일), 99학년도 입학 민주 대동제 개막

비주류 대학문화 선언... 저항문화제·연대학술포럼 등

"전복의 꿈을 향한 비주류의 한판전"이라는 기치로 99년 입학 민주 대동제가 내일(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치러진다. 총학생회(회장=이상섭·불교4)는 '전복'에 대해 '자본주의 반대하고, 자본에 소외되는 모든 것 - 비주류' '자본에 소외된 사람과, 자본에 소외된 문화의 접속 - 연대' '비주류의 결정적 중심은 연대에 있는 것이 아닌 혁명 - 전복'의 의미를 부여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7일 열린 중운위를 시작으로 11일 먹거리 운영권 투쟁을 비롯해 약 15일간 준비해온 이번 대동제에서 지난 해와는 달리 주막과 분식집을 각각 5개씩 줄여 △주막=25개(과·학부·20개, 동아리·5개) △분식=15개(과·학부·5개, 동아리·10개) △상점=5개(추첨에서 떨어진 과/동아리 패자부활전) 등으로 운영권을 부여했다.

대동제 주요 행사일정을 살펴보면 △25일=대동제 개막식,민중 문화 운동연합, 동아리 연합회 주최 저항문화제 선포식, 길거리 농구대회, 축구대회, 철야 영화제, 배낭여행 설명회 △26일=전국대학 락 밴드연락, 국악과 무용 발표회, 마이내러티브 문화제, 증분과 동아리 통치공영, 민중가요 노래자랑, 노총헌



지난 99년 처음으로 야외에서 개최된 백상연을 지켜보며 열광하는 학생들의 모습.

장티 풍연, 강철사랑정가공연, 여성 놀이마당, 맥주발리마시기, 소주맛 구별하기, 불휘 공연, 초청강연회 I, 여성 영화제, 퍼포먼스 △27일 = 전국대학 락 밴드연락, 입학 가요제, 연대학술포럼, 성폭력 모의 재판, 저항문제, 킥볼이벤트, 대학 풍물패 연합, 독립 영화제 △28일 = 백상연(김장훈, 김정은의 축하공연 등), 저항문화제 폐막식, 한의대 한울(관국), 초청강연회 II △시간행사=도자기 빚기, 동국 문화회 작품전시, 학생회관 휴게실 컴퓨터 게임대회, 자연대학생회, 상경대학생회(교육개혁투쟁 선전거리), 바둑그림그리기(시계타 알), 인문대학생회 일일감옥체험, 비디오텍스트, 서명운동(26일부터 28일까지) 등이다.

총학생회에서 내세운 이번 대동제 기조는 지난달 29일 '입학대동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이미 각

단체 및 자치기구, 각 학과 학생회장들에게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불교문화대는 99년 입학 민주 대동제의 비주류입장에 동조하는 선전작업을 함께 하기도 했다.

이날 가진 공청회 자리에서도 이상섭 총학생회장은 "학우들의 축제 관심이 왜곡되지 않고, 대학 문화가 발화되는 생각들을 화합과 연대의 분위기를 통해 대중사업으로 이끌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내일(25일)부터 개최될 입학 민주 대동제의 일정을 살펴보았을 때 분명 지난해 대동제의 호풍과 편이하게 다르다는 학내 구성원들의 여론이 조성되고 있으나, 주막 및 분식의 개수가 축소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간의 이해가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본다.

김미영 기자
dg19810273@mail.dongguk.ac.kr

▶ 1면에서 계속

다음으로 2000년 계열별 모집안 반대에 이어서 논의된 성폭력 근절 학칙 이준권에 관해 총학생회(이하 총여) 전전회(국어국문4)회장은 성폭력 학칙제정 발의 계기=성폭력의 실태와 심각성, 학칙제정의 당위성 △학칙제정의 의미=성폭력 문제의 해결과 근절, 학원사회의 자치실현 △학칙제정의 원칙= 사회성경지, 피해자 우선, 공동체 성원의 참여보장, 학칙제정에 있어서는 유연성 등을 밝혔다. "학칙제정은 학내공동체의 울타리를 성문화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우리 스스로 발의, 제정, 운영함으로써 진정한 대학 민주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성폭력 근절 학칙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12일 총여회장과 이준성 학생처장과의 단독면담에서 이처장은 "이번 학내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개학하는 경우에는 산발위원회에 건의를 할 것이며, 학칙제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날 총여에서 총여는 이미 전국 대학내 성폭력 근절 학칙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이화여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의 사례를 토대로 작성한 성폭력학칙 가안을 발표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킴이단의 인선을 거친 성폭력 학칙(가안)은 학내 대학구성원간에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내한 징계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물건을 확보하여 자유롭고 인격적인 대학생활을 조성할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성폭력의 정의 △피해자 및 신고인의 보호 △징계내용 △징계위원회 구성 및 기능, 회의 등에 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학칙 제 2장 제 2조에서는 '성폭력'은 '전 동국인을 대상으로 상대방이 동조하지 않은 성적 행동 및 정신·물리적인 행위로 인해 개인 성적자유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성차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되며, 그 판단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한다'를 정의하고 있다.

제 2장, 제 1조의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2주이내에 집행되며 학생인 경우 퇴학, 무기·유기정학, 근신 등이며 교·직원인 해임, 직위해제, 징계, 전직, 감봉 등이며, 혐의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뒤따른다. 징계위원회 구성은 학생처장(위원장), 여자학생부처장(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위원은 총여학생회의 추천을 통해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여성으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학생총회이후 중운위 위원들을 비롯 3백여명의 학생들은 원효관 중정으로 이동 30여분 동안 각 단대별로 흠뻑 젖어 강의실, 행정기구 복도 등에서 집회농성을 갖고, 원효관중정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개혁투쟁과 학생총회에 대한 평가 및 이후 방향설명이 있은후 해산했다.

장희정 기자
dg19711782@mail.dongguk.ac.kr

1/4분기 감사발표

총대의원회(의장=이상해·회계4)는 단대 및 자치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99학년도 1/4분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서 및 평가서를 살펴보면 △불교문화회-경고 1, 주의5 △인문대=경고2, 주의4 △자연대=경고2, 주의8 △법학대=경고2, 주의5 △상경대=경고1, 주의6 △과과대=경고2, 주의3 △아간간과총학생회=경고1, 주의4 △총학생회=경고3, 주의5 △총여학생회=경고3, 주의5 △동아리 연합회=경고2, 주의5 △졸업준비위원회=경고4, 주의5 △학생복지위원회=경고2, 주의4 △인문협의회=경고1, 주의8 △교직원징계위원회=경고3, 주의5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경고1, 주의7 등이다.

2학기 75분 강의제 시행

19교시까지 활용·토요일 배정 가능

교무처(처장=이계영·컴퓨터학)는 2학기부터 75분 강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시간 연강 교과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75분 강의제는 기존의 1백50분 수업체계에서 가져오는 연강교과목의 부담을 줄이고, 수업의 효율화를 모색하기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75분 강의제는 30분을 1단위로 하는 설을 기본으로하여 수업시간에 필요한 설을 배정하는 것으로 △1시간 강의=2개 설 배정: 50분 강의, 나머지 시간(10분) 휴식 △2시간 강의=4개 설 배정: 1백분 강의, 나머지 시간(20분) 휴식 △3시간 강의=6개 설을 3개 설씩 분할하여 배정: 75분 강의, 나머지 시간(15분) 휴식 △4시간 강의(실습

에 한해)=2시간 강의방법의 반복이며, 수업의 특성에 따라 연속 배정 가능하다.

강의 시간은 주간의 경우 0교시(08:00~08:30)에서 19교시(17:30~18:00)까지 활용 가능하며, 토요일 배정도 가능하다. 야간의 경우 주간의 교시변경으로 야간교시 역시 변경은 되나 기존의 강의가 45분제이므로 75분 강의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이진형 수업계장은 "기존의 50분, 1백분 강의제는 수업주체들의 집중도를 저하시키고,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자주 가져와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75분강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도서관 자치 위원회 구성

행사홍보·시험기간 중 열람실 관리 등

총학생회 복지국(국장=손세정·국사4)은 지난 달 20일 도서관 실정에 대해 밝고, 성실하며, 책임감 있는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선발된 자치위원들은 자치위원장 1명, 담당위원장 5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담당체계는 △홍보담당(위원장=정일신·국제관계3)·도서관 행사 및 시설물 홍보와 선전작업 △출입규제(위원장=안형준·국제관계2)·주말과 방중제외한 시험기간중 열람실 좌석 차지 외부인 출입규제 △열람실 관리(위원장=도관철·철3)·좌석 위 학생증 제시 및 도난문제 대안 제시 △대출관리(위원장=김주

영·불교4)-대출도서 훼손 및 도난방지 △환경담당(위원장=박홍석·국사3)-도서관 쾌적한 환경유지 위한 작업수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지난 중간고사 기간 중 도서관 제2열람실이 24시간 개방되는 동안 자치위원들은 열람실 속지사항과 의료사고 예방등의 열람실 관리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국장은 "처음 구성된 자치위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해 반발도 많았으나, 자치위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줘 다음 시험기간에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도서관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학군단 연꽃제 개최

학군단(단장=이성룡·중령)은 학군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문무관에서 연꽃제를 개최한다.

"학군 사관 후보생 자긍심 배양과 단합의 장 통한 대외적 홍보"를 목적으로 치러지는 이번행사는 △개회식 △내빈 격려사 및 축사 △축하공연 △후보생 장기지랑 및 레크리에이션 △시상 및 폐회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학군단 관계자는 "학군사관 후보생을 위한 자선인만큼 후보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성취업책자 제작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이시영·법4 이하 졸업위)는 99년 여학생 졸업예정자들을 위해 '여성취업책자'를 발간한다.

책자 내용을 살펴보면 △대량실업 시대의 여학생 취업 △여성 성공 직업 찾는 길 △여성 유망업종, 직종 가이드 △21C여성, 유망자격증 △20대 여사장이 되는 작은 창업, 큰 성공 등이다. 이와 관련해 졸업위 관계자는 "책자제작을 위해 취업정보센터와 인터넷 등을 통해 시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전부터

망언

○...지킴이(?)들의 분노
지난 13일, 온밤을 금장제가 한창 인데, 진행자가 난데없이 성회 풍적인 발언을 남발해 여학우들의 분노를 한몸에 받았다.

내용인즉 학내 '성폭력 근절 학칙제정'의 움직임을 무시하고 기묘한 한 참가자가 멋있게 섹스폰을 붙자 자신은 섹스폰 대신 폰 X를 한다는 등 차마 듣기 민망한 발언으로 계임을 진행했다.

이에 격분한 한 여학우 왈 "오픈 하우스 왔다가 오픈 헤드 왜 버리다(?!)"

자동판매기=자선모금함(?)

○...내돈 물리다~
무슨 말이고 하니 원효관·학생회관 여자화장실 자판기와 도서관 지하 건전지 자동판매기가 고쳐짜린 말이지마나 종잡을 수가 없다는 데.

내용인즉 번복실한 자판기들이 물건을 내놓기는 커녕 돈을 그냥 삼켜버리는가 하면 동전이 걸린채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더욱이 도서관 지하 건전지 자동판매기는 미충전된 건전지를 배출하기도 한다.

이에 한 학우 왈 "자동모금함은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군"

때론제

○... "김급출동! 동대로 집합!"
지난 대동제 기간중 시달릴적한 음악과 짧은 스킵의 판매원으로 무장한 각 기체체가 동악을 장악했는데, 심지어 갖가지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 사이에서는 자리 정렬전까지 벌어졌다.

학생들의 축제기 기압의 상업술과 잡상인들로 시장이 된 지경이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우리들의 일그러진 때론제!"

눈뜨장님(?)

○...문맹인이어! 깨어나라.
온밤을 녹아낸 잔디에 꽃혀있는 '잔디보호'라는 풋말이 그곳에 들어가는 일부 비양심적인 학우들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었다.

일부 학우들은 풋말이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디에 들어가 잠을 자는가 하면 심지어는 야외회에 버금가는 행사를 벌이기도.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한글! 이거 외국어보다 훨씬 중요합디"

'동국참사람 인증' 교육생 모집

1. '동국참사람 인증' 제란?
본교 졸업예정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특성과 교육을 시킨 후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학교가 인증서를 수여하여 보증하는 제도로서 학생 본인에게는 올바른 가치관과 덕성을 함양케 하고 사회에서는 동국대학교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본교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국제화, 정보화에 발맞추고 21세기의 고도 정보화, 세계화 사회를 선도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최고의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사회에 배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교육과정 : 인성교육(1주간 공동체생활), 사회봉사활동, 외국어(영어)교육, 컴퓨터교육(새부 교육 내용은 상담시 안내)
3. 교육기간 : 99년 9월 ~ 2000년 8월 (1년간), 학기 중 교육(평일 오후 6시부터 2시간씩 수업)
4. 모집인원 : 50명
5.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취업과 취업자료실
6. 합격자 발표 : 취업과 게시판 공고
7. 응시자격
가) 99학년도 3학년 재학생(5학기 등록)으로서 평점평균 B 이상인 자로서
나)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다) 2000년도 하반기 취업에 결정사유가 없는 자
8.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1부, (취업과 교부)
나)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서(소정양식)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통(남학생에 한함)
9.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서류전형시 외국어(TOEIC, TOEFL)성적, 컴퓨터관련자격증, 봉사활동실적 등 제출자는 우대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학생처 취업과(원효관)에 직접 방문할 것.

경주캠 학생처

입석 민주 대동제 먹거리 약도 및 운영권

학생회관, 분식, 주막, 문무관, 녹아원, 불교문화회, 테니스코트, 한의대, 교문

대동제 먹거리 운영권

순서	주막	분식	상점·편의점	순서	주막	분식	상점·편의점
1	정보산업	철학과	한울회	14	화학	유스 호스텔	영리더
2	회계	불교아동	로타렉트	15	국악		
3	가정교육	솔메리아	법학과	16	의학과		
4	한국어문화부	고미사	행정	17	전자계산		
5	불교학생회	YOUTH-JC	조경	18	정보통계		
6	국문	POWER-TOEIC		19	관광경영학부		
7	달레마	대자연 봉사단		20	사정영상		
8	생화학	동국 베드민턴		21	경상학부(야)		
9	법정학부	호텔경영(야)		22	경영(야)		
10	국사	동국 유도부		23	동국음악회		
11	불교학부	국제관계		24	화랑선무부		
12	한의예	동국볼링		25	일문		
13	경영	RCY					

경주캠 총학생회

병무 민원 홍보

1. 병역 처분변경원 처리 절차 개선
1) 목적 :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자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민원 편의 증진
2) 개선사항
* 종전(소요시간 : 45일)
병역처분변경원 제출→각과별 신체검사 대상 결정→재신검통지→검사외회→신검결과 각과 통보→병역처분→병적정리→병역증교부
* 개선(소요시간 : 당일또는 본인 지정일자, 4월 1일부터 시행)
병역처분변경원 제출→민원실 접수당일 재신검여부 결정→당일또는 본인 지정일자 재신검병역 처분→병역증 교부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대상
- 징병검사를 받고 징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당해 병역부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징병검사를 받고 징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2. 306보충대 입영장정 안내소 운영
1) 운영목적 : 306보충대(의정부) 현역병 입영장정 및 가족들의 교통편의와 입영에따른 민원불편사항 적극해결
2)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입영일) 10:00~14:00
3) 실시장소 : 의정부역 서부광장
4) 운영사항
- 입사전담 설치 장정 취터제공
- 입영장정 및 가족 등의 입영부대 교통편 안내
- 입영장정 환영행사 등(커피 식수 등 제공)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99년 5.18에 아픔의 현장 광주를 가다 “그곳에 열사정신이 살아있다”

머구름이 가득한 하늘에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지난 18일 오전, 80년 5월의 역사 현장을 찾아 카메라 가방 하나를 둘러메고 전라도 광주행 버스에 올랐다.

4시간 30분에 걸친 광주행 길 도중에 내린 보습비는 마치 아픈 과거속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국민의 눈물같았다.

광주로 들어서는 입구. 지난 80년 핏빛고을 광주를 연상케 하는 듯한 '빛고을'이란 상점 간판이 유난히도 눈에 많이 띈다. 터미널에 다다랐을 때 도로 한가운데에 걸려있는 5.18기념행차 및 망월동 버스 노선 안내 현수막이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필력이다. 터미널에 내려들러본 주변 벽면에는 운동 5.18 행사 자보로 뿔뿔하다.

망월동 구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 광주 시내 중심부를 지나칠 무렵 피로 일국진 거리 금남로에 이르게 되었다. 5.18행사를 위해 차량이 통제된 도로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다.

떨어뜨리는 금남로를 뒤로한 버스는 점점 망월동 구역에 가까워지고 저 멀리 '민주의 문'이라 적힌 출입문이 망월동 묘역을 찾는 유가족들을 맞고 있었다.

신묘역 주차장에서 출입문까지 이어진 길은 콘크리트로 깨끗이 잘 닦여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유가족들의 애환의 통곡소리가 들려왔다. 묘역 광장안 오른쪽으로는 열사들의 위패를 모신 '유영봉안소'가 자리잡고 있었고, 그 옆으로 길게 이어진 추모비와 묘에는 유가족들이 다녀간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있었다. 한쪽 묘에서는 아들의 묘를 찾아 온 듯한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우리 아들녀석 잘있나 모르겠네. 편안히 지내야 할텐데. 그나마 우리 아들이랑 같이 묻힌 그 친구는 어디있더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묘비 여기저기를 살피는 노부부의 모습에서 세월은 흘렀지만 아직도 아픔이 없는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한참동안 묘소를 참배하는 유가족들을 살피다 신묘역과 구묘역 길목을 안나라도 하듯 길게 늘어선 오색피를 발견하였다. 열사들의 영령을 달래기 위해 이어진 띠를 따라가다 5.18 민중항쟁 사진자료 전시실로 들어갔다. 사진속의 참혹한 현장을 보고 모두 하나같이 혀를 끌끌 찬다. 수화여행은 온 듯한 교복입은 고등학생들의 모습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진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학생이 “아, 이게 너무 심하지 않나?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처참하게 총칼을 휘둘러?”라며 안타깝다는 눈초리로 다른 친구에게 말을 건넨다.

사진 자료 전시실을 나와 오색피를 따라 비탈진 길을 오르니 좁

과는 다른 아담하고 밀집된 묘역이 나타났다. 구묘역이었다. 여기 저기 사진촬영을 나온 사람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참배온 이들을 위해 오전 내내 기다리고 있던 안내자들도 눈에 띄었다.

민주열사라는 이름만 남긴채 떠나간 선배를 찾아온 두 명의 여학생이 흐릿한 영정열 묘비위에 담배를 태워 꽂아주고 참배한다.

그들을 지켜보는 도중 갑자기 묘역안 스피커에서 총, 대포의 폭음과 함성소리가 5월의 노래와 함께 울려 퍼졌다. 무거운 하늘아래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에 사람들 모두가 귀를 기울인다.

언제 집을 뚫고 들어올지 모르는 대포와 총사격에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광주 시민들. 집안 벽면마다 걸려있는 이불에 오로지 생명을 맡긴채 꼼짝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참혹한 모습이 떠오르는 듯 하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이내 자리를 뜨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이며 참배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가슴 깊은 곳, 아물지 않은 유가족들의 상처와 묘역안에 맴도는 민중 열사들의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미영 기자
dg19810273@mail.dongguk.ac.kr



신묘역의 모습. 유가족들이 두고간 꽃들이 놓여있다.



신묘역에서 구묘역으로 통하는 길에 사진전이 열렸다.



유가족들의 아픔은 아직 아물지 못했다.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증한 화환이 유가족들에 의해 부서져 있다.

동약로 성년의 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는 한창 '박정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시각 뉴스에서는 색다른 모습을 담아내고 있었다.

“성년식을 맞이한 대학생들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지나는 행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대 대학생들의 음주문화가 과연 올바른지 할 수 있을지...”

성년식을 맞아 길거리에 주검처럼 널려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이 화면에 나타났고, 곧이어 다큐멘터리에서는 계엄군의 대검과 총탄에 길거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학생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5.16이 통일을 외치던 학생들을 탄압하고,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성년이 될 무렵 5.18이 일어나 학생들은 길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쓰러졌다. 그후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5.17성년의 날을 맞았지만 과연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진 학생들에게 5.18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 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양영인 기자



빈민가를 찾는 의료 봉사 단체 '인과의' “의술 아닌 인술을 펼치겠다”

“어디가 편찮으세요? 평소 앓고 있던 병은 없구요?”

인천 만석동 공단지역에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 의지할 곳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인근 노동자 등 넉넉지 않은 생활 탓에 병이 나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의술(醫術)이 아닌 인술(仁術)을 실천하는 사람들. 바로 본교 한의학과 봉사 동아리 '인과의'에 소속된 학생들이다. 94년도에 권태식씨를 주축으로 한 이십여 명의 인원으로 서울 금호동 철거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는 유지선(한의학·본과1년)씨를 비롯해 35명

의 회원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영옥씨는 “진료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며 “정신적 충격에서 비롯된 질병의 경우 상담을 하다보면 사회의 경제난으로 전재산을 잃고 나서 얻은 합병증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공단 근로자 대부분이 맞벌이기 때문에 이 지역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기도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린이가 본드흡인과 영양실조로 탈진한 일은 이들의 활동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빈민가 지역에서 환자들이 병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의 봉사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역 사회단체와의 연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지속적인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만석동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기차길 옆 공부방'이라는 청소년 교육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외부지원 없이 봉사활동을 이끌어어나가다 보니 위중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한약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우리 봉사활동의 초기단계라고 생각한다”



한 노동자가 학생봉사원에게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며 “앞으로 한의사 선배들의 참여가 이뤄지면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은 표정으로 답한다.

인과의 봉사 동아리의 정신은 ‘질병을 고치는 것은 소의(小醫)요 사림을 고치는 것은 중의(中醫)요 사회를 고치는 것은 대의(大醫)임’을 각인하고 사회에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민중생존권이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몸소 인술을 실천하는 이들의 마음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이미숙 기자
ionia@cakra.dongguk.ac.kr

한총련 출범식 28일부터 30일까지

단결과 결의를 다지는 장으로

한총련 출범식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치러진다.

백만 청년학생들의 단결과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장으로 꾸러질 이번 출범식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28일] '우리의 감동이 모여 한총련의 바다를 이루고...' 라는 기조 아래 △지역별 결의대회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남북 청년학생 모의 축구대회 △조국통일위원회 출범식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출범식 △한민당지기 한마당 △한총련 출범식 개막제.

[29일] '꺼지지 않는 한총련의 태양은 눈부시다'라는 기조 아래 △부문마당 △출범식 분행사 △새내기 한마당.

[30일] '4천만 손을 잡고 가자! 항쟁의 거리로!'라는 기조 아래 출범식과 거리투쟁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한총련 출범식에 정부의 원천봉쇄 등 강경대응이 예상되고 있어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옛날 프랑스에서 민중들이 빵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투와네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결국, 민중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왕비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당신들은 민중의 아픔을 아십니까?

민중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대신문사



수배해제... 지난 21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동성단이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3천 배를 올리고 있다. 이들은 수배해제의 염원을 한배 한배 모아 오는 7월 4일까지 10만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연보존과 생명존중의 마지막 근거, 환경윤리

환경문제에 대한 철학적 반성 필요

인간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 및 무생물의 자연에 대해 일정한 태도와 관계를 갖는다. 그것을 생명관, 혹은 자연관이라 부른다. 환경윤리는 생물학의 한 분야인 생태학에 관한 철학(혹은 윤리학)이 아니라, "생태계 위기, 환경 파괴에 직면한 인류가 생명가치, 자연물의 가치를 고안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생태지향적인 규범 설정 및 그 가능성과 타당성을 탐구하는 윤리학의 한 분야"로서, "기후의 규범적 이론과 원칙을 확대하여 동물보호, 자연보호, 환경보호의 원칙을 세우고, 나아가서 올바른 환경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윤리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의미한다.

환경윤리라는 말은 60년대 말에 처음 등장하였다. 68-69년 무렵 미국의 각 대학에서는 실용교육 운동가들의 주도하에 교육과정개편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단순히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수준의 대학 밖의 논의가 아카데미학 차원의 논의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간의 연구성과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환경윤리학의 4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인간중심주의, 의식중심주의, 생명(생물)중심주의, 전체론이 그것이다. 이런 입장 차이는 "도덕적 주체는 누구인가?", "인간은 자연계의 어

디까지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하는가?", "도덕적 의무가 없는 존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태도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를 네가지 입장이 서로 낄 수 없는 분명한 경계는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환경윤리 연구는 그동안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도덕적 전통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은 서구의 종교적 신념, 특히 유대-기독교적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본 17세기 이후의 자연관, 특히 데카르트와 베이컨으로 대표되는 '재구성된 자연개념' 때문이라는 비판적인 태도를 불러 일으켰다. 초기의 환경운동가, 환경윤리학자들은 기독교, 근세 자연관, 그리고 그 적용인 과학·기술적 지식, 진보이념에 대한 비판이 환경운동과 환경윤리의 이념적 기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통을 무시하고는 어떤 바람직한 윤리도 주장할 수도, 성립할 수도 없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환경윤리는 전통에 대한 반성을 통한 '반성적 평형'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린 화이트(Lynn White Jr.)의 기독교 비판은 일면적인 것으로 수용될 수 없으며, "너희들은 대지를 지배하라"는 베이컨의 창조주의 개념은 자연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자연을 인간의 목적에 유용하게 활용하자는 의미이다. 또 진보이념과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위협을 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환경윤리 연구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환경적, 생태학적 갈등상황을 매개하는 마지막 근거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구미(歐美)에서나 한국에서나 환경윤리보다는 환경운동이 먼저 시작되었다. 환경운동이 지배적이던 시기에 사람들은 환경문제를 산업과 상품 소비에 따르는 단순한 공해문제로 인식했다. 그래서 공해추방운동, 자연보호운동이 주로 논의되었는데, 환경문제에 대한 철학적 반성은 환경친화적 행위, 생태지향적 행위의 정당화 근거를 마련했다.

요즘을 통감법 건설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 통감과 어려운 계곡을 보존하는 것이 '더 좋냐', 아니면 수몰시키는 대신에 홍수를 통제하고, 전기를 만들고, 농업·공업용수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로 압축된다. 사실 삼척지역, 미적인 가치를 다른 산술적 가치와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계곡을 그대로 보존하여 1백년, 1천년 후의 후손들이 그 빼어난 경관을 감상하게 하고, 그곳에 다양한 생물종이 계속 살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전기를



구 구희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만들어 후손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마음껏 쓰게 하고, 서울 사람들이 홍수의 걱정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자연-미적 경험을 발충할 수 있을 것인지

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 자연관의 문제이다. 통감법 건설 반대는 이유가 자연과학적·기술적인 이유이든, 환경적·미학적인 이유이든 간에, 결국 '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면 그 마지막 대답은 언제나 '윤리적 정당화'를 거쳐서 나오게 된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종의 다양성은 보존되어야 한다', '인간은 건강한 필요가 아니면 자연을 마음대로 변형시켜서는 안된다'는 당위는 일단은 과학적·기술적 연구성과를 빌어 주장되지만, 과학적·기술적 지식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고, 윤리학적 반성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환경윤리는 자연과학적·기술적 지식에 의해 촉발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계, 자연계 상호간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환경친화적 행위지침이다.

사설 노동자는 '봉'이 아니다

역사를 통해 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민중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MF라는 위기를 맞아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고통분담이라는 명목하에 정부는 정리해고를 추진했고, 노동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이 대이고,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누군가가 우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됐다. 최근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실업이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극심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출량 감소(7.2%)보다 노동투입량의 감소(13.2%)가 더 급격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으로 대량해고가 이뤄진 것이다. 역시 고통분담이라는 말은 명목뿐이고 힘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고 있음이 증명된 셈이다. 하지만 현재 모습은 여전히 고통을 떠맡아 힘겨워하는 노동자들을 더욱 더 질책해 보다 많은 고통을 짊어 지우려는 모습이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무언가가 잘못되었기에 우리는 이 난국을 봉착했고 그렇기에 무언가를 바꿔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변화 때문에 힘있는 자들과 민중들의 삶이 점점 격차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불균등한 고통분담 탓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실시된 생활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계층구조가 양극화되고 중산층이 완전히 해체되어 여유를 누리는 계층과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이 20대 80으로 나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중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도 값비싼 유명브랜드의 판매가 30%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소위 '힘' 있는 자들은 민중들을 봉으로 보는 듯하다. 잘 나갈 때는 자신들끼리 배를 채우더니 이제 어려워진 민중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는 안된다. 민중들은 더 이상 '봉'이 아니다.

5·18과 5공 세력

해마다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5월은 남다른 것이다. 올해도 지난 18일 광주를 비롯한 전국 여러 곳에서 수천 명의 추모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추모식은 이제 과거의 흔적이 식 차원의 행사가 아닌 민주 열망들의 뜻을 계승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승화된 잔치였다. 이는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지추를 남긴 이들의 명복을 비는 간절한 기원이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가면 가해자였던 5공 인사들은 지난날의 과오는 망각한 채, 재기의 욕심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전두환 전대통령과 노태우 전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죄인의 입장에라도 불구하고 측근들의 정치세력화에 배경이 되고 있으며, 현 집권 세력들도 이들을 이용하여 내년 총선에서 영남지역의 민심을 끌어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거의 가해자와 현 집권 세력들의 이러한 행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며, 숭고한 광주 열망들에 대한 모독일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민주화 운동은 6·25 사변 이후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아픔이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지체이다. 때문에 당시 원흉들이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더욱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지금도 그 때 입은 상처의 고통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함께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광주의 아픈 상처들이 잊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조차도 45% 이상이 이제 그만 하자고 답했고 고통학생 이하의 비율은 이를 훨씬 넘어선다고 있다. 광주민주화 운동이 역사책 속에서나 서술된 단순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인식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의 의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오늘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

본교, 팀제·연봉제 실시

“효율성만 강조한 기업 논리”

팀내 화합·대학 적용 가능케 보완돼야

본지 1272호에서 송석구 총장은 오는 7월 팀제와 연봉제를 중심으로 한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직원들은 팀제와 연봉제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이치만을 얻었다.

팀제와 연봉제는 90년대 중반 신인사·신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실시되었던 제도이다. 팀제는 피라미드식 다단계 계층구조로 되어 있는 관리층을 줄여 결재 라인을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줄어든 기존 관리직원을 실무에 투입함으로써 실무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흔히들 연봉제라고 부르는 성과급제는 말 그대로 능력별로 임금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 역시 팀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이들 제도가 갖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중반,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봉'이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팀제, 연봉제 역시 어느 제도와

마찬가지로 단점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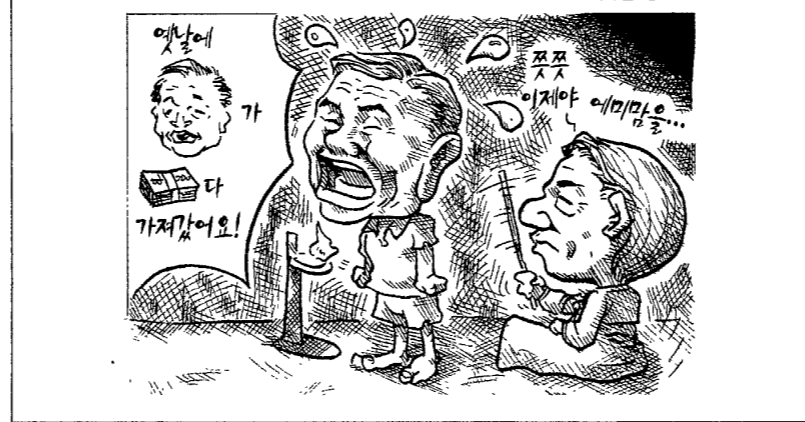
이들 제도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만큼 너무 경쟁 유발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공동체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TV에서 팀제와 성과급제 실시로 인해 삭막해진 사무실의 분위기를 그려낸 드라마가 방영된 바 있다. 팀원간에 정보교류조차 하지 않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 상대방을 배척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모습을 때문에 팀제와 연봉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직을 살리고 개인을 죽이는 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팀제와 연봉제가 별 다른 보완책 없이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작년 11월 본교 교직원 1백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학교 행정 조직이 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팀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팀원간의 인화단결, 개인주의, 부서간 업무협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동국만평



결국, 개혁과 변화에는 찬성하지만 보완되지 않은 팀제 실시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팀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인적 실적만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팀에 있어 기여도까지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 될 수 있다. 실제로 무산그룹은 95년 팀제, 연봉제 실시 이후 보완책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팀제 자체가 갖는 문제와 더불어 본교 행정에 이 제도를 적용시키는데 있어 제기되는 우려는 기존 기업에 적용되어 오던 제도를 대학에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

한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백경선 노조위원장은 "팀제 실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대학업무에 팀제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대학은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팀제는 경쟁력과 능률만을 지나치게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결국, 본교에 팀제와 성과급제 실시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 제도들이 대학의 특성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대철 기자 enlac97@cakra.dongguk.ac.kr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부주간 김규박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마경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하이텔·나우누리 ID dgpress 천리안 ID dgpress 구독문의: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광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66)1770-2588 팩스 (066)1770-2567

99 상반기 대의원총회 1. 일시: 99년 5월 27일(목) 2. 장소: 종강당 3. 참가대상: 대의원(학내대표, 전공대표, 반대대표) 4. 안건 1) 총대의원회 사임보고 -새내기새로배우터 부정가 감사 결과보고 -99 미션저 지역 선거 결과보고 -상반기 특별감사 결과보고 -상반기 예산분배를 위한 소위원회 활동보고 2) 대의원회의 이해를 위한 교양 3) 총학생회 회칙 부분개정 의결 4) 학생운동단위에 대한 연서 결의 서울캠 31대 총대의원회

여성학 생활도서관 개관 드디어 동아에서 여성학 생활도서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성학 생활도서관은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접하지 못하는 여성학 관련 서적이나 논문, 전기간행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과학·철학·문학 서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열람과 대출 모두 가능하며, 편안히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자격: 동아인 모두(학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 지참요) 2. 개관일시: 5월 17일 10시이후 3. 이용시간: 10시부터 18시까지 4. 장소: 학관 1층 총여학생회실 5. 문의: ☎ 2260-3614 *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서울캠 13대 총여학생회

고시장학생 선발시험 1. 일시: 99. 6. 26(토), 09:00~12:00 2. 장소: 고사당일 계산고시학사 계시관에 공고 3. 대상: 본교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4. 총 선발인원: 60명(수업료전액: 30명, 반액: 30명) 5. 시험과목 시험구분 학년 시험과목 사법시험 1 헌법, 외국어 2 헌법, 형법, 민법총칙, 외국어 3/4 헌법, 민법, 형법, 외국어 행정고시 1 영어, 국사 2/3/4 영어, 헌법, 국사 의무고시 1 영어, 국사 2/3/4 영어, 헌법, 국사 * 사법시험 외국어는 영어, 독일어, 불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 택일 6. 원서접수: 99. 5. 24(월) ~ 6. 2(수), 09:30~17:00, 계산고시학사 사감실 7. 합격자 발표: 99. 7. 7(수) 8. 주의사항: 시험당일 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 국가고시 입문특강 1. 과목별 일정 과목 담당교수 일시 강의실 헌법 정연주 5.26~27(18:30~21:30) 동국관 L401 민법 연기영 6.3~4(18:30~21:30) 동국관 L401 형법 심희기 6.21, 23(18:30~21:30) 동국관 B3(발타실) 서울캠 고시지도위원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99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대상자: 99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대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2. 자격 1)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2) 사범계: 교직과목 22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 이수자 3) 비사범계 ① 교육부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명단이 제출된 자 ② 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 이수자 각각 80점(80%)이상인 자 3. 접수기간: 99. 6. 2(화) ~ 6. 4(금) 4.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5. 교부 및 접수처: 사범대 교학과 6.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대상자는 유의하기 바람 서울캠 사범대학장

동국의 공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공간배분을 둘러싼 학생과 학교측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본 지면에서는 학내공간 부족 현상을 짚어보고 한정된 공간에서 좀더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시설확충을 모색하고자 2회에 걸친 시리즈를 싣는다. 이번 호에는 5월 10일자 학습공간에 이어, 생활복지시설 점검과 공간활용을 위한 제언을 한 후 시리즈를 마친다. 편집자

서울캠

학생자치공간

“분산된 학과 학회, 세미나실을 모아서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이자”

공간활용, 아·나·바·다 모색할 때

지난해 말 상록원과 정보문화관의 완공을 앞두고 학내 공간 재배치 논란이 있었다. 강의실 부족은 물론 이거니와 자치공간이 아예 없는 학과 등 새로 지어진 건물 완공으로 자치공간에 대한 갈등 완화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정보문화관이 개관하면서 정보산업대학 앞으로 학생회실 등 3개의 공간이 배정되었으나 학회실과 소모임을 비롯한 본교 학생자치공간을 둘러싼 문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기존 학과체제에서 학부체제로 바뀌면서 학과·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1·2학년들은 하나의 학부·계열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30여명의 학생들이 들어

가면 꼭 차버리는 학부실이 3백여명도 더 되는 인원의 자치공간이다. 이러다 보니 학부실을 이용하는 학생들만 이용하게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용을 잘 안하고 있다. 학교측은 현재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단위를 단과대학별로 확대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미술학과나 연극영상실기·기술 등 특수학과를 제외한 전학년 통합 모집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측의 모집단위 광역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조각조각나 있는 학생자치공간들은 그 효율성이 저조할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변화 흐름에도 학교측은 전체공간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이 마련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간문제의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 자치공간의 의미는 학생회실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쉬며,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각 학과 및 소모임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간은 그 효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부담없는 이용을 방해한다. 따라서 보통 각 단과대 마다 4·5개로 나눠있는 학과, 학회, 세미나실 등을 한데 모아 공용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소모임 활동 및 세미나를 진행할 경우 시간대 별로 신청하여 유동적인 공간 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 동약의 실정에서 전면적인 공간 재배치 문제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생활과 바로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각 구성원들간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인 만큼 학교측의 일방적인 행정은 없어야 할 것이며 학생을 비롯한 각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함께 논의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체육시설

“‘갈곳이 없다’ 불멘소리 해소할 체육시설 확충과 개방 요구돼”

학내 체육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는 ‘갈곳이 없다’라는 한마디로 모아진다.

비록 본교생이 이용할 수 있는 학내체육공간으로 대운동장과 만해광장, 체육관, 수영장이 있지만 사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축구, 야구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운동장은 평일 오전에는 야구부가, 오후에는 축구부가 사용해 일반학생들은 5시이후에나 사용이 가능하다. 그나마도 학교행사가 있으면 학교행사에 우선권을 준다.

만해광장은 농구코트가 있어서 일반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지만 코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원흥관 앞 농구대에서 농구를 하는 학생들은 “만해광장은 학생들이 많아 쓰기 어렵고 이곳은 시멘트 바닥이라서 다치기 쉽다”며 열악한 체육공간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7월 중순경에는 만해광장에 농구코트 2개, 축구코트 2개, 농구대 6개가 들어서게 돼 사용이 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내 체육관은 1층에 농구장과 락커룸이 있고, 지하에는 트레이닝실, 유도장, 태권도장, 무용실, 체조실 등이 있다. 그러나 이곳은 체육교육과 학생들과 특기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관리의 어려움으로 수업과 대회 결승전 정도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대학은 수영장, 탁구장, 스쿼시장, 테니스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종류의 운동공간을 마련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이화여대의 수영장은 본교 수영장이 여름에만 운영되는데 비해 연중 이용이 가능하며 학생

들의 이용도 활발하다.

또한 한국외대는 탁구장을 마련해 학생들이 공강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헬스장도 일반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운동장과 수영장, 체육관이 전부이고 일반학생들의 사용 또한 어려운 실정인 본교는 많은 체육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관계과의 한 관계자는 “체력단련실과 매트실, 에어로빅실을 갖추고 락커실과 샤워실, 관리실 그리고 병·난방 시설까지 완벽한 학생체육공간 마련 계획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생활공간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의식수준 고양도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학부



인식의 전환이

본교 복지매장은 생활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다량관 지하 1층에 있는 잡화점, 안경점, 문구점, 서점과 보건소가 전부이다. 하지만 약국, 미장원, 매점 등 더 다양한 복지매장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하 서점의 경우 창고 3개로 서적을 순환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1만 2천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을 수용하기에 크기가 매우 작은 형편이다. 서점이 제대로된 복지매장의 수준을 갖추려면 좀더 넓은 공간에 테이블을 설치해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 한 생협 관계자의 말이다.

캠퍼스가 산지형인 본교의 경우 정상에 위치한 본관과 도서관 사이는 학생들의 이동이 가장 빈번한, 그야말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쓰이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 다량관 학생식당의 폐쇄와 관련해 다량관 전체를 학생복지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하기에는 식당자리를 두고 산학협동 연구센터나 제2도서관 건립 등 쟁쟁한 후보(?) 공간이 쫓겨서 있어 현실적으로 복지매장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 다량관 2층 보리수 매점을 반으로 축소한다는 학교측의 방침은 그나마 학생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축소하는 격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관계과의 김계현 계장은 “절대공간부족을 타할 일만은 아니다. 공간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으로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말한다.

따라서 현재 학내복지를 담당하는 기구들의 기능

을 강화하여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소를 살펴보면 평소에는 간호사 1명이 관리하고 일주일에 한번 보건소장이 출근하는 운영체계로는 학생, 교직원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기에는 모자란 면이 많다.

구체적인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한 복지매장의 확대나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지난 17일 열린 생협 긴급이사회에서 학생회관과 학림관, 정보문화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후문 근처 매점건립을 학교측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앞으로 이 지역 매점건립 향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문화예술공간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 못해...개방시간 연장 필요”

“학술문화관 전시실은 이미 사용중이고, 또 학생회관 연화원은 이미 예약돼 있네요.”

미술전시를 앞둔 한 학생의 푸념이다. 그러나 이 말은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뭔가 걸쭉하다. 그만큼 전시실과 공연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먼저 교내에 있는 공연 장소를 살펴보면 학술문화관의 소극장, 전시실, 학생회관 5층 소극장, 연화원, 학림관 소극장, 본관 중강당과 불상당 등의 야외공연장이 전부다.

그러나 이나마도 학술문화관 소극장은 연극영상학부 전용 연습공간이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의 이

용은 불가능하다. 학생회관의 연화원도 일반 학생보다는 동아리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야외 공연장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먼저 불상 앞의 경우 면학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이 따르다며 특정 행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용을 금하고 있다.

일반 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인식돼 있는 강의실의 스크린, 모니터, 마이크가 일반 학생들도 관리처에 신청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학생들의 무관심과 학교의 홍보 부족으로 가까이 있는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동국관 5층의 휴게실에 있는 CNN뉴스 시청용

모니터의 활용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도서관의 멀티미디어실은 이용하는 학생만 이용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실에서는 구비된 자료만 시청할 수 있지만 원흥관 2층 세미나 실은 신청만 하면 자신이 가지고 온 테이프를 직접 볼 수 있다.

그러나 동국관, 학술문화관, 명진관, 혜화관 등은 이부대학 강의와 특수대학원 강의가 있어 저녁 10시까지 사용이 불가능하다. 건물의 개방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정해져있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수업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도서관 1층의 멀티미디어 실은 오후 5시에 문

을 닫아 강의가 끝나면 이용을 할 수 없으며 짧은 개방시간 탓에 이용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아무리 개방시간을 늘려준다고 해도 건물 폐쇄시간에 부딪혀 제구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이용이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공간과 시간의 배치로 불편을 줄여야 할 것이다. 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설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학내에 쉴 곳이 없다!
서울캠은 각 건물마다 마땅히 실만한 장소가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건물마다 각각의 휴식공간이 있다고 여길지 모르다. 그러나 사실 식당을 제외하면 그 역할의 많은 몫을 담당해 왔으며, 휴식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동국관 5층 휴게실과 혜화관 옥상, 도서관의 휴게실, 여학생 부처의 휴게실뿐이다.
현재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

례로 손꼽히는 곳은 혜화관 옥상의 다락방 매점이다. 경시대 서울캠퍼스의 경우에도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옥상을 체육과 휴식공간,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본교도 혜화관 뿐만 아니라 정보문화관과 상록원 옥상의 활용방안을 잘 모색해 공간부족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굳이 모든 옥상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단이나

경주캠

△노천강당 = 54평 △동아리 연습실=21.5평 △전시실= 39.5평 △교육매체실 =50평 △옥야실 40평... 이들 온방골내 몇 개 안되는 문화공간 가운데도 학생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용률이 저조한 곳도 있다.
학생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공연장소를 얻기 위해 학교측에 요구하다 94년 7월에 완공된 노천강당은 관람석까지 포함해 2백여평에 이르고

본교는 학생들의 복지를 얼마만큼 증진시켜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과연 학교측은 어떤 대답을 할까?
그러나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와 학외

있다. 노천강당이 설립될 당시 동아리나 학생회에서 각종 행사나 공연장 용도로 쓸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노천강당을 행사용으로 이용한 단체는 거의 손꼽을 정도이며 올해 들어서는 아직 한번도 장소를 빌려간 사례가 없었다고 동아리연합회측은 말한다.
이렇듯 노천강당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설립당시 잘못된 위치 선정 △관람석의 비포장 △건물방향의 부조화 등을 들 수 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노천강당을 살리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동아리연합회조차 "본관이 설계된다면 학생들의 발길이 돌려질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 공간의 부족은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다.
동아리방을 소유하고 있는 동아리는 공간이 좁아 공간을 확대하거나 넓은 곳으로 이주해 달라고, 동아리방을 소유하지 못한 동아리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는 학생회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 인문대학생회는 "인문대 학생이 원효관에 주로 상주하는데 학생회관에 있는 학생회는 원효관으로 옮겨야 한다"며 4.19등반대회때 기습적으로 점거해 들어간 적이 있었다. 도서관도 정보검색실을 제외한 1층과 2층이 행정기구로 편성돼 있어 시험기간에는 도서관 좌석 차지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이런 경주캠 공간부족의 근본적인 문제는 본관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공간부족을 해결하기위

"모든 학생이 공강 시간에 맞춰 체육관을 이용할 기간 가뭄에 끝나고 있다. 그렇다고 수업을 뒤로한 채 여가만을 우선시 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 결국 공간부족이 먼저 해결돼야 학생들의 불만이 수그러들 것 같다"고 말하는 한 상경대 학생의 말처럼 실제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전체 35교시 중에 △

월요일= 7,8,9교시 △화요일=4교시 △목요일=7,8,9교시 △금요일=4교시까지 더해도 고작 8시간에 불과하다.
체육시설로는 체육관내 설치된 시설물인 △지하1층—유도장(동국유도부에서 관리) △지상 1층—탁구장, 농구대, 배구대, 헬스실(이상은 체육관 관리실 및 사회체육학과에서 관리) 등이 있다. 이외에도 테니스장, 대운동장에 마련돼 있는 농구대, 소운동장에 야구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체육관의 경우 주말에 동아리나 단체에 대여를 해준다.
특히 지난해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체육관내 20여종의 기구를 갖춘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루평

못하게 테이블위에 발을 올려 놓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평시 간대에는 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을 생각해 깨끗하게 사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쓰레기통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에 비해 밖에 떨어져 있는 양도 상당하다.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바로 옆에 위치한 30여평의 여학생 휴게실은 여학생들을 위한 사물함이 설치돼 있고, 피아노, 포켓볼, 체력단련 기구 등을 구비해 놓고 여학

휴게실
"옥상이나 건물 귀퉁이 등의 공간발굴 필요"
건물 중앙의 홀 등을 조금만 더 신경써서 편안한 자리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효율적인 이

용을 피할 수 있다. 상록원의 경우 식사와 차를 마시며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을 건물 옆 공터에 나무탁자와 의자를 배치해 많은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앞으로 본교처럼 좁고 한정된 공간에서 휴식공간까지 찾는다면 옥상이나 건물의 귀퉁이 공간 등의 새로운 공간발굴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양경민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문화예술공간
"다양한 기획전시전 · 공연 등 학생이용도 높여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요구끝에 어렵게 얻어낸 결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문제점들을 하나씩 보완한다면 온방골내 최상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아리나 단체의 공연 및

각종행사의 연습실로 쓰이는 동아리 연습실은 이용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문화공간으로는 드물게 도서관에 위치한 125개의 좌석수가 있는 교육매체실은 매주 월·수·금요일에 오후 3시부터 비디오를 상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수는 하루평균 20여명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내 문화시설 이용후 미비한 뒷정리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을 볼 때 대학 지성인에 걸맞은 의식수준의 고양이 필요하다.
정희정 기자
dg19711782@mail.dongguk.ac.kr

학생자치공간
"구성원간 논의 활성화로 대체공간을 찾자"
해 본관 설계가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계가 어느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언제 착공식을 할건지, 완공일정이 언제인지는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본관으로 이전할 행정기구가 대부분 결정됐다"며 "본관으로 이전할 행정기구의 공간을 어느 기구가 다시 들어올 것인지가 논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편 현재의 공간효율을 억제하는 요인도 많이 있다. 우선 강의실 부족은 강의시간표 설정

에 그 원인이 있다. 화·수·목요일에 집중돼 있는 강의 시간때문에 강의실이 부족하다고 한다. 교수와 학생 모두 화·수·목요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의실에 냉·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학을 앞둔 시기와 개강 초에는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학내의 면학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학교의 복지시설 투자비와 학생들의 의식수준 미달 때문이다.
앞으로 산적해 있는 공간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간의 양보와 협조가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외부업체에게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의뢰해 그들의 지적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박양우 기자
dg19711437@mail.dongguk.ac.kr

체육시설
"강의공간 확충 통한 본래의 취지 살려야"
균 이용자 수는 3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규정상에는 동국인이라면 누구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2학기에는 5시)까지 체육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경주캠의 체육관은 사회체육학과(이하 사체과)의 강의실이 체육관내에 상주해 있어, 강의실 수업과 실습시간

에는 수업방해를 이유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한 학과에서는 "우천시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탐내고 사용해 보지도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체육관내 시설물 이용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체육관측은 "지난해부터 1,2,3,4학년이 한곳에서 수업을 받으려니 현재 3개의 강의실과 실습공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간 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학생들의 불평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학교측은 체육관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이다.
대학부

휴게실
"남을 배려하는 공중도덕 의식을 갖자"
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99평 크기인 도서관 휴게실은 하루 1천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테이블 17

개에 102개의 좌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식당과 휴게실이 연결돼 있어 소음과 담배연기 때문에 인해 식사를 하러온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휴게실의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먹고 남은 찌꺼기나 쓰고 남은 쓰레기의 경우 그대로 방치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함을 감안할 때 우선 나무터가 공중도덕에 대한 의식개혁을 했으면 한다.
대학부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제언

캠퍼스 울타리를 벗어나자

연영과-총무로가 강의공간 ?!

1, 2 교시 수업을 마친 동국이는 고민을 한다. 어디로 갈까? 다음 수업은 4시간후에나 있는데 마땅히 가 있을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공연을 보고 싶어도, 그럴 만한 공간이 없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어도 도서관에서 공부할 하고 싶어도, 자리를 잡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에는 공강시간마다 친구들과 담구장이나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젠 그것도 재미가 없다.
동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했을 고민이다. 부족한 공간 탓이다. 서울캠의 경우, 교지확보현황을 보면 교육부 기준 면적에 비해 확보율이 39.5%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명진관(4천8백34평방미터)과 비슷한 수준인 임시강의동과 학군단부근의 약 4천8백62평방미터 정도인데, 이마저도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을 인한 고도제한때문에 12미터이상의 건축물은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처럼 수직적 팽창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부지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본교의 공간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비효율적인 면이 여러 곳에서 지적된다. 서울캠 교사 면적을 전체 학생수로 나눈 학생일인당 면적을 1로 하여 건물별 상대비를 보면 혜화관은 2.77, 정보문화관 1.45이나, 동국관은 0.59로 타건물에 비해 학생수가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컴퓨터실과 같은 공간은 자리가 부족한 실정인데, 몇몇 학생자치공간은 사용인원수에 비해 크거나 거의 비어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교 수영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소유인 이곳은 현재 본교에서 임대중인데, 1년 임대료를 모두 내고 있음에도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간 낭비가 심하다. 대운동장과 인접해 있는 점을 이용해, 탈의실이나 샤워실, 그리고 기타 체육시설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 식당과 공연공간을 함께, 강의실을 지정해 일정시간 이후에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등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교문 안에 모든 건물이 다 존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미국의 경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로드아일랜드와 브라운대는 상대 대학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로드아일랜드는 브라운대학의 도서관이나 체육시설등을, 브라운대는 로드아일랜드의 박물관을 이용하는 식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게 교문의 개념을 파괴한 경우가 있다. 동덕여대가 그러하다. 디자인 대학은 패션의 거리라 불리는 로데오거리에, 미술학부는 대표적 화랑가인 인사동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공연예술대 또한 곧 동승동 대학로에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공간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현실과 접목된 특성화 교육도 가능하며, 실제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는 어때할까? 전국 최고의 연극 영화학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도 주춤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의 거리인 총무로에 인접한 장점을 최대한 이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주위 또한 게임소프트업체와 스튜디오, 영화제작사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업체가 8백여개나 모여있다. 뿐만 아니라 광고기획업체만 해도 1백개가 넘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의 인식공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둘, 우리 것은 안돼.' 라는 생각보다는 동국의 공간은 동국인들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다라는 공유의식의 확산이 절실하다.
박영실 기자
youngsp@cakra.dongguk.ac.kr



오늘의

“짜투리 시간으로 환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보람”

35명의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하는 무료도서 대여

“짧은 시간에 환자들의 무료함을 달래 줄 수 있는 일이 될까 공리중에, 간호과장이 도서대여를 제안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선뜻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가 되면 36명의 간호사들이 조를 짜서 이방 저방 다니며 환자들에게 책을 대여해 주고 있다. 그 중에서 장애령 간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처음 책을 갖고 병실에 들어갔을때 간호하려 갔을때만 달리 좀 어색하고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도 몇번씩 생각하고 연습

하고 들어갔더니깐요”라는 말에서 느껴지듯 그녀는 환자들을 위해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배려할 줄 아는 것 같았다.

대여해주는 책들은 간호과 직원들, 학교 교수·직원·학생들이 기증해 준 것과 또 환자나 보호자들이 집에서 가져온 책들이다.

“이젠 제법 환자들도 관심을 가져 주는 것 같아요. 보호자들도 많이 읽구요. 어떤 환자는 불교병원에서 불교관련서적이 잘 보이질 않는다고 말해주기도 하구요” 또 “휠체어를 타는 환자가 직접 우릴 찾아와서 책을 대여해 갈 때,

보호자들이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볼때면 괜스리 흐뭇해 짐을 느껴요”

“우리 점심시간대를 이용해 이 일을 하죠. 그래서 점심을 급히 먹고 휴식시간에 각 층마다 다니죠. 이런 짜투리 시간이라도 내서 환자들에게 봉사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몰라요” 간호하는 일만도 쉬운 일은 아닐텐데 그녀들에겐 오히려 이일이 더 힘나게 해주는 모양이다.

“도서대여는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저조한 편이에요. 하루에 총 40권에



장 애 령 (동대경주병원 간호사)

서 50권정도 대여가 되고 있어요. 잡지, 만화, 소설, 문학잡지들이 주로 많이 대여되구요. 그런데 지금있는 책은 많이 부족해요”라며 책부족을 호소한다.

“이젠 이일에 관심이 불어 품이 고달피도 혼자서 거뜬히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간호사란 직업을 택한 데 만족하고 더불어 이런 작은 봉사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네요” 자기가 있어 다른 사람이 즐거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리)

dg19914853@mail.dongguk.ac.kr

의 학 상 식

건강한 피부를 위하여

요즘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외모가 예전보다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없애고 싶어하는 피부의 잡티라고 불리는 기미, 주근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미는 흔한 질환이면서도 정확한 발생 원인이나 병인은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과민성약물 복용이나 임신, 간 기능 저하, 영양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고, 특히 자외선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미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빈번하며 감상선 질환, 난소 종양 등 내분비 질환이 있을때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몸의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여 색소를 만들어 내는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증상은 연한 갈색 내지는 암갈색 혹은 흑색의 불규칙한 모양의 색소 침착 반이 주로 얼굴노출부인 안면과 눈 밑이나 이마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며 일광 노출 후 색갈이 짙어진다. 가려움 등의 증상은 없으며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수면은 증상을 악화시킨다. 기미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피부의 가장 바깥 표면인 표피에 색소가 얇게 깔린 표피형, 깊숙한 진피까지 퍼져있는 진피형, 진피와 표피 모두에 병변이 존재하는 혼합형이 있다. 표피에 있는 기미와 달리 진피에 있는 기미는 약의 침투가 쉽지 않고 레이저나 화학 박피술로도 깊은 곳 기미의 색갈까지 없애기가 무척 어렵다. 기미는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양산이나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 비타민 C 섭취,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기미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기미에 대한 치료법은 연고를

바르는 약물요법, 박피술, 레이저 치료법 등이 있다.

주근깨는 일광노출 부위인 코, 뺨, 손등, 앞 가슴의 피부에 주로 생기는 3-5mm 정도 크기의 황갈색의 작은 색소성 반점으로 서양인에게 흔하며 동양인에게는 비교적 흔하지 않다. 원인은 유전적 소인이 강해 부모 중 한쪽이라도 주근깨가 있으면 자식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생기기 어렵다. 출생시는 물론이고 유아기에도 나타나지 않다가 5세 이후에 나타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그 수가 증가되어 사춘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 이후 점차 수가 줄어든다.

20대를 전후하여 대부분 없어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주근깨로 인해 지나치게 고민을 한다면 정신 건강상 치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미에 비해 주근깨는 피부의 바깥 층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레이저나 박피술로 매우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 뒤 햇빛을 받으면 다시 재발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햇빛 차단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햇빛이 강해지는 신록의 계절이 시작되므로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저의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 무 규 (동대경주병원 피부과)

20대를 전후하여 대부분 없어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주근깨로 인해 지나치게 고민을 한다면 정신 건강상 치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미에 비해 주근깨는 피부의 바깥 층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레이저나 박피술로 매우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 뒤 햇빛을 받으면 다시 재발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햇빛 차단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햇빛이 강해지는 신록의 계절이 시작되므로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저의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대를 전후하여 대부분 없어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주근깨로 인해 지나치게 고민을 한다면 정신 건강상 치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미에 비해 주근깨는 피부의 바깥 층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레이저나 박피술로 매우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 뒤 햇빛을 받으면 다시 재발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햇빛 차단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햇빛이 강해지는 신록의 계절이 시작되므로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저의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발 선 대



박 찬 정 (서울캠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후문지역 4천여 학생들의 운택한 복지를 위해

정보문화관 건립에 따른 각 구성원의 의견 반영 필수

매 끼니 때마다 선택의 여지없이 후문 밖 분식집이나 식당으로 향하게 되는 것 또한 후문지역 학생들의 불편한 현실이다. 후문지역 4천여 학생의 대학 내 복지생활에 대한 자포자기로 인해 아마도 상륙원 식당의 혼잡문제는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식당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 현재 90%에 달하는 식당 이용이 감소됨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일 것이며 학생들이 학내 매장을 외면하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근래 지어지는 건물이 복사실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 공간을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보문화관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후문지역에서 주로 생활하는 교수와 학생은 복지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후문지역의 열악한 복지환경에 대하여 학생들이 묵묵히 감당하

고 참아내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반드시 식당과 매점공간, 휴게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무인복사기, 출력실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 운영자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가며 학외 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성원 다수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것을 편리함과 삶의 안락함을 구하고자 하는 개인성향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이 진정으로 대학 발전을 고민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로 삼아 동국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대학 본부 각 부처의 구조조정과 함께 공간 이동이 이야기되고 있고, 더불어 정보문화관이 새로 들어서면서 학내 여러 공간들이 체계적으로 재편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나마 주어지는 반가운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효율적인 대학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결정권자의 사려 깊은 대응방안을 기대한다.

취업정보

- 롯데인력관리위원회
신입사원 모집, 전공무관, 5월 29일 마감
(주)대륙화학공업 토목직 모집
- 토목공학과 5월 29일 마감
(주)은산해운항공
- 업무부, 영업부 사원 모집 전공무관 5월 29일 마감
- 그린서비스 통번역요원 모집
- 영문, 일본 5월 29일 마감
- 뉴리이프 그룹
- 조연출 코디네이터 모델 캐스팅 부분 모집 전공무관 5월 29일 마감
- (주)세한
- 신인가수 스카웃, 제작 담당 전공무관 5월 28일 마감
- 민간위탁공공근로사업

- 행사진행요원, 전산과 작업 DB개발 전공무관
- (주)노브랜드
- 무역, 경리, 수출, 전산, 리셉션 부분 전공무관 6월 19일 마감
- (주)동부생명 보험
- 파이낸셜플래너, 보험영업 부분, 전공무관 6월 11일 마감
- (주)한국미쓰오 서비스
- 기술영업 부분 정밀기계 제어계측정밀전자공학 전공 6월 5일 마감
- PC POWER ZINE
- 외신기자 전공무관 5월 31일 마감
- (주)세화매디칼
- 영업부 자연계열우대 5월 31일 마감



Cholpon (인문과학대 한국어문학부 2)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키르키즈와 비슷한 문화환경 ... 아름다운 한국에 매료

봄향이 그윽히 퍼져나가는 기속사 생활관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앉아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한 여학생이 있다.

맑은 눈동자에 수수해 보이는 모습이 한국인들 틈 속에서 전혀 다른 외국인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녀의 이름은 'cholpon'. 한국어문학부 2학년인 그녀는 “저, 한국말 잘해요”라는 첫마디와 함께 수줍은 미소를 자아냈다.

그녀는 작년까지 우리학교와 자매결연한 키르키즈 국립종합대학교에 다니면서 동양문화학을 공부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1학년생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남달리 외국어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다른 나라 말과 문화를 배우길 좋아했던 그녀

는 교환학생으로 뽑혀 유학은 것이다.

“지난해 9월 난생 처음 다른나라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많이 떨렸고 색다른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어색했지만 이젠 쌀밥에 김치를 먹고 뒷사람을 공격하는 한국의 생활에 많이 익숙해 졌어요”라며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는 그녀를 볼 수 있었다.

“한국어는 우리 모국어와 문법면에서 비슷하고 그곳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어렵긴 하지만 재미있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길게 이야기 하면 숨이 차요”라면서도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한국은 아름답고 재미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꽃과 나무들도 많고 특히 한국의 역사적 고장인 경주에 있는 동국대에 공부할 하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된 일이에요. 한국을 알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한국을 이해하고 더 많은 문화를 배울수 있어 뿌듯하다며 그녀는 뺨웃어보였다.

“동국대와 모국에서 다녔던 학교의 모습이 많이 비슷한 것처럼 느껴져요.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 그렇지만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고국이 그리워지고 옛친구들이 생각나곤 해요” 잠시 그녀의 눈동자는 살며시 흔들리고 있었다.

“여유있는 시간에는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어요”이젠 한국의 문화에도 제법

익숙해져 버린 모양이다.

그러나 이제 이번 학기를 끝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녀의 표정은 한없이 아쉬워 보인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 많은 동대 학생들도 다른 나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바라고 그간 보살펴 주신 교수님과 생활관 관장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다시 한국에 와서 대학원을 다닌후 한국에서 통역일을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한동안 세월이 흐른 뒤 그녀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 여기 푸른 캠퍼스를 거니는 모습을 잠시 그려본다. (X)

dg19910487@mail.dongguk.ac.kr

지역소식

중 구

새로운 중구 만들기 구민 의견 수렴

중구청에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현실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중구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공모한다.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구정에 관련된 법령·제도·사무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구정 확충 및 재정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A4용지 1~2매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창의성·경제성·실용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30만원, 우수상 3명에게는 각 20만원, 장려상 4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문의=중구청 정책기획과 (2260-1606)

중구청 아르바이트 모집

중구청에서는 중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99년도 하반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지참,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중구청 총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7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문의=중구청 총무과(2260-1313)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가동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의주로 2가 16-4)이 내일(25일) 준공됨에 따라 종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배출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자원재활용처리장에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일괄적으로 선별할 수 있

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중구내 13개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것을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으로 집중,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16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뿐 아니라 도시미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고는 위의 사실과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한다.



7월10일까지 공예품경진대회 개최

경북도는 오는 '제29회 경북도공예품경진대회' 및 '제30회 산업디자인전람회'를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경주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 대회는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촉진과 우수 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열린다. 7월중 열리는 전국공예품대전과 연계해 개최되는 이 대회는 △6월 22·23일 출품작 접수 △6월 29일 심사 △7월 8일 시상 △7월 8·9·10일 전시용으로 전개된다.

특히 특선이상 입상한 20개의 공예작품은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출품 및 2002년 월드컵 유망상품홍보관 참여기 우선 지원, 민속공예품 품질인증서 발급 추천을 받는다.

포석정에서 9세기 기와 발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홍성민)은 지난 7일 사적 제1호인 포석정 남쪽 담장벽에서 포석이라고 새겨진 기와조각을 발견했다.

출토된 명문 기와의 문양은 수지문과 명문이 음각된 너비 6cm가량의 두들개로 조각된 것이고 명문은 가로 5.5cm, 세로 8cm로 구획된 방각내에 세로로 쓰여져 있는데 '포' 자는 가로 4.3cm, 세로 4cm이고 '석' 자는 가로 2.4cm, 세로 3cm 크기이다.

한편 명문 기와에 적힌 포(砲)자는 제작 당시 기와 제작자들이 포(砲)자를 약화하여 성형화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명문 기와는 창건연대에 대한 기록이 없는 포석정에 대한 제작시기를 밝히는데 값진 자료이며 추후 조사가 완료되면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포석정 창건연대에 대한 9세기 초반

경 주

제작실보다 그 기원이 올라갈 수도 있다.

‘미한 민족 예술제’로 경주-익산 화합의 장 마련

전북 익산시의 경주시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마한민족예술제 기간에 익산시와 경주시일원에서 두 도시를 대표하는 서동왕자와 선화공주를 선발하여 동서화합열차를 타고 혼례식을 재현했다.

자매도시간의 우의증진과 동반발전을 도모하고 동서화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이원식 경주시장은 “두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 역량과 경험, 정보를 공유, 무한 경쟁이 펼쳐질 21세기에는 다같이 세계 최고의 문화, 역사, 관광도시로 뻗어나자”고 말했다.

소나기

모집단위 광역화



△우리 대학은 업그레이드 안하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대학 아니던가!
△직할시는 광역시로, 모집단위는 광역화로.
△홍란을 가중시키지 말아도!
△도대체 높은신 분들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어야지...
△무슨 속셈이야.
△개나 소나 다 받으라고 해.
△졌다 져어.
△우리가 바본 줄 알아.
△삼풍 백화점=모집단위 광역화
△선후배 사이 다 갈라 놓아 학생들 단합 잘 안되게 하고 돈은 돈대로 많이 남겨 먹고 탁월한 선택입니다.

△모집단위를 광역화 시키나 시키지 않으나 마찬가지로.
△모집단위보다 교수를 광역화하자.
△지원금에 눈이 먼 우리.
△너희 아들은 여기 안 보낼꺼지?
△학생들이 너희 꼭두각시냐?
△안돼~안돼 왜 계열별 모집.
△후배가 누꼬?
△내가 속한 과는 어디메이뇨.
△누가 주인이야?
△무늬만 광역화, 준비나 좀 하쇼.
△나는 광역보다 시골이 좋다.
△너희 맘대로 그러지마~
△나는 후배랑 사귀고 싶어.
△누가 우리 후배 본 사람 없쇼.

“레포트 베끼기”

학생들의 능력무시한 일률적 과제도 문제

레포트 베끼기! 한 두해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번 두번 있었던 일도 아니다. 레포트를 한번이라도 내본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한번쯤은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

따라서 이 베끼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교수님들이 내주시는 레포트 중 학생들이 할 수 없는 레포트가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얼마전 내가 받게 된 레포트 역시 그러하다. 그 레포트는 프로그램을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되는) 짜는 레포트였다. 솔직하게 말해서 난 겁쟁이다.

어떻게 그 레포트를 작성할 것인지 막막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다. 인터넷, 통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선배들도 모두 그 레포트를 위해 만났다. 그러나 겁을 거의 통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선배는 “프로그램 짜는게 쉬운 일인줄 아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었다.

그래도 아는 편으로 소스를 얻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출력해서 제출하였다. 물론 다른 학생들도 나와 비슷하게 제출했다. 그런데 다음시간이었다. 교수님은 우리가 냈던 그 레포트가 하나

같이 같은 내용이었다며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었다.

교수님은 레포트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셨다. 자신이 할 수 없으니까 내지 못한 것이라고, 그래서 더 양심적이며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인지 또 오히려 소스나 찾아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레포트에 대한 열정이 있어 그런것이 아닌지, 마지막으로 레포트 앞에서 그런식으로 생각 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레포트 베끼기!! 학생들의 잘못된 행위 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최화영 (eng40@hanmail.net)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약광장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계실간풍기(1500) 김치볶음밥(1300)
화	하이리이스(1300) 순살돈까스(1500)
수	오징어탕수육(1500) 얼무비빔밥(1300)
목	갈비찜백반(1500) 스파게티백반(1300)
금	삼선볶음밥(1500) 참치김치볶음밥(1300)

(단위:원)

상록원 학생식당 차림표

월	생선가스(1300) 참치김치찌개(1300) 웨이채볶음(1300) 생선가스(1300)
화	후링크볶음밥(1300) 설렁탕(1300) 떡볶이백반(1300) 후링크볶음밥(1300)
수	탕수육백반(1500) 어묵비빔밥(1300) 연두부백반(1300) 탕수육백반(1500)
목	부추잡채(1300) 소고기국밥(1300) 모듬볶음밥(1300) 부추잡채(1300)
금	짜장밥(1300) 오징어회덮밥(1500) 부대찌개(1300) 짜장밥(1300)

(단위:원)

목격글

축하합니다

△성민오빠 생일축하해. 02가
△킴동 98·99 M.T 갔다 은거 축하합니다.
다.
△일문 일일호프 그 화려한 잔치를 축하!
후! 후! 내표 거절하고 안은 사람은 후회 할걸!
-yellow

수고하셨습니다

△대동제 기간에 즐거우셨나요. 모두모두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다

△멋진 아농, 활기찬 아농, 열혈 아농!
아농 16기 파이팅!
△15기두 파이팅이다! -072가
-윤상이가

축제, 더이상 흥청망청 안된다

‘올해는 뭔가 다르겠지...’ 하며 축제를 맞이했다. 그런데 며칠사이 “우리학교 축제 왜 이래요?”라는 후배들의 푸념 섞인 말을 들으면서 나의 신입생 시절의 축제를 떠올려 보았다. 기대에 부풀어 맞이했던 축제... 그러나 학교에 배인 술냄새에 나 역시 취해버려 술에서 시작해서 술로 끝났던 기억이 나의 새내기 시절 남아있는 축제에 대한 기억이다. 지난 해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엉망인 축제를 보면서 우리학교의 축제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우리학교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의 무관심인 것 같다. 우리는 축제가 재미없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축제를 외면한 채 지금 축제가 그냥 재미있기만

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학생과 학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축제를 축제답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대학의 축제는 활발하고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의 축제는 어떠한가? 흥청망청 마셨던 술로 꽂아 만든 교정이 꽃향기가 아니라 술냄새에 나 역시 취해버려 술에서 시작해서 술로 끝났던 기억이 나의 새내기 시절 남아있는 축제에 대한 기억이다. 지난 해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엉망인 축제를 보면서 우리학교의 축제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이런 악습은 애교심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향별(문과대 일어일문학과)

컨닝이 학교기물 더럽힌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동약의 교정에 내리쬐인다. 이런 봄의 정기가 가득한 동국대를 거닐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푸근해진다. 모든 캠퍼스가 푸르른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강의실 밖의 풍경일 뿐이다. 우리의 캠퍼스가 젊음의 푸른 빛이라면 우리가 강의실을 들으며 지식을 쌓아가는 공간인 강의실은 녹색하고 우물한 째뻍이라 할 수 있다.

늘 우리와 함께하는 강의실의 책상과 의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얼굴을 가리고

“대학문화 = 술!”
이제는 벗어나야

얼마 전 어느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전통의식을 보여준다고, 이른바 “신입생 길들이기”를 행하더라 학생들의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소위 ‘우리 나라 최고의 명문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이는 우리 대학 문화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 하겠다.

오늘 날의 대학 문화는 간단히 술 문화라는 말로 대변되어질 듯 하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해마다 신학기면 늘상 있는 일처럼 되어버린 이와 같은 행태는 한 마디로 전통도 뭐도 아니다. 술을 잘 마시는 것이 마치 능력처럼 인정되는 사회적 시각,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일부 그릇된 선배들의 권위주의 등이 빚어낸 이런 풍조는 그 어느 누구를 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른을 닮거나, 그들로부터 우리가 향유할 문화를 기대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대학 문화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누리고, 책임져야 할 우리 대학인들의 문제이다.

언제쯤이면 “대학 문화=술 문화”라는 공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참다운 지식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미림(의과대 의학과)

있다. 지성인이라는 집단이 모여있는 대학. 그리고 그 대학교라는 공간 중 우리의 지식을 쌓아가는 장소인 강의실이 점점 우울한 빛으로 변해버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강의실 안의 깨알 같은 글씨는 팜플렛이 열심히 공부하는 동국인의 모습이 아닌,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학점만을 위해 바둥거리는 낙약한 동국인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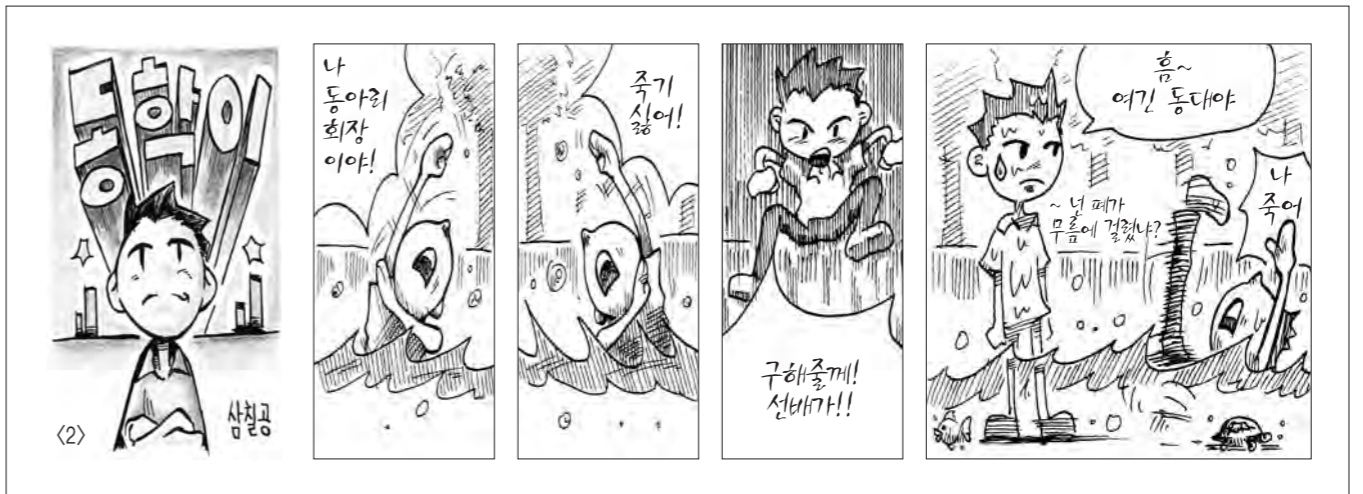
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작은 사회라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우리는 작은 비리의 조각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아장아장 걸으며 엄마와 함께 가던 유치원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을 배웠고 좀 더 많은 지식의 습득을 위해 대학이라는 곳에 왔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지식의 습득은 커녕 유치원에서 배운 인생의 필수사항마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동국인들이여! 그대는 항상 깨끗한 세상을 원하며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한 그대의 바램을 위해 그대는 노력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지성인으로서의 동국인이라면 책상위에 깨알같은 글을 채우기보다는 팜플렛며 책과 싸워야할 것이며, 우리의 동국대 강의실을 소중히 해야 할 것이다.

난 그대가 우물한 째뻍 강의실에 앉아 작은 비리를 저지르는 동국인이 아닌 하나하나 스스로 배워가는 동국인의 모습을 가졌으면 한다.

김주현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부)



모니터링

동대신문에 바란다

학교의 나침반이 되도록

학교의 나쁜 제도 개선 ... 여론 주도해야

오래전부터 동대신문에 바라는 바가 하나 있다.

교내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매체로서 사실전달과 비평에 치우치지 말고 여론을 주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대학 발전을 목표로 한, 바로고 합리적인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학업이 우선인 학생들이 대학인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주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신문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추상적인 대학발전이란 구호보다는 생존이란 단어가 보다 우리의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어려운 현실을 훌륭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모

든 구성원들이 가지는 스스로의 자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나 습관등의 개선이, 실현 가능 여부나 그 효과가 불투명한 외형적인 발전방안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신문에 바라는 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뚜렷한 목표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결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현실을 직시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우리 주위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 습관등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깨우쳐주어야 할 것이다.

언론이 이러한 일들을 실현해 나간다면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지 않을까 하는 평소의 생각을 적어보았다.

이진형 (경주캠퍼스 교무처 수업계장)

비판정신 부족 ... 홍보기능 줄여야

대학언론이 가지는 소명은 무엇일까?

나는 사실을 알리는 공보기능, 자랑거리를 알려 구성원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홍보기능 뿐만 아니라 현장에 뛰어드는 현장 정신과 비판기능을 들고 싶다.

동대신문은 공보기능과 홍보기능은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으나 현장 정신, 비판기능은 떨어진다고 본다. 동대신문은 공보기능과 홍보기능은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으나 현장 정신, 비판기능은 떨어진다고 본다. 동대신문은 공보기능과 홍보기능은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으나 현장 정신, 비판기능은 떨어진다고 본다.

본관을 점거하려는 학생과 이를 막으려는 교직원 간의 물리적 충돌을 담은 사진(동대신문 4월 5일자 2면)을 게재하기에 앞서 학교 당국자와 총학생회 대표의 지상 대담(紙上對談)을 기획하여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학자협상' 진행 당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총학생회에서 배포한 유인물과

대자보가 거의 전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은 더욱 크다.

다음으로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받을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일반 독자의 모니터 글을 실는 것도 생생한 독자의 의견을 참고한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일과성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언론 문제를 연구하는 동아리나 신문방송학과 내 학회, 언론 전공 대학원생 등의 협조를 얻어 바로 전 호(號) 신문 전반에 대한 전문성 이 비평을 받는다면 동대신문의 질도 높이고 기자들의 전문성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성대신문의 경우 교내 언론 동아리와 특약을 맺고 전 호에 대한 종합적 비평을 받아 게재하고 있다.

역사가 길수록 그림자는 길어지는 법이다. 전통이 길어질수록 책임이 커진다는 것을 동대신문 성원들이 이해해주기 바라며 더욱 발전된 동대신문을 기대해 본다.

김진 (realjeany@hanmail.net)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시금치국(1300) 돈육덮밥(1600)
화	오징어무국(1300) 전주비빔밥(1800)
수	계란국(1300) 스파게티/수박(1800)
목	어묵전골(1300) 김치볶음밥(1600)
금	콩나물무국(1300) 잡채덮밥(1800)
토	새알미역국(1300) 햄어채볶음밥(1600)
일	육개장(1300) 오징어덮밥(1600)

(단위:원)

TEL : 22603491·2
(0561)7702058
FAX :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 나무누리 PC
ID:dg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氣란 무엇인가

미지의 세계에 주파수를 맞춘다

기는 우주 공간에 충만되어 있고 전신에 끊임없이 돌고 있는 존재이다. 기에 대한 개념은 원시 사마니즘에서 발원한 것이지만 후에 철학적으로 기의 개념을 가장 잘 정리한 인물은 노자와 장자다. 이들은 기를 우주의 삼리만상을 존재케 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파악하는 기일원론적 관점에서 있었다.

그러나 기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생물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양상인 물질대사, 항상성, 성장, 운동, 자극감수성, 생식, 적응 등을 이해하는 것처럼 '氣'를 이해하는 쉬운 방법은 기의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왜냐하면 기는 무형, 무색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고 다만 감각이나 사물의 각종 변화에 근거하여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의 본성은 활동운화하는 것이며, 기의 활동운화는 운행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하

늘에서는 천문(天文)이 되고, 땅에서는 지리(地理)가 되며 인물에서는 인사(人事)로 하늘과 땅과 인간(天地人)의 기본법칙이 된다.

천문, 지리는 천지자연의 원리이고, 인사는 수신과 치국의 원리로서 인간은 자연의 이러한 원리와 상호 원활한 소통에 의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기는 인간과 자연을 연계시켜주는 매체인 동시에 일체 사물의 생성, 발전, 변화는 물론 인체 생명현상의 근원이 된다.

한의학에서 기는 진단과 치료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락의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기는 경락을 따라 전신을 끊임없이 돌면서 생명의 바탕이 된다.

기가 순조롭게 순환되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의 순환이 막혀서 몸의 균형을 잃게 되면 병이 된다.

이러한 기의 정체는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 특성에 관해서는 많은 사실들이 밝혀져 왔다. 그러나 기는 우리

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적 측면 외에도 기능적 특성, 에너지적 특성(기운), 의식적 특성(정서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기능이 좋다, 나쁘다, 또는 간기능에서의 기는 기능을 의미한다. '월기가 없다' 느니 '기운이 쇠약하다' 느니 '기운이 난다' 는 용어는 기의 에너지적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

기분이 나쁘다, 사회적 분위기, 군의 사기에서의 기는 의식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에서 기의 정체에 대한 이해는 물질적, 기능적, 에너지적, 의식적 특성을 내포한 생명력의 개념으로 그 다양성을 포괄 할 수 있다.

현대의 측정기들에 의해 적외선, 정전기의 증가신호, 미립자의 흐름, 전자파, 자기의 모습으로 포착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하여 일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기는 아니다.

기는 생명이나 우주의 근원적 실체로서 현대물리학의 범위를 초월해 있는 존재들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

한 의학은 기의 명(明)인령(靈)과 기의 능(能)인신(神), 기의 조리(條理)인리(理)와 기의 경험인지각, 기의 순환인 변화의 기능에 의하여 생명현상이 완전하게 발휘된다고 인식한다. 즉 기의 경험으로서 지각이 발휘되어야 기의 조리로서의 장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여 기의 밝음으로서의 영과 기의 능(能)함으로서의 신(神)이 갖추어 질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기의 순환으로서 변화가 제대로 되어 나감으로써 생명활동이 유지될 수 있다.



신 홍 목
한양대 한의학과 교수

손쉽게 기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열거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선 호세실바가 창안한 실바 마인드 컨트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 잠재능력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먼저 척추와 고개는 바로 하고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순서대로 온몸의 긴장을 완전히 푼다.

긴장을 풀겠다는 의지를 유지한채 숫자 2만을 생각한다. 무색무취의 2를 모든 생각으로 자리잡게 한다. 의식이 안정되면 구름이나 바다를 생각하며 정신을 편안하게 한다.

그다음 1일이라는 숫자를 마음속에서 외친다. 이후 열에서 하나까지 천천히 마음속으로 세어본다. '더 깊이' 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세어나간다. 그 후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한다. 산이든 바다든 상관없이 상상의 세계를 마음속의 현실로 만들어 낸다.

바로 여기가 호세실바가 말하는 알파의 세계다. 여기에 들어가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자신이 원하는 문장을 속삭인다. '나는 매일매일 모던하면서 좋아지고 있다' 등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자신에게 속삭여 준다. 이 과정을 마친후 알파상태에서 나올때는 '이제 다섯을 세면 깨어나온다' 하고 나오는 등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속삭인 후 빠져나온다.

또한 뇌호흡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 토코쇼에서 8·9세의 어린아이가 뇌호흡으로 인해 가려진 그림을 알아맞추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7·8세에 기가 통해 약한 생각이 없으면 꾸준히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가 열리지 않더라도 기억력 증진과 노화방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실생활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뇌호흡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깨잡고 좌우로 목돌리기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린다. 숨을 들이쉬면서 고개를 최대한 돌리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같은 방법으로 반대로 행한다.

배꼽깎싸고 브레인 버튼 누르기
쇄골과 흉골이 만나는 부위(가슴 중앙에서 3cm정도 떨어져 있으며 쇄골 바로 밑 뼈가 없는 빈 곳으로 일명 '브레인 버튼')를 찾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누른다. 왼손은 배꼽을 감싼다. 이후 30초에서 1분동안 지그시 누르며 마사지를 해주고 좌우뇌를 끌고루 자극하기위해서 양손을 바꿔가며 누른다.

귀만지기
양손으로 귀를 잡고 당긴다. 귀 상단과 하단을 끌고루 당기는 것을 3회 이상 반복한다.

발바닥 누르기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 왼발이나 오른발을 오른쪽이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두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누른다. 끌고루 누르면서 아픈 곳이 있으면 여러번 눌러 준다.

8자 그리기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몸을 움직여가며 최대한 크게 8자를 그린다. 이때 눈은 손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쳐다본다. 이 동작을 8회 이상 반복하고 팔을 바꿔 다시 반복한다.

이제 안경을 벗고 싶다
현재에는 컴퓨터와 TV가 사람들의 눈을 해치고 있다. 이에 기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본다.

손바닥 요법
티벳요가에서 나온 손바닥요법으로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 눈 위에 올려 놓아서 감싸게 만든다. 외부 자극으로 예민해진 시신경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손이 뜨거울 정도로 강하게 비빈후 손바닥을 눈위에 얹는다. 안구를 눌러서도 안되고, 광대뼈에 손을 기대서도 안된다. 완전히 감싸한 것을 느끼면서 숨을 길게 쉰다. 검은색은 뇌를 가장 효과적으로 휴식하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빛이 보인다면 시신경이 좋지 않다는 증거라고 한다.

마사지
따뜻해질때까지 손을 비빈 후 한 손가락으로 콧마루를 올라가면서 문질러주고, 코끝에서 미간까지 만져준다. 그 이후 미간에서 관자놀이까지 마사지 해주고, 눈썹 아래 만져지는 뼈를 따라 마사지를 해 준다. 이때 주의할 점은 눈동자에 직접적인 자극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나서 광대뼈와 귀 그리고 이마를 마사지 해 준다.

눈 깜박거리기와 초점이동
평소 우리 습관은 근시가 되기 쉽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는 필요이상으로 압박을 받는다. 이때 눈을 깜박거리려는 것은 눈에 수분을 유지하고, 긴장을 풀어 주고, 눈과 그 주위의 혈액순환을 증진시킨다. 또한 먼곳과 가까운 곳을 빨리 움직여서 보는 것은 시력저하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시신을 빨리 움직이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학술부



자기를 스스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풍류도인

왕성하다.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는 등 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그만큼 친숙하게 지내왔다.

동양,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기를 만물의 근본으로 보았으며, 많은 학문이 기철학을 근본으로 성립되었다. 현대과학의 일부에서는 기에 대해 생체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고 있고 기체, 고체, 액체가 아닌 제4의 상태 라고도 한다.

기를 학문적으로 나누고 분류하자면 복잡해지지만 인체내의 기를 가장 간단히 분류하자면 원기(元氣), 정기(精氣), 진기(眞氣)로 나눌 수 있다.

원기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받아 가지고 나온 유한한 에너지이며, 정기는 호흡을 통해 음식물이 산화되면서 나오는 에너지이며, 진기는 정신집중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인데, 단학수련을 할 때 활용하는 에너지가 바로 진기 에너지이다. 진기는 다시 정·기·신 세 가지 에너지로 나눌 수 있으며, 마음에 의해 나타나고 조절되며 마음의 수준에 따라 에너지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

처음 입문한 수련자는 기를 느끼기 위해 지감수련을 통해 손에 기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 손에 있던 정기가 정신집중에 의해 진기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련이 깊어지면 몸안에 있는 유한한 에너지가 아닌 우주공간속의 큰 기운을 활

용할 수 있다.
기는 활용하는 수련자의 마음의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등급을 가지게 되고 기운은 맑고, 어둡고, 맑고, 가볍고, 무겁고, 세고, 약함 등 많은 기운들이 있으나, 가장 이상적인 기운은 조화로운 기운이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기운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람 역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조화스러운 사람이다. 조화스러운 사람은, 개인은 물론 공동

사회단체 속에서도 사람들끼리 친근감 있게 다가설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많이 사는 사회가 보다 살기 좋은 사회이며 조화스러운 분위기가 가득찬 곳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 변화시켜 주길 기다리지 않고 나 스스로 먼저 변화하여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정상인, 즉 풍류도인이며 선인(仙人)이라 부른다.

김도수(경주단학지원장)



기술인이 부인의 병을 기로써 디스리고 있다.

박양우 기자 dg19711437@mail.dongguk.ac.kr



정재형 교수가
권하는 책

자본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학 분야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칼 맑스 지음

인간의 무의식의 상징

인간 내면의 세계에 존재하는 원시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온 욕구가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원형을 주제로 삼았다. 집단무의식의 분석적 사고를 통해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아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 지 깨닫게 해준다.

칼 구스타프 융 지음

한국사 신론



일제에 의해 주입된 식민사관에서 벗어나 온전한 주체로서의 의식을 지닌 한국인의 역사를 통찰했다. 우리의 땅과 우리민족사의 과거·현재·미래를 새로운 관점에서 되돌아 보게 한다.

이기백 지음

상호인정(相互認定)

80년대 초반 나는 대만에서 잠시 머물렀던 일이 있다. 그 때 중국어를 배우려고 어학원을 나갔는데 그곳에서의 교재는 초등학교 교과서였다. 지금은 몇과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가 재미있게 배웠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가 있었다.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여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읽어 보았더니 우리의 것과 다른 몇 구절이 더 있었다. 대부분은 우리의 것과 같은데 마지막 두 구절에 승리한 거북이가 토끼에게 충고하는 말이 있었다. 거북이가 토끼에게 하는 말이 "토끼야 토끼야 다음 경주할 때는 열심히 뛰어라. 이번에 네가 진 것은 다만 낮잠을 잤기 때문이다. 너는 나보다 훨씬 빠른 동물이 아닌가"하고.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바로 "너는 나보다 훨씬 빠른 동물이 아닌가"하는 말이다. 이 말은

곧 토끼의 달음질 능력을 거북이가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것에는 오직 승자의 만세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패자의 태생적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니 상대방을 생각하는 여유와 사실이 얼마나 멋진가.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저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지 모르겠다. 힘겨나 있는 사람은 때때로 힘없는 사람을 짓밟아 버릴려고하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거지 취급하기 일쑤이고,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보처럼 보려고 하니 어찌 거북이의 생각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힘과 돈 그리고 지식도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람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또 영원한

달하나 천강에

승자가 될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거북이의 충고대로 다른 경주에서는 토끼가 이길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은 제 잘난 맛에 산다고들 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기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극단에 이르면 인간관계의 형평과 존중 대신에 이기적인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하고 말 것이다. 새 천년의 역사를 개창해나가야 할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이다. 왜냐하면 이런 풍토가 조성되지 않고는 올바른 민주 시민이 될 수 없고, 또 어느 심리학자의 말처럼 '잠재적 열등감'의 우월적 표현은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파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유광진
사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3회 목멱골 락 페스티벌

“주머니털어 진정한 락을 노래한다”

교내 순수 아마추어 락그룹 모여 ‘교감’ 이뤄

“Rock에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목멱골 락 페스티벌이 지난 20일 서울캠 만해 광장에서 열렸다. 비가 오는 낯선 날씨 때문에 예년에 비해 관객의 수는 적었지만 락을 즐기며 환호하는 모습은 어느 행사와 비교해 뒤지지 않을 만큼 그 열기는 대단했다. 이번 행사는 강종원 밴드, 마구만, 면도날 등 본교에서 락을 매개로 모인 10여 개팀이 공연을 해 눈길을 모았다. 해마다 이 행사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공연을 신청하는 팀이 모두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다. 이번 행사에서도 시간관계상 규모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번 행사는 대중제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해오던 행사를 처음으로 대중제 기간 중에 치러 축제의 흥을 더욱 돋우는 계기가 됐다.

흔히 락이라 하면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생겨난 음악이라는 정의를 하고 뭔가 더욱더 거창한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락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락 페스티벌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한마디로 잘라서 말했다. “락은 락이다.”

하지만 그들은 학교의 지원도 없고 마땅한 연습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소모임을 꾸려왔는데 직업상 락을 하는 사



락그룹 '피어리스턴'의 열정에 관중들이 열광하고 있다

람들도 아니고, 단지 락이 좋아서 모인, 말 그대로 순수 아마추어 락 그룹들이다. 유일하게 '백상'의 팀원들은 정식동아리로 인정돼 그나마 연습장소라도 마련된 상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본교 소모임들은 그들의 주머니털어 연습을 하고 악기를 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들은 락을 애써 정의하려 하지 않고 단지 락이 좋아서, 락이 전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 그

들만의 정의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학교 행사로 치부해버릴 수 있지만 이번 락 페스티벌은 '락'을 공유하며 서로가 교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보고싶었다는 그들의 취지를 느낄 수 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자리, 락이 있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그들은 이런 행사를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연등 & 사연(축원) 공모전 시상식

따뜻한 마음 오고간 감동의 자리

서울캠 여학생부처 주최로 지난 19일 열려

“아빠! 요즘 많이 늙어버리신 아빠의 모습이 느껴져요. 언제나 나의 커다란 아빠, 아직도 그렇지요. 최근 많이 지쳐계신 것 같아요. ... 이제는 아빠의 힘겨운 짐을 조금은 나누어 도와드려야 할텐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정말 아빠의 자랑스러운 말이 될게요. ...”

지난 19일 서울캠 여학생부처(부처장=임둔희·사학)에서 주최한 '연등&사연(축원) 시상식' 장은 그야말로 감동의 장이었다. 이날 시상식장에서 사연(축원)부문 1등상을 받은 이정현(자연과학부)양이 아버지께 쓴 편지는 주위 사람들을 숙연케 했다. 뒤이어 공동으로 1등상을 수상한 조윤영(국문학부2)양도 여동생에게 쓴 편지

를 낭독했으나 미처 다 읽기도 전에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시상식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으로 눈시울을 붉히는 순간이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여학생부처에서 마련한 '연등 만들기&사연(축원) 대공모'전은 그저 연등을 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평소 고마운 분들을 위해 소중히 마음으로 연등을 만들고, 편지를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자는 뜻에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참여한 학생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품을 지켜본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을 받은 것이다.

사연(축원)부문의 2등상은 이복자(중문3)양과 가후현(인문학부2)군이 공동수상했으며, 3등상은 손미성(국문학부2)양에게 돌아갔다. 사연(축원)부문 심사를 맡은 임기중(국문학) 교수는 “이 사연들은 글로 쓴 연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마음의 연등'이다”며 심사평을 밝혔다.

한편 연등부문에서는 장의령(미술4)양이 지혜를 찾아가는 모습의 동자승을 잘 표현한 '우마종등'이 1등상을 수상했다. 또한 2등상은 박주현(경영학부1)양의 '부모사랑등'이, 3등상은 성미현, 이영경(미술3)양의 '소망연꽃등'이 수상했다. 심사를 맡은 법산(신학) 스님은 “출품된 작품들의 독창성과 성숙성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본교의 건학이념을 살리면서 동시에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한 자리였던 '연등&사연(축원) 시상식' 장. 내년에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 동국인이 참여해 더욱더 가슴 훈훈한 자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서울캠 계산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정 정

지난호(제1273호) '장영길 교수가 권하는 책'에서 정(徵-懲), 총(寵-叢), 청(靑-淸)자를 정정합니다.

동대신문 생활광고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칙을 제정합니다

최근 대학내 성폭력 사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본교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젠 대학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성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을 위해 식별을 하고 있는 경주캠 참여학생회장

매체비평

-광고편-

누비라II 광고

“뉴스를 빼앗은 이 광고는 객관적 보도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준다”



누비라II 광고는 국내 처음으로 시도된 뉴스머셜(Newsmercials)라고이다.

“기름은 적게 들면서 힘까지 좋은 차가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즘에 대우의 신차, 누비라II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기 앵커 백지연이나 뉴스인지, 광고인지 구별이 힘들 정도로 지극히 뉴스형식을 빼앗은 대우자동차 누비라II 광고가 화제다. 문화방송과 결별한 뒤 프리랜서를 선언, 토코쇼 진행자·광고모델로 중흥무진 활약하고 있는 백지연은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누비라II를 또박또박 설명한다. 마치 뉴스데스크를 연상시키는 화면에 광고멘트도 ‘장점만을 강조’,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같은 백지연의 신뢰감 있는 목소리는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에 충분하다. 시종일관 ‘누비라II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달고서야 방송광고 심의위원회 심의에 통과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광고는 뉴스형식과 유사하다. 이른바 ‘뉴스머셜(Newsmercials)’, 국내 방송매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 광고는 기존 인쇄매체에서 일반 기사형태로 제품을 홍보하는 기사식 광고의 TV판인 것이다. 이처럼 프로그램을 속 빼앗은 광고는

뉴스형식을 빌린 누비라II 광고라고도 실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를 모델로 한 광고가 있다. 바로 서울방송 ‘카이스트’를 빌려온 한솔PCS의 원샷 018광고, 서울방송 ‘은실이’를 빌려온 LG텔레콤의 019 PCS광고가 그것의 예다. 이들의 공통점은 드라마의 배경은 물론이고 실제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을 광고모델로 기용, 그들의 캐릭터까지 광고에 활용해 더욱더 ‘실질적’으로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광고들은 시청자들에게 친근함을 주면서 동시에 제품의 이미지를 단시일에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뉴스 형식을 빌린 누비라II 광고는 객관적보도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

켜 시청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준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누비라II의 광고는 2차광고, 1차광고는 누비라II가 사이버세계에서 계곡을 질주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그 힘에 의해 주변의 산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광고였다. 컴퓨터그래픽 합성으로 최첨단 분위기를 연출, ‘힘’을 강조한 1차광고에 비해 다소 접착된 분위기의 이번 2차광고는 누비라II의 광고가 지나치게 변신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이번엔 이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신은 다소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부

문예패여, 학생들과 호흡하라

마치 시골장터를 연상시키는 주점이 동악에 장사진을 이루고, 최신 유행가요가 전 동악에 울려 퍼지고, TV 쇼프로그램에서 본 듯한 게임이 불상 앞에서 진행되고...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서울캠에 펼쳐진 대동제. 그리고 내일(25일)부터 사흘간 경주캠에 펼쳐질 대동제. 대학문화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대동제’에 의문이 생긴다. 과연 우리 대학문화는 있는 것일까.

99년 현재, 우리의 대학문화가 무엇이나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자. 하지만 7, 80년대에는 외부와 다른 독특한 대학문화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대학문화가 형성되는데 학내 문예패의 공연문화가 크게 일조해 왔다. 동악에는 여전히 문예패가 존재한다.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나 학생회 출범식, 대동제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의 노래, 풍물, 몸짓은 하지만, 90년대 현재 대학문화가 형성해나간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다수의 학생들이 그들의 공연보다는 최신가요, 최신댄스 등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학내 문예패는 노래패, 풍물패, 몸짓패 등이 있다. 동악의 노래패는 85년 서울캠 중앙노래패 ‘아리랑’을 시작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91년 경주캠 ‘새벽을 여는 사람들’, 97년 서울캠 국교과 ‘쑥쑥’의 결성으로 시작된 몸짓패는 최근들어 산발적으로 생겨났다. 풍물패의 경우 70년대 이후 생겨난 풍물패를 89년 단과대 풍물패 연합으로 조직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예술운동이 아닌 학생운동의 일부로 출발했다. 80년대말 ‘민주’를 열망한 많은 학생들이 모인 대규모집회에는 어김없이 문예패들이 노래로써, 풍물로써, 몸짓으로써 ‘운동’을 했다. 그들이 공

연을 얼마나 잘 하였느냐에 따라 집회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정도였다. 이들의 인기는 집회장에서 뿐만아니라 정기공연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일약의 관객이 몰리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80년대는 갔다. 학생들은 더 이상 ‘민주’를 열망하지 않는다. 사회가 변하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문예패들은 변화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고를 가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문예패들은 대중문화의 모방에 그치거나,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등 악순환을 거듭했고 더불어 변화한 학생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문예패를 비롯한 동아리들은 대학내 공동체 삶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반단위이자 대학을 이루는 기초단위이다. 이들의 활동이 대학문화에 이루는 것은 당연. 대학문화에는 대학문화일꾼들의 학습,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제 학내 문예패들은 학생들과 호흡해야 한다. 학생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학생들의 삶을 반영하고, 학생들 스스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자은소식

학교 안에서

음샘 봄정기공연

본교 서울캠 락그룹 ‘음샘’의 봄정기 공연. “Good ROCK To You!”를 외치는 그들의 락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기회이다. 아마추어 그룹이지만 어느 프로 락그룹 못지않은 열정과 패기가 담긴 공연으로 보는 이들을 열광시킬 듯. 락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초대한다. 오는 26일 늦은 6시에, 서울캠 혁립관 소강당에서.



전쟁과 평화전

전쟁의 20세기. 평화의 21세기. 평화와 공존의 세기를 향하여... 새천년을 맞이하여 전쟁이라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지구적 비극의 막을 내리고 우리의 생명 깊숙히 평화의 불꽃을 점화시킨다. 세계적인 불교단체 SGI 한국불교회 대학부 주최. 오는 27, 28일, 서울캠 불상당에서.



서울캠 ‘단풍연’ (풍물패)

“우리의 가락을 지킨다”



풍물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서울캠 단과대 풍물패 연합 ‘단풍연’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는 단풍연은 동악내 풍물인거리 한자리에 모여 풍물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공동체 문화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렬때 1백여명이 넘는 단풍연 학생들이 모여 그들의 같고 닮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한 오는 28일 불상당에서 ‘관공한마당’을 열어 동악인들의 흥취를 한껏 돋울 예정이다. 단풍연은 매년 ‘가을정기공연’과 ‘겨울전수’를 마련, 우리의 풍물을 올바르게 알고, 익히고, 선보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단풍연이 전체 단과대의 모임이다보니 빼먹거리기 마련. 하지만 합숙 등을 통한 연대강화로 ‘단과대 이기주의’의 벽을 허물어 가고 있다.

단풍연의 박경원 의장은 “과거 80년대에는 민주화의 물결에 따라 풍물패가 운동성을 지녔지만 요즘은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 ‘순수 풍물’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다.”고 전한다.

단풍연에 대한 새내기들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우리의 옛 장단에 관심을 가진 새내기들이 서툰지만 애정어린 모습으로 풍물을 친다. 갈수록 서구화되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대학내 풍물인들의 노력이 어느때보다 값져 보인다. (영)

서울캠 ‘아리랑’ (노래패)

“민중의 목소리 대변한다”



올해로 창립 15년을 맞이하는 서울캠 중앙노래패 아리랑은 현재 25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오는 26일, “우리의 노래를 세상의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연마한 실력을 동국인에게 선보일 예정인 아리랑은 매년 5월과 10월, 정기적인 봄·가을공연을 가진다.

80년대에는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대규모집회에 참가, 순수한 노래보다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치중하였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상대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지고 그 결과 음악적인 면에 비추어 뒤 음악적 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주일에 한번씩은 5·18이나 소외된 민중들 사회의 여러 현상들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아리랑의 이영재(정치전기·3)회장은 “초기에는 이러한 활동들을 애써하게 여기던 새내기들도 차츰 공감해가고 있다”며 “일부에선 학생회 소속도 아닌 평범한 노래동아리가 민중가요를 부르고 사회문제에 관여한다고 해서 운동권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민중의 목소리를 곳곳하게 대변해 노래하는 민중의 아리랑으로 남길 기대한다. (린)

izmir@cakra.dongguk.ac.kr

경주캠 노래패

“노래가 운동의 무기다”



노동해방을 위해, 노래로 삶의 변화를 꿈꾸는 경주캠 노래패가 있다. 올샘(회장=김민경·가교3)은 87년 창설돼 현재 13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경주캠 노래패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연 2회 정기공연이 소리과 공연과 노래패 공연으로 나눠 치러지는 올샘의 행사는 당시의 정세를 중심으로 기획, 사회를 노래한다. 또, 작년부터 대동제 기간중 학생회, 민중문화운동연합회(의정=박수대·생물3 이하 문문연)와 함께 ‘저항문화제’를 진행해오고 있다.

올샘 회장 김민경양은 요즘 들어 민중문화에 대한 신입생들의 관심이 낮아짐을 호소한다. “노래가 운동의 무기가 되고 진정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노래를 한다. 그러나 현재 신입생들은 너무 무관심하며, 이들이 민중문화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계기조차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단 올샘 뿐만아니라 문문연 소속의 ‘그날이 오면’ ‘무쇠나팔’ ‘강철사람’ ‘하늘땅 사람들’ ‘탈패’ ‘해방몸짓’ 등 모든 몸짓패, 풍물패 역시 관심저조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불휘의 회회(행정4)군은 “최근 대학생들이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을 단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모색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대학문화 및 동아리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황성규 기자 dg19711439@mail.dongguk.ac.kr

메아리

아! 5·18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던 이후 많은 전직대통령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신문과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영삼은 ‘독재’와 ‘민주’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으며 노태우는 어느 월간 잡지를 통해 후계자를 잘못 선택한 자신을 섣불리 반성하고 비유하며 국민을 위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단연 앞장선 것은 전두환이 자신의 측근들을 이끌고

다니며 ‘동서화합’ ‘국민화합’ 운운하면서 백주대낮에 동(?)과 서(?)를 제집 드나들 듯이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은 광주에서 전두환과 노태우에 의해 무고한 2천여명의 시민들이 학살된 지 꼭 19주년이 되는 날이다.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던 ‘80년 광주의 오월’ 바로 그날인 것이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일까? 광주민중항쟁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한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너무나 많은 피를 빨아먹었던 흡혈귀들의 악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것도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와 반성도 없이 말이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태가 아주 정당하다는 듯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전두환은 아직도 몇 년 전 자신이 감독에서 했던 정당한(?)-물론 혼자만의 주장이지만-단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어떤이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있어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진실된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는 화해와 용서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독재에 맞서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뜻은 어디갔는지 아직까지 살아남아 스스로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5공의 ‘흡혈귀’들에게 되풀이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은 지금 이 거리를 다닐 자격이 있는가?” 유철주 대학부장 cowso@cakra.dongguk.ac.kr

7기 한총련 출범식 성사 지난 29일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한총련출범식에 참가한 학생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28일 아침 10시경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는 한총련(의장=윤기진·명지대학교총학생회장) 소속 학생들이 속속 모여 들기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본래 연세대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정부측의 원천봉쇄로 인해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겨 진행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이 들어 오자 경찰측은 곧바로 경희대학교를 원천봉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석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총련측은 경희대학교에 들어온 뒤 대오를 정비하고 오후 1시,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앞에서 윤기진 한총련 의장과 이성희 한총련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기자회견에서 출범식의 평화적 개최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8시경 힘다지기 행사에 이어 자부별 결의대회를 갖고 한총련 출범식 개막제가 진행됐다.

29일,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인 한총련은 오전 10시 20분경 강화남 목사를 비롯한 범민련 인사들과 윤기진 한총련 의장, 민권공대위 박해천 집행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2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출범식 장소인 경희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라고 정부를 비난한 뒤 △불심검문 중단 △병력 철수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했다. 또, 윤기진 한총련 의장은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폭력은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해 출범식의 평화적 개최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이어 한총련 특별기구인 학

원자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위)와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 출범식이 있었다.

학자추위 출범식에서 7기 위원장을 맡은 이준학군(경상대 총학생회장)은 "국립대 민영화, 대학원 중심대학, 대학 구조조정, 학부제, 무전공 입학제 등으로 우리의 대학은 황폐하고 미국식 대학으로 바뀌고 있다"고 규탄하며 "민족의 백년지대계를 팔아먹은 김대중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2시경 10기 조통위 출범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동진(부경대학교 총학생회장) 조통위원장은 "민족통일은 이룰 수 없는 꿈의 길 아니다. 그동안 투쟁을 통해 김대중정권과 미제국주의의 본질을 알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7천만 겨레와 함께 민족통일의 결의를 드높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부터 한총련 출범식이 진행되었는데 4천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치러진 이번 출범식에서 윤기진 한총련 의장은 △전대협을 뒤를 잇는 한총련은 정당한 청년학생들의 조직이다 △99년에는 반미자주화투쟁의 본격적 역사를 개척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자 △민중의 가슴에 김대중정권 퇴진, 지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격령을 일으키자 △각계각층과의 공동연대투쟁을 더욱 활성화하자 △거세찬 99년의 향연으로 미국과 김대중정권에 철추를 내리고 식민지 이땅에 자주·민주·통일의 밝은 여명을 거머쥐어 앞당겨 오자는 내용의 출범선언문을 낭독하며 행사를 마쳤다. 사회부

행정조직개편안 이사회 승인

급속한 환경 변화 적응위한 효율적 조직개편 추구

한달간 의견수렴 거친 뒤 보완 ... 빠르면 7월부터 시행

97년 9월부터 본교의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는 7월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인 행정조직개편정안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6편

지난 27일 열린 법인이사회에서 승인된 이번 행정조직개편정안은 기존의 방만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캠퍼스는 교무처, 연구처, 학생처, 사무처, 기획인사처, 대외협력처 등의 6처 7실 14팀으로, 경주캠퍼스는 교무처, 학생처, 사무처, 기획처 등의 4처 7실 8팀으로 개편된다. 특히 경주캠퍼스는 기획처가 신설됨으로써 독립적인 예산의 집행과 인사관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자치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프로젝트별 전담기구로 정보기획단, 불교종합병원 및 제3캠퍼스 건립추진사업단, 교육개혁 추진단, 과학기술진흥기회단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대학환경

의 급격한 변화와 양적 팽창위주의 타율적 경영, 중앙집중과 전통적 계층형태로 다단계·과분화된 비효율적 조직운영의 문제와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리와 자연상승보수체제로 인한 현실인주의 행정조직을 △21세기 대비 능동적인 대응체제의 구축 △질적 내실화를 위한 자율적 경영 역량 강화 △교육, 연구, 학생복지를 최우선하는 행정서비스 △팀제의 도입과 업무과정의 간소화로 효율성 증대 △계획,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한 경쟁력 고양과 능력과 업적 중시의 차별적 보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따라 △정책기획과 경영활동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운영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에 따른 자율적 발전기반 구축 △부총장 및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강화 △대학(원)장 책임 및 권한 강화 △학사지원업무의 기획성 기능은 캠퍼스별 중앙지원체제로 재편

△학술정보 종합전산화 및 일원화된 중앙지원체계 구축 △일부 부속기관의 폐지 △팀제의 도입 등에 주요점이 맞춰졌으며 △업무효율화 추진 및 대학 개혁기반 조성 △탄력적인 인력 운용효과 △효율적인 행정공간 조정 △인력재배치로 인한 예산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

그결과 총장직속으로는 기존의 기획팀과 예산조정과, 교무과 등의 기능을 통합한 기획인사처와 1백주년기념사업본부와 공보실, 구매과와 일부 기능이 통합된 대외협력처가 신설돼 각각 장기적인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위한 일괄된 체계를 갖출 수 있고 또한 대외업무가 일원화되면서 발전기금의 모금과 학교의 지속적 인흥보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서울·경주 캠퍼스의 나머지 부처는 부총장 직속으로 개편되면서 부총장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됐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팀제와 연봉제, 기관 업적평가제의 도입으로 보인다. 인사반영에 있어 기존에 관행처럼 굳어져왔던 연공서열을 파괴, 능력과 경쟁위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학내 부처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후속보완작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들은 학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경주캠퍼스 신임 부총장에 최규철 교수 임명



최규철 부총장

부총장에 이어 새로 부임하는 신임 최부총장은 오는 6월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경주 캠퍼스 부총장에 최규철(사회체육학) 교수가 임명됐다. 전임 김갑주 부총장에 이어 새로 부임하는 신임 최부총장은 오는 6월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야구부 3년만에 대학무대 제패 춘계리그 결승서 흥익대 제압

96년 이후 3년만에 본교 야구부(감독=한대화)가 전국대학춘계리그에서 우승, 운동장을 찾은 동국인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지난 28일 흥익대를 상대로 결승전에 일한 본교의 타선은 1회초부터 불을 뿜기 시작했다. 클린업 트리오프로 나선 3번 박한이(경영3), 4번 정원석(체육4), 5번 강구대(법2)의 연속 안타로 3점을 선취, 끝까지 홈런을 보인 박한이는 5회초, 밀어내기 볼넷으로 2점을 보태 5대 0으로 달아났

다. 이어 6회초, 다시 볼넷과 박한이의 기습번트로 2점을 뺏고 이어 4번 정원석이 3점홈런을 날려 11대0으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하지만 선발 윤호석(경영2)의 구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구원 투수로 나선 3명의 투수도 이를 막지 못해 한꺼번에 5점을 내주며 투수력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시 위기를 맞은 9회말, 상대 팀 윤현식의 홈런과 이어진 안타로 2점을 내주었으나 서승화(법

2) 투수가 1사만 투상황에서 침착함을 발휘, 나머지 2명의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처리해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결국, 본교는 12대8로 승리, 전국대학춘계리그 우승컵을 안게 됐다.

이번 대회 우승의 주역은 다름 아닌 한대화(체육83졸) 감독, 우승후, "앞으로 동대를 최정상 야구팀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로 우승 소감을



대회 우승후 선수들이 한대화감독을 행개례하고 있다.

대신한 그는 본교 야구부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80년대 초 본교 야구부의 중심타자로 팀을 이끌었으며 프로출신 대학감독 1호이기도 하다. 한편 정원석 선수는 최우수선수상, 최다홈런상, 타점상 등 무려 3개부문에서 상을 휩쓸었다.

a“오월, 젊은 만해를 꿈꾼다”

지난 29일 본사 주최 백일장 열려

본사 주최 제37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가 지난 29일 종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백일장은 5월 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1천5백여명이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치

뤄진 예선에서 입상한 고교생 약 3백50여명이 참가해 시, 소설, 수필 부문에서 실력을 겨뤘다. 이날 심사위원으로는 △시=신경림, 문정희, 홍신선 △소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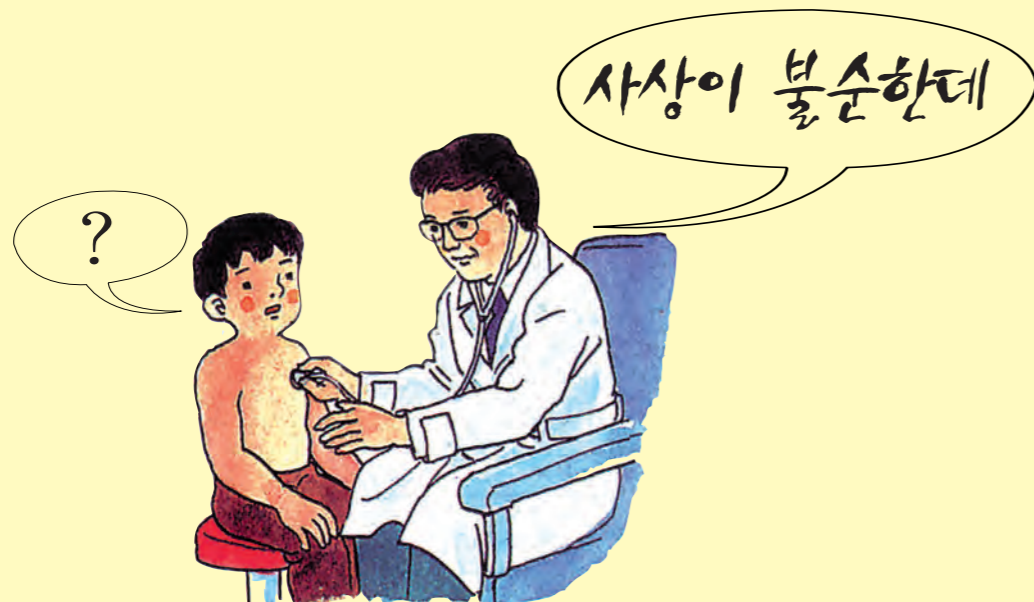
주영, 한용환, 이원규 △수필=홍기삼, 정재봉, 양영진 교수가 맡았다.

심사결과 시부문에서는 염광여자고등학교 2학년 최설희, 소설부문에서 대전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소영, 수필부문에서 가락고등학교 3학년 강예진양이 각각 장원을 차지했다.

알림

이번 제1275호가 99학년도 1학기 종강호입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음 신문은 오는 8월 30일자로 발행합니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사상이 불순한데

지금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기준으로 볼때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 범제로 국가보안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학생과 노동자등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적극 활용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싹까지 뽑아 버리려는 국가보안법 이젠 사양합니다.

동대신문사



V I E W F I N D E R D O N G G U K

공부는 즐거워 1학기 종강이 코앞에 다가왔다. 서서히 기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각자의 진지함 속에서 연인과의 통화는 즐거운 것일까? 촬영= 송광수 동문

지면안내

본사주최 백일장 당선작 게재 7~9면

본사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는 고교생 문학콩쿠르의 당선작을 알아보고 심사평도 들어본다.

국가보안법대토론회 지상중계 4면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하여 6면

신나는 여름, 여행을 떠나자 11면

보리소

크게 한 번 죽어라(大死一番)!

정성본(불교대 불교학부)

알렉산드르 듀머의 '몬테크리스트 백작' 마지막 부근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이 세상에는 행복도 있다. 단지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상태와 다른 상태와의 비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지극히 크나큰 불행은 경험한 사람만이 지극히 커다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막시미리안씨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번쯤 죽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나와 남을 비교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행복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신의 존재나 명예나 부귀 등을 몽땅 털어버리고 진정한 자기본래의 모습으로 삶의 의미를 자각해야 한다.

또한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이 한번 크게 죽은 뒤에야 자신의 참된 존재와 삶의 의미를 철저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선에서는 대사일번(大死一番)이라고 한다. 종교적인 진리는 육체적인 죽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아의식을 모두 없애 버린 그 무아(無我)의 경지에서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진정한 수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의식을 잊어 버리고 어려운 환경과 난관을 극복해야 자기 향상의 발전이 있는 것이다.

황백선사는 "반뇌를 떨쳐버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 잡념을 한데 묶어 한바탕 씨름해 보라. 뼈골에 사무치는 차디찬 추위를 한차례 겪지 않고선 어찌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맛 볼 수 있겠는가?"라고 읊고 있다. 우리들이 주어진 자신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매사를 극복하는데 자기 향상과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는 법이다. 우리 인간 세계에 대소사를 막론하고 어떤일을 완수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돌파해야 한다. 안일함과 내재는 자기 과멸이며 인류 발전의 적이다. 우리들이 절대적이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보람찬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잊고, 지금 여기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자존심과 지위와 야만과 권위를 몽땅 떨쳐 버리고 지금 여기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진실로 행복하고 충만된 자신의 삶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임석대동제, “다채로운 행사 치러져”

여성·저항 문화제 ... 학생참여 부족, 아쉬움

지난 25일부터 4일간 교내 일대에서 치러진 99임석대동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진 한마당이었던 점에 그 출발부터가 예년의 온갖 대동제 풍속도와 달랐다. 그 의의가 있었다.

현대사회의 모순과 여성의 차별적이고 성적폭행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에 반해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씩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25일 막을 올린 99저항문화제의 경우 이번 대동제의 기치에 어울린 문화공연이었다. 또한 이번 대동제는 본교 락그룹인 바리달 공연과 함께 부산대의 해모스, 영남대의 예코스 등의 전국 대학단위의 락페스티벌은 젊음의 열기를 한 곳으로 모았

다. 특히 본교 사물놀이 동아리인 탈패를 비롯해 경주대의 두렁쇠, 위덕대의 하늘의소리 등의 율리 사물놀이, 차산농악 공연은 구경나온 지역주민들과 일체감을 갖게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밖에도 전형적인 대동제 마당인 맥주빨리 마시기, 동국 최강의 커피, 게임경진대회 등은 대학내 소외돼 가는 대동제문화에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몫을 했다.

이처럼 99임석대동제가 과거의 대동제와는 뚜렷한 성격의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했다.

그러나 축제기간중에 대운동장 및 주차 지정장소를 제외하고는 교내일대에 차량 진입이 통제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주차장리를 활보하는 차량과 교내 중간중간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많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한 축제기간내내 언제나 녹아원에서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락공연으로 인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피해는 물론 기타 강의실에서 수업받는 학생들조차 불편을 겪기도 했다. 축제와 관련해 줄임말을 앞둔 상경대 한 학생은 “밤이면 주차·분식거리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빼곡히 차오며, 시설을 이용후의 비위생적인 뒷처리문제도 예년에 비해 덜 하진 않다”며 “결국은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채워지는 축제라는 것을 느꼈다”고 전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번 대동제는 소외된 계층과 함께 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성·저항 문화제 등의 마당은 정작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이삼십(불교4)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색깔이 뚜렷한 비주류 문화제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힌 것처럼 16대 총학생회



지난 대동제 기간 경주 포항지역 대학연합 풍물패의 공연과 도자기 빚기 등 다양한 행사가 교내에서 치러졌다. 사진은 이에 동참하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모습.

의 한판잔치 가 대동제에 참여한 구성원들과 얼마만큼의 하나됨이 있었는지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총대, 오는 3일 정기총회 개최

회칙, 학생회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 후 개정돼야

총대의원회(의장=이상혜·회기4 이하 총대)는 다음달 3일 오후 5시 30분 도서관 3층 교육매체실에서 대의원들 대상으로 정기총회를 가진다.

안건은 △99년도 1/4분기 감사발표 △학생 회칙개정 △단체 및 자치기구 예산안 승인권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혜 의장은 “대의원 소집을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취해놓은 상태이나 정족수 미달 사태가 발생할때 임시총회 형태로 안전 보고만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논의할 내용을 살펴보면 △제 1장 총칙 제 8조-(대학발전협의회)개혁의 민주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해 본 회의 각 자치기구는 학교 당국과 학생 자치활동, 학생권익, 학사일정의 효율적 조정, 회의의 징계,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관련된 학칙개정, 기타 본 회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협조, 조정할 수 있다.

△제 4장 중앙운영위 제 29조-10. 대의원회의 결의 사항 중 의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단 재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 9장 단과대 대의원회제48조(업무 및 권한)-3.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권 등이다.

이와 같은 회칙 개정안을 살펴 보았을 때 이는 중운위 석상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총대의 정기총회를 통한 회칙개정이 학생회 내부의 중요사안인 만큼 논의없이 그냥 통과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 경진대회 결과 발표

정보관리처(처장=임재걸·컴퓨터학)는 지난 28일 제2회 동국사랑 홈페이지 경진 대회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개인부분과 단체부분으로 나눠 치러진 이번 대회의 시상내역을 살펴보면 개인부분(14명 응모) △금상-하달봉(의학과)교수 △은상-김상복(행정학)교수 △은상-박경일(사회복지학)교수, 김기원(병리학)교수, 고소미(컴퓨터학과 야간)교수, 이도환(경제4), 이범길(경상학부2) 등이며 단체부분(13팀 응모)

은 △금상-관광경영학과 △은상-DKIS △장려상-안전공학과, 소리창고, 정보통신공학부, 경제학과, 시스템 분석Lab 등이다.

심사위원은 임재걸 처장의 3명이었으며, 심사기준은 독창성, 내용, 디자인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대회와 관련해 정보관리처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홈페이지 내용과 기술이 향상되었으며 다음 대회에도 더 많은 응모를 바란다”고 전했다.

야총 커피자판기 저가운영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백석호·정보산업3)는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휘저자판기 판매관 3층에서 커피를 저가로 판매한다. 시험기간중 야간강좌 학생들의 복지차원에서 실시될 커피자판기 판매기는 10월만 투입하면 작동 가능하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했다.

이와 관련해 백석호 회장은 “저가의 커피자판기 판매기 효용이 좋을 경우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달 23일, 고시장학생 선발

고시지도위원회(위원장=김선정·법학)는 99학년도 2학기 고시장학생 선발고사를 다음달 23일 오전 9시 30분 B(진흥관)302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본교 재학생 또는 99학년도 2학기 북학예정자로 다음달 10일까지 법정대교과과에서 원서를 접수 받는다.

선발고사의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1학년=사법시험반(외국어, 민중, 헌법) △2학년=사법시험반(외국어, 민중, 헌법) △3학년=사법시험반(외국어, 민중, 헌법) △4학년=사법시험반(3학년 과목, 세법, 경영학) 등이며, 고등고시 전 9시 30분 B(진흥관)302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본교 재학생 또는 99학년도 2학기 북학예정자로 다음달 10일까지 법정대교과과에서 원서를 접수 받는다.

외국어교육원 다양한 시청각 교재 구입

외국어교육원(원장=정내원·영어영문학)은 “지난 5월초부터 구입한 시청각교재(오디오 테이프 52개, 책 9권, 비디오 테이프 44개)를 시청각도서에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청각 도서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며, 2학기부터 학생증을 지참한 학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새롭게 구입된 시청각 교재 테이프를 살펴 보면 △The Realist novel: The Language of Realism 오디오

선도청소년 교내 견학

장학과(과장=안석호)는 지난 28일 본교에서는 처음으로 경주 지방검찰청과 연계해 청소년 선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견학을 실시했다. 견학한 대학생들을 접하고, 선도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이날 행사에는 약 1백여명의 선도학생들이 참여했으며, 교내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로 진행됐다.

또한, 선도 학생들은 도서관 3층 교육매체실에서 학교 홍보 비디오를 시청하고, 대동제 행사 관람 및 학내 견학을 하는 등 학교에서 마련한 일정에 참여했다.

세계화 장학생 영국연수

학술연구부(부장=고창철·철학)는 금년도 세계화 장학생 선발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번 합격자 지난 20일과 28일 치른 토익시험과 면접시험결과로 선발하였으며, 선발기준 입학수능성적(상위20%이상 자격가능), 토익성적, 면접시험이 각각 50%·40%·10%씩 적용되었다. 또,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7월 10일(예정)부터 2주간 영국 엑시터대학으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은 모두 98학번으로 △외어-내세정 △한외어-김영호, 박종용, 노진주, 김규남, 이은수, 성동호, 이희승, 류현철, 방철환, 안해준, 김아림, 천진홍, 김용환, 석명진 등이다.

초청강연

사회과학원 안보연구부에서는 '대북포용정책과 금강산 관광사업 :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1. 일시: 99년 6월 4일(금) 13:30~18:00
2. 장소: 90주년 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
3. 주최: 사회과학원 안보연구부
4. 후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서울캠 사회과학원

학생생활상담센터 심포지움

- 주제 및 발표자 -

제1주제: 대학생의 음주문화
발표자: 조성기(항공수산상선분부 연구위원·알콜문제연구소 소장)

제2주제: 대학생의 음주문화
발표자: 박정환(헬스비전2 건강교육개발원 원장)

제3주제: 대학생의 성의식과 문화
발표자: 현혜순(한국여성상담센터 소장)

1. 일시: 99년 6월 1일(화) 오후 2시~5시
2. 장소: 학림관(사범대학) 소강당
3. 주최: 학생생활상담센터

서울캠 학생생활상담센터

금강생활관생 선발

1.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간: 99. 6. 7(월)~6. 9(수) 17:00까지
나. 장소: 금강생활관 사무실
2. 자격: 재학생인 학생으로 99학년도 제 2학기에 계속 학업을 이수하고자하는 학생(단, 복학대상자는 8월 중순 이후 복학신청 후, 접수 및 선발예정)
3. 선발기준
가. 불교신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나. 성적 및 품행 등을 참고하여 선발한다.
다. 경주, 영천, 포항, 울산 등 거거리 거주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라. 기타 관생 선발 규정에 의한다.
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본관 소정양식) 1부.
나. 서약서(본관 소정양식) 1부.
다. 불교도 신행증 또는 수계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라. 전학년 성적증명서(복학대상자에 한함) 1부.
5. 선발자 통보: 하계방학 중 가정으로 우편통보(불합격자 포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생활관 사무실(☎779-0104~6)로 문의할 것

경주캠 금강생활관

99 예비군 교육 훈련 소집

1. 교육대상
가) 기본훈련 8시간: 전역 2~7년차 예비군(92~97 전역차)
나) 소집점점 4시간: 전역 1년차 예비군(98년도 전역차)
2. 교육대상 제외자
가) 99년도 전역자
나) 91. 12. 31일 이전 전역자(전역 8년차 이상 예비군)
다) 사무직(조교 포함) 및 기능직 예비군
3. 교육일정 / 장소
가) 기본훈련 및 소집점점 대상자(전역 1~7년차) / 동천 훈련장 (1대대)

6. 21(월)	6. 22(수)	6. 24(목)	6. 25(금)
불교대 인문대 법(주, 아)	자연과학부 생물, 화학 생화학 조경, 수교 현대대, 외대 대학원, 교수	전산정보학부(주, 아) 통계정보 전자계산(주, 아)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주, 아) 전산통계, 법정학부, 행정 국제관계, 경상학부(주, 아) 정보산업(주, 아), 관광경영(주, 아) 호텔경영(주, 아)	인건, 경제 국제통상 경영(주, 아) 회계 국제경제

4. 복장: 예비군복(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편, 허리띠)
5. 휴대품: 신분증지갑(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6. 유의사항
가) 경주시청 통령청사에서 산업도로 건너 500m지점(석탈해항릉 뒷편) 나) 08:00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 불가(위병소 통제) 다) 예비군복중 1가지만 미착용해도 입소불가 라) 해당일자에 교육을 참석 못할시 예비군 연대본부에 사전 신고하여 일정 조정
*예비군 연대 본부 연락처: ☎770-2071~2

경주캠 예비군연대

외국어특강

1. 프로그램

종합영어				
요일	월	화	수	목
오전반	영어회화 (정원18명)		독 해	
TEPS L/C				
오후반	영어회화 (정원18명)		독 해	
영어회화 (정원18명)	TEPS L/C			
2. 강의료: 종합영어 ₩30,000
* 개별수강가능 → 말하기 듣기 ₩20,000 → 독 해 ₩20,000 → TEPS L/C ₩10,000
3. 강의기간: 99. 6. 7 ~ 99. 7. 2(4주)
4. 강의시간: 오전 8:00 ~ 8:50 (50분수업) 오후 5:10 ~ 6:00 (50분수업)
5. 강사: 본교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 교수 및 외국인 권위자
6. 강의대상: 학생 (일반인도 가능)
7. 접수기간: 99. 5. 24 (월) ~ 99. 6. 4 (금)
8. 접수 및 문의처: 원호관 3층 시청각 도서실 (☎770-2468)

경주캠 외국어교육원

“국보법 철폐하고 사상의 자유 보장하라”

서울캠 총학 주최로 지난 25일 국가보안법 대토론회 열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서울캠 학림관 소강당에서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 이하 총학) 주최로 ‘국가보안법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백여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강정구(사회학) 교수의 사회로 △민중주의 법학연구회 최정학 연구원의 ‘국가보안법의 법적문제’ △인권운동시상방 박래군 사무국장의 ‘국가보안법과 인권문제’ 발표에 이어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의 김이경씨의 피해사례 △정연옥 전국연합 정책부장의 ‘국가보안법과 통일문제’ △성남현 서울캠 부총학생회장의 ‘국가보안법과 한총련의 이적 규정문제’ 등에 대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적으로 평가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강정구 국가보안법은 가장 반역사적, 반민주적으로 출발했다. 1949년 12월 제4·3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주둔한 7연대에 소속된 군인들이 인민들을 살육하는 학살 만행에 반기를 들고 여순 군인항쟁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이승만 정권은 일체의 좌익 사회단체와 개인을 말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그해에만 12만명의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의 우리 남한 민중들의 역사 지향은 사회주의가 압도적이었다. 미군정정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민중들이 전체의 70%를 넘었고, 공산주의가 7%를 넘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 지향의 이념을 불법으로 간주한 국가보안법은 반민주적인 것이고 이것이 벌써 50년이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총학은 국민회의와 법무부의 실무자가 토론회참가를 거부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서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발전적인 여론 수렴의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라는 정권의 모습에 반하는 정권의 반민주적 모습이 계속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정권을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7기 한총련 출범식 평화적 개최’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성남현(응생4) 서울캠 부총학생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과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뜻을 모으는 것을 긍정

최정학 국가보안법은 법적문제의 네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제정배경과 위헌성, 헌법의 해석으로 볼 때의 문제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필요성문제이다. 먼저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해방 이후 혼란한 정국을 강권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실정형법보다 5년이나 먼저 제정되었고 위헌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인 통일의 원칙과 의 모순 문제, 사상의 자유를 침해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사회자인 강정구 교수가 국보법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헌법해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적용의 문제가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형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박래군 사상의 자유는 주류사상을 만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는 소수의 사상도 허용하는 것이다. 특정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거나 차별받거나 자신의 사상을 고백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전제와 관련해 볼 때 국가보안법은 우리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권력의 횡포에 저항할 수 없는 두려움을 남기게끔 했고 반공사상의 횡포에 의해 이를 비판하는 사상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김이경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이 터지기 전 울산의 상

황은 노동자 대투쟁이 예견되던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로 ‘영남위원회’ 사건을 조작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상의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실 전혀 국가보안법과는 상관이 없으며 따라서 죄도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이 땅에 양심은 없다. 우리 모두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연옥 국가보안법은 분단 때문에 생겼다. ‘통일’이라는 것이 북한과 연결되는 이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작게는 서명운동과 선언운동 비롯해서 실질적인 국민사업을 펼치기 위해 전국 연합에서는 오는 6월 25일을 전후해 국민적 투쟁봉투를 고민하고 있

다. 또한 8월의 통일투쟁이후에는 기층에서만이 아닌 모든 대중들이 공감하는 철폐투쟁을 전개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성남현 한총련은 전국의 백만학생들의 자주적 조직체임에도 정부당국에서는 ‘이적단체’라는 국가보안법의 허울을 씌워 탄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홍익대에서 열린 예정이던 대의원대회를 막았으며 대의원들의 수배, 구속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총련은 정권의 국가보안법 탄압의 가장 큰 피해자며 이적단체가 아닌 국민들을 위하는 위민단체이다. 한총련의 이적규정은 철폐되어야 하며, 이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통일의 적인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일방통행

“학생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과는 입학하고 지금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모집단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27일 정보문화관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식당문제 해결과 학부제 확대 반대’를 위한 일꾼 전진대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부제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우리 나라의 대학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학과와 학과의 벽을 넘기 힘들며 적성과 소질보다는 입학시험성적에 의해 학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과나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내용으로 각 대학에 학부제 시행 권유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대학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그 수요에 맞게 인원을 조절해야 한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부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개방압력과 대학의 생존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철저한 준비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열린 토론이 오고가고 학생들은 학교측에 학부제시행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친다.

본교는 96년도부터 학부제를 시행해 매년 학제개편의 대상이 돼 몸살을 앓고 있는 학과가 있는가 하면 모집단위가 매년 바뀌어 오다가 내년에는 다시 원상대로 복구하는 학과도 있다. 아무리 학부제가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며 ‘졸속 시행의 모습으로 비춰져 학생들에게 불신과 반발을 살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난 주 문과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명진관 앞에서 학부제 확대를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벌였다. 교학과는 학부제 관련 공문의 접수 거부했고, 학과장 면담자리에서는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 뿐이다. 현재 진행중인 학사구조조정이 학과교수님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여론수렴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는 학교측은 과연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면 “그들이 왜 반대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는 의구심이 든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99년 그리고 학생운동

실천하는 다수에 의한 운동으로

불교대학인 본교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다. 97년 전두환 전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범 불교인 1백만명의 서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알았을 때이다. 불교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쯤은 누구나 안다. 그리고 미물이라도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불교에 관한 기초 상식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광주의 수천명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억압통치를 통해서 죽게 만든 사람이라면 용서받을 만한 사람인가? 즉시 부끄러웠다.

이런 부끄러웠던 기억에서부터 99년의 학생운동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97년의 부끄러움이 나오는 상관없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나는 97년의 경험에서, 우리의 방관-불교인이 중심이 되어 전두환 석방을 요구한 서명운동에 대한-의 대가가 50년 만에 교체된 정권이 지긋지긋한 5·6공 정권들과의 정치적 야합을 보게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진상조사도 제대로 안되고 적당히 용서해 줬으니까. 생각해 보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방관하고 있으며 정치는 학생운동이든 똑같은 것으로 치부하고 독아침청하겠다고 하지는 않은지.

현재 학생운동의 위기는 두 가지 것에 기인하고 있다. 하나는 ‘자기반성과 부정성을 놓아버린 소위 운동권의 관성’과 많은 학생들은 정권과 언론에 의해서 붙여진 ‘폭력세력, 친북세력’의 딱지를 그대로 운동권에 붙이고 학생운동이 운동권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침반은 정방향을 가리키면서도 항상 떨리고 있다. 나침반의 떨림이 멈춘다면 그것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신영복 선생님의 말은 현재의 학생운동에 큰 교훈을 준다. 한 곳을 가리키고 멈춰버린 나침반의 바늘처럼 올바른 것, 자신의 모습에 대해 더 이상의 부정과 되돌아봄을 게을리 한다면 학생운동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본질적으로 학생운동에 있어서 단결과 혁신은 이러한 자세의 문제인 것이고 여기에 학생운동의 밝은 전망이 있을 수 있다.

현재도 한총련의 장 선거문제를 둘러싼 문제를 드러내듯이 어려움은 있지만, 99년 학생운동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활동에 따라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정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95년 이후 분열된 통일운동은 전국연합의 자기비판을 계기로 단결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 사회적 위기의 근본인 미국에 의한 질서 재편과 정권의 미국 추종이 -논란의 여지는 있었지만 한·미·일 공조를 통한 이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 경제적 문제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IMF와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전적으로 반영되어 한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모습 등을 과거로

‘변화의 물결속에서 전진하는 주체로’

—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자들의 남북축구의 실현 등의 민족대단결의식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 99년의 정세전망은 학생운동을 비롯한 운동세력의 전진하는 정세로 발전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성에 기초한 역사가관이 필요하다.

지금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한다.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거나 점점 안좋아진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무엇이든 변화에 의해 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변화의 중심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의 사회는 발전 또는 퇴보의 길을 걸을 것이다. 나에게만은 예외일 것 같던 실험이, 우리집만은 예외일 것 같던 경제적 어려움이 나와 우리가정은 비켜갔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대학시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운동권 몇몇 사람이 아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실천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와 우리 삶의 질은 발전하고 나아질 것이다. 구준서
98년 서울캠 총학생회장

이대현 양을 만나

“노인들의 작은 희망이 되고 싶어요”

“항상 운동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외롭게 지내는 게 마음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온 이는 1년 넘게 꾸준히 노인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해 온 이대현(북한4)양이다. 4학년으로서 취업준비, 학과공부 등으로 분주함에도 대현양은 지난해 5월 본교 ‘참사랑 봉사단’의 불우이웃돕기 봉사팀에 들어간 후, 지난 1월부터는 정기적으로 ‘연꽃마을 노인주간 보호센터’에서 봉사해 오고 있다.

연꽃마을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평균 연령층이 80대대 대부분 생활보조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실

체·정신적 장애까지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근지역에 무허가·재개발 추진 집들이 밀집돼 있어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면 그나마 이곳을 이용하기 힘들게 현실이다.

“그분들을 볼때면 들어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워져요”라고 눈시울을 붉히는 대현은 이곳에서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색칠하기 등의 ‘원예치료’나 노인들이 옛날 기억을

떠올려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회상치료’를 통해 노인들의 치매와 중풍 예방을 돕기도 한다.

리나라 노인복지에 90년대 들어 매년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99년 현재 0.24%에 불과해 대만의 3%, 일본의 17%와 비교할 때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97년부터 인복지예산의 절대액이 증가되었지만 이는 노령수당의 인상과 경로연금의 실시로 인한 것이었다.



영이 증가되었지만 이는 노령수당의 인상과 경로연금의 실시로 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좀더 많은 노인들이 사회 복지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면 해요”라고 수줍게 말하는 모습에서 희망이 보이는 듯 하다.

그녀는 작년 9월 본교가 주최한 중구내 독거노인 ‘사랑의 나눔잔치’ 행사에 참가했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어 안타까웠다”고 말한다.

올해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하고 이미 97년 전체인구 대비 노령인구가 6.3%를 초과해 오는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서 “8시까지 연꽃마을에 가야 하거든요”라고 말하며 미안한 표정을 짓는 그녀의 모습은 제2, 제3의 대현양을 기대해 보게 한다. <연>

nina@cakra.dongguk.ac.kr

코리안 드림은 ‘악몽’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노동자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해마다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을 밟고 있다. 값싼 노동 인력을 중동 등 해외에 수출했었던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상대적 고임금시대를 겪고, 이제는 산업기술 연수생 등의 이름으로 오히려 외국의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8일 찾은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95년 7월에 설립된 22개 단체를 산하에 둔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중 하나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겪게 되는 각종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곳이다.

최근에 가슴아픈 사연이 있다며 자료를 꺼내시는 신완규씨는 미얀마의 Aung, Min, Win씨들 3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했다. 이들은 지난 97년부터 경기도 안산의 시화공단에서 있는 영세업체에서 하

루 10시간 이상씩 일하면서 2년여 동안 일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일했던 기업의 사장이 고의 부도를 내고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2천만원에 상당하는 땅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 그들은 빈 몸으로 청춘을 바친 이곳 한국에서 출국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다.

신완규씨는 “이외에도 일을 하다 보면 가슴아픈 사연들이 많이 접수된다”며 “특히, 사망상담, 의료상담 등을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해결하기가 수월치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91년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발급’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시행됐던 산업기술 연수생제도도 그간 무단 이탈, 불법 취업의 증가, 관리상의 문제점,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대처 미흡 등 국제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더군다나 법무부가 “내국인

실업난 해소와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이 불가피하다”며 이민담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기간으로 정한 것 등은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산업수요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문제의 근본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흔히 3D업종이라 일컬어지는 영세사업장에서 노동력 부족문제가 심각한데, 이 자리를 대부분 외국노동력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마저 70%가량이 불법체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임금을 체불당하고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일부 고용주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경제연합으로 발돋움하는 유럽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

회적, 문화적 환경과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는 UN국제 인권기준과 국제 노동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이관주 사무국장은 대안으로 “일제시대나 유효했던 민족주의가 지금은 단일 민족 콤플렉스로 자리잡고 있기에 이를 극복하는 길이 있는 이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해 뒤 “우리나라 노동조합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슬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단위 노동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그들을 경쟁상대로 생각해, 이런 노동자들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재훈 기자
jaehun79@cakra.dongguk.ac.kr

대학교육개혁의 나아갈 방향

사설

학문성격·사회수요 고려한 교과과정 운영해야

대학의 교육개혁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학부제 또는 학생 모집단위의 확대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흐름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부정하기 어렵다. 머지않아 도래할 지식기반사회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화 또는 개방화의 추세가 교육부에서도 경쟁 원리의 도입과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추진되어온 대학 교육개혁의 방향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본교도 그러한 방향에서 학생 모집단위의 영역화, 전공필수의 폐지와 전공최저

이수학점의 하향조정, 복수전공의 활성화, 전과(부)의 대폭적인 허용 등이 이루어졌다. 학생의 선택권은 과거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확대된 셈이다. 그 결과 공급자 우위의 여건 하에 안주하여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둘러싼 경쟁이 별로 없었던 기존 대학교육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대학교육의 질이 가시적으로 높아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첫째, 대학에 도입된 경쟁이 무엇을 둘러싼 경쟁인가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쟁은 예컨대 교수의 강의나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 기대되고 있지만 그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쉽지 않고, 학생들이 그것을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대학사회의 경쟁이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왜곡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고, 대신 인기가학과 비인가학과 간의 무의미한 경쟁이 교육개혁을 통해 도입하고자 한 경쟁원리인 듯이 보이게 되었다.

둘째, 학생 선택권이 약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소위 인기가학과와 학생 편중과 기초학문의 고사가 우려되고 있으며, 전공보다는 학점 따기가 용이한 교양선택 과목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그것이다. 이것은 지도교수제의 유명무실화로 학생들의 보다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전공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과 치밀한 학생지도가 뒤따라지 못한 데에 일인자 있다.

셋째, 근원적으로는 수요자 중심 교육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즉 학생만이 교육 수요자가 아니고 그 배후에 사회라는 중국적인 수요자가 있으며, 학생선택권 확대에 못지 않게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 전공은 학문의 성격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어떠한 자질의 인재를 배출할 것인가에 관한 교육목표를 명확히 제시하



김 나년 경성대 경제학과 교수

고 그러한 방향으로 교과과정의 내용과 운영을 충실화하는 데에 앞으로 교육개혁의 역점이 두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과정의 운영방식을 모든

전공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전공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기초학문의 습득을 요구하고, 편이성만을 쫓기 쉬운 학생 선택권의 악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경쟁의 원리를 올바르게 세운다든지 사회수요에 맞게 교과과정을 충실화하는 과정은 결코 단기간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당국의 과감한 투자가 불가결한 것은 물론이지만 교직원과 학생들도 지금까지 인주해 왔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인 교육개혁은 이제 시작할 때 불과하다고 하겠다.

점점 높아가는 창업 열기

아이디어 있어도 경영 능력은 부족

대학의 전문인력 활용 지원 필요

취직 걱정을 할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직접 창업을 승부를 걸겠다는 대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바로 벤처 창업이다. 이들은 현재 창업 전선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적은 자본과 기술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분야의 창업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창업 열기를 반영하듯 지난 7일 정보통신부 주최로 한양대에서 열린 벤처창업경진대회 설명회 자리는 안철수 컴퓨터비즈니스연구소장의 창업 성공담을 듣기 위해 모인 대학생들로 반가워할 수 없게 들어섰으며, 또한 열띤 토론은 대학을 다니며 벤처기업을 운영한 강수현(25, 서강대 경영학과) 씨가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해 벤처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갖고 있다해도 그것을 상품화 시키고 또 그 상품의 판매전략을 세우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 사장'들에게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

물론, 창업을 지망하는 이들에게도 창업 강좌나 설명회를 찾아다니고 경험자들에게 되도록 많은 조언을 구하는 등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아직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창업 불과 맞물려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벤처 창업을 준비하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들을 돕는 대학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벤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것도 한 이유이지만 대학에는 경영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와 맞물려 정부에서는 대학이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본교 서울캠퍼스의 경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4억 1천 5백만원의 지원 받도록 결정돼 현재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추진중이다. 창업보육센터는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을 일정한 입주시켜 그 기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다. 서울캠퍼스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내년부터 운영될 계획이며, 사업계획서 심사등을 통하여 20여 개의 기업을 선정, 입주하도록 하여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오는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창업강좌를 개설, 운영 할 예정이다. 경주캠퍼스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억여원을 지원받아 올 2학기부터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존에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던 경제였기에 나라 살림이 파탄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경제난을 극복하고 기업구조를 바로 잡는 과정에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그에 기여하는 대학의 역할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대학의 역할만을 기대하는 안일한 창업 지망생들에게는 성공이 보장될 수 없다. 창업 설명회나 창업 강좌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뛰어 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내대철 기자
enac97@cakra.dongguk.ac.kr

검찰을 개혁하자

법무부 장관에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임명됐다. 지난 2일 심재훈 대구 고검장의 항명사건때 눈물까지 흘려가며 "검사가 된 걸 후회한다"더니 이번에는 아예 장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역대 검찰총장 출신들은 집권세력과 모종의 관계를 유지한 채, 임기후에도 끈질긴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김영삼 정권 시절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김기춘, 김도연씨는 임기후 국회의원 직함을 갖고 출세기도를 달리고 있다. 장관이 바뀌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승진(?) 됐다. 일선 검사들로부터까지 무능하다고 지탄받았던 김태정씨는 특이한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치권을 오색하게 했던 터라 미운털이 박혔을 만도 한데, 총애가 워낙 두터웠는지 새로 출범한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맡게 된 것이다. 무조건, 나쁘게만 돌아볼 것이 아니지만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비단 이번 문제는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검찰과 정권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별칭을 갖게된 것도 분명 우연은 아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결코 스크럼을 잔 채 권력의 고삐를 얻어 먹다 내부에서 이탈자가 나오자 심히 당황하며 그를 차단해 버리고, 정치적 개혁의 칼날을 휘두를 때도 웬지 시뮬같은 칼집을 추고 있는 듯한 검찰. 최근들어 이러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언론들과 재야단체 그리고 경찰 일선간부들까지. 요지는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으며, 심하게 부패해 권력에 순순히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스스로의 각성에 근거하여 검찰조직전체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대야만 진정 검찰은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법을 운운할 자격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대동제의 과제

은방울 곳곳에서 열렸던 99인식 대동제는 저항문화제, 인식자유제, 락 밴드 연합공연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른 후 백상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여느해와 달리 올해 행사는 상업성을 최대한 배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높여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불법주박·분식, 불법주차 등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된 점, 몇몇 자치기구가 주체적으로 외부 상행위를 부추긴 것 등은 여전히 고쳐야할 문제점으로 남았다.

실제로 내세울만한 대학문화가 사라져가고 있고 대중문화와의 경계가 거의 허물어져버린 시점에서 대동제는 대학과 대학문화의 보여주는 유일한 행사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대동제에서 보여지는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실제 대학생들의 삶인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현재 은방울의 모습은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가 느끼는 대동제의 시작과 끝은 개막식이나 백상연이 아니라 주막을 세우는 작업과 거두는 작업 즉, 슬문화가 대동제의 시작과 끝이라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물론, 학내에서 술자리를 가짐으로써 사재간에 대화가 성립되고 친구들과 진솔하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대학사회에서 대동제가 어울리기 위한이 아니라 슬문화 이면의 상업성으로 존재해 간다는 점, 학내가 상가로 변모하는 과정은 현 시대의 대동제 문화가 개선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남는다.

서로간에 공유하는 것이 없고 단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단순히 즐기위해 대동제가 치러지고 유지된다면 대학과 사회의 경계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위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대동제가 되길 구성원 하나하나가 노력해야 할 시작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김주환 부주관 심규택 편집국장 박삼관 편집장 김미경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28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경주캠퍼스 (우)70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561)770-2658 팩스 (0561)770-2657

Mr.IKE & HIS KARMA (이익훈과의 만남·인연·연분) 영어청취 시험전문 이익훈어학원. 2000년 맞이 New Staff 토플종합 "단기 고득점 이또 뭐? Nothing이지 뭐!" 기초토플종합, 정규 토플 종합, 실전문제풀이 L/C단과, R/C단과, S/W단과. 강남: 3472-3322, 중로: 735-3322, 이익훈어학원 부설 한미유학원: 3472-2333

방학특강 인아르! 세계르! 영어: 미인회 화(FFL, New Interchange, Free Talk) 한인회 화, TOEIC, A TOEFL, 신강향 TOEFL, 영문법 기초 L/C, Screen English, AFKN, 영작문, 영어독해 Vocabulary, Time/영작. 일본어: 초급, 특대, 일인회 화, 각종 시험 대비반, NHK 청취 등시용역대학원반. 중국어: 초·중·고급 문법, 초·중·고급 회화, 스크린 중국어 CCTV, 통역대학원 준비반, 통역가이드 대비반. 프랑스어: 초·중·고급 문법, 특대, 비디오 청취, 회화. 주말반 대폭 개편. 토·일 100분씩 수업(회화실과 극대화) *영·일·중·불·독·러* 청문외국어학원 1호선 종각역 종로서적 뒤 738-5151(대) http://www.chungmoon.co.kr

개강: 6월 1일(화) 1961 시사영어학원 SISA ENGLISH INSTITUTE. 오렌지색 수많은 젊은 학도의 발걸음이 문지방을 넘겨온 이곳은 이 땅의 외국어 교육을 선도한 이학의 전당입니다.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독일어 종각역 4번출구 종로서적 뒤 TEL.734-2442

싱그러운 오월, 젊은 만해를 꿈꾼다



일상자

시부분

- 장원 최선희 (염평여고 2학년)
- 우수 1석 김은석 (충주여고 3학년)
- 우수 2석 안수정 (안양여고 3학년)
- 가작 1석 정수정 (김해중앙여고 3학년)
- 가작 2석 박지현 (안양여고 3학년)
- 가작 3석 유선우 (경북외국어고 2학년)
- 가작 3석 김선자 (안양여고 3학년)

소설부분

- 장원 박소영 (대진여고 2학년)
- 우수 1석 이가현 (안양여고 3학년)
- 우수 2석 박예원 (영성고 3학년)
- 가작 1석 서진리 (광주송일고 3학년)
- 가작 2석 박지영 (진명여고 3학년)
- 가작 3석 박찬민 (중동고 3학년)
- 가작 4석 김세정 (보성여고 2학년)

수필부분

- 장원 강예진 (가라고 3학년)
- 우수 1석 민보라 (진명여고 3학년)
- 우수 2석 조은진 (동일여고 2학년)
- 가작 1석 강소영 (보성여고 3학년)
- 가작 2석 유미선 (강일여고 1학년)
- 가작 3석 박선아 (영광해룡고 3학년)

심사위원

시부분

- 신경림 (본교 국어국문학부 석좌교수, 시인)
- 문정희 (본교 국어국문학부 겸임교수, 시인)
- 홍신선 (본교 국어국문학부 교수, 시인)

소설부분

- 김주영 (소설가)
- 한용환 (본교 국어교육과 교수, 소설가)
- 이원규 (본교 국어국문학부 겸임교수, 소설가)

수필부분

- 홍기삼 (본교 국어국문학부 교수, 문학평론가)
- 정채봉 (월간 샘터 주간, 동화작가)
- 양영진 (본교 사회학과 교수, 분사 주간)

2학기 일반휴학원 접수

- 99학년도 제2학기 일반휴학원을 아래와 같이 접수함.
- 1. 신청기간 : 99. 6. 21(월) ~ 6. 22(화) = 2일간
- 2. 신청자격 : 99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 3. 신청대상자 :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 4. 접수장소 : 교무처 학적과
- 5. 신청서류 :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소정양식, 보호자 도장 지참) 1부
- 6. 유의사항
 - 가.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나. 일반휴학기간 만료후(2학기)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됨.
 - 다. 휴학연장원은 휴학기간(2학기)이 만료되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복학·재입학원 접수

- 1. 복학,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 99. 6. 14(월) ~ 15(화)
- 2. 접수장소 : 교무처 학적과(본관 3층)
- 3. 구비서류
 - 가.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
 - 나. 군복학자
 - 1) 기전역자
 - ① 복학원서 1부.
 - ② 전역일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
 - (전역증 사본 불가)
 - 2) 전역예정자
 - ① 복학원서 1부.
 - ② 전역예정자 각서 1부.(소정양식)
 - 다. 재입학자 - 재입학 원서 1부.

서울캠 교무처

시

장 원

책, 나무, 집

I. 책
책은 더 이상 책이 아니었다.
가슴에 수를 놓고, 뚫린 입에 단추를 채워 마구 튀어 나오는 실밥같은 단어들을 동여매 주는 바늘이었다. 책은 바늘이 되기 위해 무성한 뽕죽함을 온갖 은유와 비유로 갈아 없애고, 단단 바늘귀를 눈물로 퇴색 시켜, 섬섬옥수 문장들을 꿰어내었다.

II. 나무
시인이 나무에게 물었다.
"넌 아프지 않니?"
"내 몸을 뚫고 들어온 건 '아픔' 이 아니라 '성장' 이다."
시인은 나무의 목 속을 들여다 보았다.
꼬물꼬물. 그 곳에 '성장' 만이 있었다.
"다 성장하면 날아가 버리지 않니?"
나무는 대답이 없었다.
시인은 자기 목 속에 바늘을 찔렀다.
아프다. 시인의 몸을 뚫고 들어 온 건 '아픔' 이다.

III. 집
나무가 말했다.
"그들은 다시 알을 낳으러 돌아 온단다."
시인은 바늘을 다시 갈고, 실을 꿰어 가슴에 수를 놓는다.
날아가 버린 문장이 다시 온기를 기다리며 밤새 문을 열고 바느질을 한다.
(시인은 문장이, 바늘이 되니, 기다리는 집이 되었다)



최선희
염평여고 2학년

우수 1석

물과 함께 시간과 함께

저렇게 긴 강에 밤이 김어서
오늘도 아버지 쓸쓸한 담배재가 떨어졌다
어머니 머머른 손끝에서 비껴가던
목주머니를 땀이
그 까만 슬픔 속에서 나뭇거리면
고된 인생살이 세월의 골만 깊은
아버지 얼굴의 주름살은
저녁햇살 물기처럼 외로워졌다.
넌덜거리는 가난한 옛 이야기
이가 시켰다.
수건을 차고 날도 없는 삼으로
방을 지레도 누군이라 좋다면 아버지
이미지 동사 썩어지게 지어도 낙이 없다면
그 땅에 침범코 영영 돌아서는 인물이었더라면
아버지 땅이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 어느새 강으로 거슬러 온 언어를 뚫어냈다.
연어는 물을 헤쳐오고
아버지는 세월에 부딪히고
물과 함께 시간과 함께
달아내릴 언어를 닦아냈다.
꼭 그렇게 늙었다.
뒤돌아볼새 없이 일거는 것들
언어는 강내를 잊지 않는다.
별은 멀어 등급은 아버지 볼 수도 없지만
아버지 한반도 가슴 속 뜨거운 별을
지워본 적이 없었다.
나는 부끄러워하는 것까.
미안하게 억척스런 농투성이 아버지들.
사람들은 봄방 되면 거지마치처럼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 말하는데,
맨살을 찢어놓는 항김은 강
때나 우리의 부끄러움 하얀 손
언제고 아담바들 살아 온 우리가
서로의 빈 가슴에 그리는 것은
아버지의 강으로 통하는 깊은 시간들.
언어처럼 파닥거리며 살다가 처절하게 돌아가야 할 곳.
풍년쯤에 부푼달도 서러워
저렇게 길고 긴 강이 흐르는데
오늘도 아버지 가슴 속
끔찍한 낚은 라이터는
이 어둔 밤을 아침같이 켜려고
척척거린다.

김은석
충주여고 3학년

우수 2석

책, 나무, 집

밀어둔 밥상에 간신히 햇살 내리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담요를 목까지 끌어덮고 누운 아빠
6년도 넘게 자리지켜 온
벤자민 화분이 베란다 창으로 아빠 발끝을 본다.

회사에서 나온 다이어리, 차에 있던 모과 바구니
증권투자 가이드책, 검은 싸이러트펜,
이면지 쓰라고 놓아두신
투자유망 스타종목, 이력서
주변에 어떻게든 놓인 물건들

똑같이 햇살 받고 있는
아버지 머리카락과 벤자민 잎사귀들의 어색함

충전 중인 핸드폰에서
뽕뽕 뽕뽕 뽕뽕 뽕뽕
터져나오는 행진곡 소리



안수정
안양여고 3학년

심사평 - "작품 수준 높은편"

글제가 여느해와는 다르게 특이하고 어려웠지만, 막상 학생들의 작품수준은 꽤나 높은 편이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 없었다. 기성 문학동네에서 문학의 죽음을 읊ulton 목 소리로 탄식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같은 사실은 우리시의 앞날에 희망을 결게 만드는 일이 아닐수 없다.

장원에 오른 최선희의 "책, 나무, 집"은 고등학교 특유의 풋풋한 상상력과 감각이 유감없이 발휘된 뛰어난 작품이었다. 책과 나무를 나누어 작품화하면서도 '집'에서 간결한 터치로 모든 이야기를 통통그리고 있는 짜임새도 특이한 것이었다. 결국 시쓰기의 어려움을 바느질에 견주어 마무리한 솜씨와 상상력이 이 작품의 작품다운 미덕으로 이 시를 심사위원 모두가 장원으로 뽑는데 이의가 없었다. 반면 우수 1석인 김은석의 "물과 함께 시간과 함께"는 호흡도 길고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인, 힘찬 작품이었다. 그러나 작품의 세부에는 아직 거친 표현이 남아있어 얼마간 아쉽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다. 안수정의 '책, 나무, 집'은 시쓰기의 훈련을 많이 쌓은 매우 능숙한 솜씨의 작품이나, 오히려 그 능숙함이 작품내용의 공허함을 불러오고 있다. 시의 힘이란 언어의 세공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거듭 확인케한 경우라 하겠다. 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를 이변 백일장을 통해 세삼 확인한 듯 싶어 심사위원 모두 즐거웠음을 덧붙여둔다.

신경림 · 문정희 · 홍신선

컴퓨터 여름특강

과 정 명	강사	일 시	기간 시간	모집인원 수강료	강 의 내 용
WINDOWS98 및 한글97 사용법	나승구	99. 6. 28 ~ 7. 9 09:30-12:30	10일 30시간	50명 40,000원	한글인도어와 운영체제의 개념 및 특징, 조판과 운영에 대한 심층, 한글에서는 기본적인 문서 작성과 편집, 서식, 표, 도형 등의 기능을 실습한다.
SAS 통계 프로그래밍 과정	한성일	99. 7. 12 ~ 7. 28 09:30-12:30	13일 39시간	50명 50,000원	한글, 프로그래밍, 분석을 위한 자료의 배열, 기법(행렬, 도표, 그래프, 차트 등) 설명, 기술용어 및 문법, 산술 및 논리연산, 기법(행렬, 행차, 자료분류 등)
WINDOWS NT 웹 서버 구축 과정	한 인	99. 6. 28 ~ 7. 23 09:30-12:30	20일 60시간	50명 80,000원	NT의 설치 및 활용, SQL, 서버로서의 설치 및 활용, 인터넷 Information 서비스 등 서버, Front Page와 웹 이용용 홈페이지 제작 등
LINUX 입문 과정	오승현	99. 6. 28 ~ 7. 14 14:00-17:00	13일 39시간	50명 50,000원	윈도우와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초급 리눅스를 설명하고, 관하여는 모든 과정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홈페이지 만들기 과정	한성훈	99. 7. 19 ~ 7. 30 14:00-17:00	10일 30시간	50명 40,000원	HTML 태그를 이용해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고, Paint Shop Pro, JAVA Script, 웹 제작도구를 이용하여 나만의 고급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다.
VISUAL C++ 프로그래밍 과정	심성진	99. 8. 2 ~ 8. 18 09:30-12:30	13일 39시간	50명 50,000원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지식과 컴퓨터 사용능력이 충분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C++의 특징, 데이터베이스 응용의 기본 개념, 예제프로그래밍 실습 및 응용 등
JAVA 프로그래밍 과정	한승민	99. 8. 2 ~ 8. 18 14:00-17:00	13일 39시간	50명 50,000원	자바는 인터넷 및 분산 환경 시스템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로서, 본 특강은 자바 언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로서, 자바 언어의 체계적인 구성을 배우고 실습한다.
Photoshop 과정	유성현	99. 8. 2 ~ 8. 18 09:30-12:30	13일 39시간	50명 50,000원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지원하는 이들을 위한 특강으로서, 컴퓨터 영상의 이해, 기본적인 포토샵 기능 이해, 실무 프로젝트 등을 배우고 실습한다.

- 1. 신청자격 : 동국대학교 재학생(학생증 필히 지참)
- 2. 특강장소 : 컴퓨터실습실 EB(원흥1관 3층), 컴퓨터실습실 GC(혜화관 1층), 컴퓨터실습실 FL(원흥2관 지하1층)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3. 접수장소 : 정보문화관 P동 3층 컴퓨터교육원사무실(☎ 2260-3852 ~ 3)
- 4. 접수기간 : 99. 5. 31(월) ~ 6. 11(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일·공휴일 제외)
- ※ 수강인원이 적은 과목은 컴퓨터교육원 사정에 의해 폐강될 수도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폐강시에는 수강료 환불)
- ※ 단 폐강을 제외한 과목은 접수기간이 지나면 환불 불가.

서울캠 컴퓨터교육원

2학기 강의시간 체제 변경

99학년도 제2학기부터 강의시간 체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니 참조 바랍니다.

- 1. 도입 취지
 - 가. 주당 강의시간의 적절한 안배가 가능토록 하여 과목 특성에 따른 강의시간의 유연성 확보(3시간 강의를 75분씩 2회 분할 가능)
 - 나. 2시간 연속 강의에 따른 강의 부담을 분산하여 강의의 효율성 제고
 - 다. 강의실 및 시간 Loss 최소화를 통한 학생들의 교과 이수 편의 제공
- 2. 강의시간 모델
 - 가. 30분 단위의 1셀을 기본한 체제
 - 1) 1시간 강의는 30분 단위의 2개셀에, 2시간 강의는 4개의 셀에 배정
 - 2) 3시간 강의는 3개셀(75분)을 2회 분할하여 배정
 - 3) 강의시간은 0교시를 시작으로 9.5교시까지(0, 0.5교시, 1교시, 1.5교시... 9교시, 9.5교시)로 구성함
 - 나. 강의시간 체계
 - 1) 1시간 강의는 두 개의 셀에 배정하여 50분 강의후 10분 휴식(현행대로 실시)
 - 2) 2시간 강의는 4개의 셀에 배정하여 50분 강의후 10분 휴식 2회, 또는 100분 강의 후 20분 휴식
 - 3) 75분 강의는 3개 셀에 배정하여 75분 강의후 15분 휴식
 - 4) 야강강좌는 수업시간이 45분 단위이므로 강의시간 등의 내용 변동없이 셀체제의 형식만 도입함.
- 3. 유의 사항
 - 가. 기존 1교시 1시간 체제에서 30분 단위로 변경되니 강의 시간대를 정확히 숙지하여 수강 신청시 유의.
 - 나. 30분 단위의 강의시간 배정으로 인하여 개인별 시간표 작성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
 - 다. 0교시는 08:00-08:30, 0.5교시는 08:30-09:00, ... 9.5교시는 17:30-18:00의 형식이므로 다음 강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숙지바람.
 - 라. 요일 및 교시 표기에서 정시 시작은 소수점 이하(.0)를 생략하며 매시 30분 시작만 소수점 이하(.5)를 표기함.

4. 강의 시간 예시
가. 예시 교과목

학 연	이 수	학 수번호	강의 번호	교과목명	학 점	강사명	요일 및 시간	강의실	비고
1	교선	BGC101	01	불교와 한국문화	3.0	강사서	목7-8, 금8.5-9.5	K309	A
2	교필	RGC003	01	불교와 인간	2.0	강사2	금9-1.5	K305	B

나. 강의시간표

교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0	(08:00-08:30)						B
0.5	(08:30-09:00)						시
1	(09:00-09:30)						간
1.5	(09:30-10:00)						
2	(10:00-10:30)						
2.5	(10:30-11:00)						
3	(11:00-11:30)						
3.5	(11:30-12:00)						
4	(12:00-12:30)						
4.5	(12:30-01:00)						
5	(13:00-13:30)						
5.5	(13:30-14:00)						
6	(14:00-14:30)						
6.5	(14:30-15:00)						
7	(15:00-15:30)					A	
7.5	(15:30-16:00)					시	
8	(16:00-16:30)					간	
8.5	(16:30-17:00)						A
9	(17:00-17:30)						시
9.5	(17:30-18:00)						간

- ※ 0교시는 08:00-08:30, 0.5교시는 08:30-09:00, 0.5교시마다 30분씩 증가.
- ※ 이부대학은 강의시간 내용 변동없이 교시 표기만 변경함(월13-15 → 월13.0-15.5)

교 무 처

소설

장원

황사

나는 먼지를 세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앓, 농쳤다.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다른 할 일을 생각하려면 못 할 것도 없다. 먼지를 샌다는건 아주 골 때리고 의미없는 것이니까-계다가 이젠 쓸데없이 아주 많은 주의력을 요하는 작업이다. 온 정신을 집중해서 넷, 다섯, 여...스 스... 덕분에 나는 옆에서 실새없이 쫓아대는 은경이의 말따윈 가볍게 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빠가 말이야,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그러는거야... 아유... 내가 싫구나 그래도 자꾸만... 씨- 너 내 말 듣기가 하는거야?"
 "어..."
 먼지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흙을 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어쩌면 발악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운동장의 누런모래와 철판의 분필가루가 햇살을 받으며 미친 듯이 흙을 추고 있다. 아니... 발악. 눈물나게 아름다운 발악.....

아침에 아빠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젓가락을 식탁위에 쩡 소리가 나도록 집어던지고는 방문을 쿵 닫고 들어간 이유는 두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아빠가 전형적인 다혈질이라는 것, 또 하나는 소세지... 소세지 때문이다. 아침식사 반찬으로 소세지가 올라왔나보다. 식구들이 다 한자리에 앉자 전에 성질급한 아빠는 널름널름 소세지를 죄다 집어 먹었다. 그래서 엄마가 말렸잖아... 지영이 먹을 것 좀 남기라고-그게 이유다. 그리고 아빠가 그 이후로 식구들한테 한마디도 안 한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내가 엄마한테 이유를 듣고 깔깔깔 웃었기 때문이다. 겨우 소세지 때문이야? 하면서... 그래서 난 엄마한테 미친년 소릴 듣고 아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출근해 버렸다. 후...

속으로 반항하는게 얼마나 가슴짜릿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담임선생은 성격 파탄자다. 가끔 우리반은 단 채로 혼나면서 그 또렷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난 너희들을 내 손 안에 넣고 주무를 수 있어. 너희들의 그 씨어빠진 사고방식과 게으름, 태만함을 꺾어버릴 수 있어. 너희들을 내 맘대로 휘둘러 줄 수 있다고. 알아들어. 이 새끼들아?"
 사건의 시작은 그냥 효진이 어제까지 내라던 학생증 사진을 안 낸데서 시작된다. 겨우 그거가 된다고 혼자 지랄이다.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느낀 나는 재미있고 유쾌한 속으로 반항하기 놀이를 하기로 한다. 고개를 숙이고 무진장 잘못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머릿속엔 즐거운 문장을 나열하는 것이다. 선생님을 욕하거나 속으로 비꼬는게 아니라 운동장 밖의 새소리를 듣고 어디서 나는지 모를 꽃향기를 맡으며 봄을 만끽하는거다. 속으로는 내내 여행스케치의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를 부른다. 봄이다. 모래바람이 포실안으로 들어온다. 다시 또 먼지를 샌다. 책상머리에 푹푹앉고 있어서 죄송한 표정을 짓지만 내 머리속은 미친 먼지처럼 흩날린다.
 선생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들을 선생님 맘대로 하실 수 없어요. 지금은 봄이고 저희 생각은 모래바람처럼 자유로운 걸요...

아빠는 다혈질이므로 아빠가 화를 내는건 아빠의 성격이고 우리식구의 운명이다. 그리고 얼마안가 곧 풀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별 걱정할 이유도 없다. 우리 포유류는 환경에 맞게 적응해 나간다고 하지 않던가?...

헌데 이번 건은 좀 길어질 것 같다. 퇴근하고 들어와서도 아빠는 한마디도 하질 않는다. 누워서 TV만 본다. 아빠 주위의 냉랭한 공기 때문에 우리식구들은 감히 근처에 접근을 못하고, 보고싶은 연속극이 있어도 눈물을 머금고 재방송을 기대한다. 방에 들어간 나는 공부나 할까 생각하다가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그렇지, 그런 못할짓이라고 판단하고는 일기를 쓰기로 결심한다. 참 오랜만에 쓰는 일기다. 일주일정도 안 썼나보다. 내가 게으른 탓도 있지만 내 잘못만은 아니다. 쓸거리가 없었던 거다. 나는 죽어도 하루가 반 복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말로 또 내일이 올까봐 두렵다. 오며칠 사이에 나는 매일아침 일어날 때 보이는 풍경이 어제의 그것과 너무도 같다는 것에 슬막함을 느껴왔다. 눈을 뜨는게 겁이 났다. 분명 너무나도 익숙해진 천장. 어제와 똑같은 위치의 시계바늘. 같은 모습으로 누워있을 내가 보일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서 어쩔텐데? 이젠 광계다. 골 빈 열여덟살 여자애의 구차한 변명이다. 중요한 건 일상이 아니잖아... 진짜는 생각이잖아. 학교의 시간표가, 34번 버스노선이 정해진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내 생각만 다르다면 된 거 아닌가? 멍청하게 일상에 몸을 맡기지만 황지영. 매일 아침 같은시간에 같은 모습으로 눈을 떠도 어제와 다른 오늘의 기도를 하는거야. 일기를 쓰자... 일기를 쓰자... 일상을 쓰지말고 생각을 쓰자.....

우리의 머리속은 바람에 날려 햇살에 반짝이는 누런 모래처럼 자유롭다-4월 12일

아빠의 침묵도 이전 어느정도 익숙해졌다. 난 평소처럼 동생들과 떠들고 웃고 한다. 아빠를 걱정하는 건 엄마뿐이다.
 "밥 먹어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라 내가 이말을 했다면 끝세...? 혹시 모르겠다. 그러나 난 애교따윈 부릴 줄 모른다. 게다가 아빠가 밥을 먹든 말든 나랑은 관계없다. 오히려 사정하는 엄마가 답답하다.
 아빠는 초저녁부터 잠만자고, 우리는 아빠를 빼놓고 두런두런 이야기 꽃을 피우며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이·랄·수·가... 우리가 아빠를 완벽하게 '왕따' 시킨 것이다. 힐끗보니 어떤 이불을 말고서 시체처럼 잠들어 있었다. 뭐? 시체라고? 그날 난 또 한번 승철이 아저씨의 죽음을 본다... 우리가 아빠를 왕따시킨 날 -아빠가 푹푹달고 자던 노란 이불의 정점이... 마치 그 사람이 만지고 놀던 모래처럼... 흐려져갔다.

만세! 드디어 엄마가 폭발했다. 나흘째 아침이다. 아빠는 서랍을 뒤지며 핀자를 찾고 있었다. 뭘 찾고냐고 엄마가 물어도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서랍을 뒤적거리었다.
 "뭘 찾아요?"
 "....."
 "뭘 찾느니니까?"
 "....."
 "말을 해야 찾아줄 것 아니에요? 뭘 찾는데 그래요?"
 "....."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요?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야. 으이고 황사명씨 원래 쫄잔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시네-정말 그걸 소세지 하나로 그러는 거예요?"
 "그만해."
 혀, 아빠의 목소리가 무섭다. 그렇지만 엄마는 그만하지 않는다.
 "사람이 제 입만 알아가지고... 반찬같은거 애들 먹으라고 산데도 도대체 어른이 왜가지고 왜 그래요? 당신 맨날 술 퍼마시는 그 돈으로 애들 간식이

착 할 때까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어두운 차안- 조용히 야광빛으로 깜빡이는 계기판-밖의 모든 색깔을 형틀어 뜨리며 쏟아지는 비-천천히 빗물을 닦아내는 와이퍼의 움직임- 그리고 침묵을 지키며 보드랍게 운전하는 아빠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웠다. 빗방울을 쳐다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중에 '아버지'란 단어를 들었을 때 지금 이 장면을 떠올려야-하고...

그때의 그 장면은 내가 너무나도 열심히 관찰한 까닭에 맘만 먹으면 언제든 그 생생한 영상을 꺼낼 수 있게 잘 저장해 두었다. 아빠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침묵을 완강히 지키고 있다.
 오늘은 아자를 땀방이 치고 좀 이른 시간에 집으로 간다. 건널목에서 좀 이상한 사람을 봤다. 정박아인가 보다. 얼굴은 아저씨 같은데 키도 작고 웃도 저저분한 사람이 어디서 주웠는지 실물치를 들고 놀고 있다. 그 사람의 등에는 '심재철'이라는 이름이 써 있고 전화번호도 같이 써있다. 실물치를 갖고 놀던 그가 바닥의 모래에 손을 댄다. 멍한 눈동자엔 바보같은 웃음이 들어있다. 그의 손이 곧 누런 모래로 더러워진다. 아, 그때 한 여자가 오더니 그 사람을 발로 뺨뺨하며 욕을 한다. 못살아 못살아 하면서- 그는 손에 묻은 모래를 탁탁 털리고는 개처럼 그 여자에게 지일 질 끌려간다. 난 그때 승철이 아저씨의 죽음을 보았다. 일년전 돌아가신 아빠의 친구 분인 승철이 아저씨... IMF직후 아저씨 회사가 어려워지자 아저씨는 내내 담배만 피우며 고민고민 했고... 그러던 어느날 저녁 신문을 보던 아저씨는 승철이 아줌마에게 머리가 아프다며 하소연을 하드랬다. 아저씨는 계속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그 말만 반복하시다가 그렇게 그냥 돌아가셨다. 새까맣게 타들어간 모습으로... 일년전이다. 일년이 지났다. 당시 그토록 괴로워했던 엄마 아빠도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아저씨의 죽음을 잊어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게 생각이 난 것일까?...

나 사귀었어요? 자기입만 입이고 딴 사람은 주둥이리지?"
 "그만하라고 했어."
 앓. 엄마 위험해... 아빠는 화나면 무섭다. 방에서 두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는 내 가슴은 조마조마해진다.
 "내가 당신 먹이는데 아까워서 이러는 줄 알아요? 난 고기반찬 사도 제대로 한입 먹어보지도 못해."
 "그만해."
 "내 돈 주고 내 양말 한 켤레 사보지도 못해. 내가 내게 사느라고 당신한테 소홀한 적 없냐구요?"
 "그만 하겠지."
 엄마 울면서 계속 얘기하고 아빠는 그만하라는 말만 할 뿐 저번처럼 방문을 쿵 닫거나 소리를 버럭치거나 하지 않는다. 그나마 그만하라는 소리도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 든다. 두 사람의 흥미진진한 싸움을 더 듣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난 학교에 가야한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건 결과는 엄마의 승리라는 것이다. 웬지 좋은 예감에 현관문을 열고 나온다.
 "다녀오겠습니다!"
 앓, 실수다... 저런



심각한 상황에 내 목소린 너무 밝고 활기넘친 것 같다. 으이구... 눈치코치 없는 이 둔한 감각이구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학교로 향하는 내 걸음이 슬데없이 가볍다.

우와 어젯밤 내가 모르는 사이 비가 왔었나? 깨끗한 하늘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이런 촉촉한 공기에서는 모래먼지 따윈 날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난 하나의 즐거운 유희를 잃어버리게 되나...

우와 어젯밤 내가 모르는 사이 비가 왔었나? 깨끗한 하늘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이런 촉촉한 공기에서는 모래먼지 따윈 날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난 하나의 즐거운 유희를 잃어버리게 되나...

깨끗한 하늘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이런 촉촉한 공기에서는 모래먼지 따윈 날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난 하나의 즐거운 유희를 잃어버리게 되나...

밤에 집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아빠는 다 좋아버린 떡볶이, 식은 김밥이, 싱거운 오뎅국물을 잔뜩 사들고 와서 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일단 더럽게 맛 없는거 사왔다고 투덜댈 것이다. 그럼 아빤 괜히 또 나한테 계집애가 먹은거 치울 줄도 모른다고, 시집가서 어떻게 살거냐고, 너 땀에 염미가 살아 안찌는 거리면서 혼낼 것이고 신이난 엄마는 자기방 청소도 자기가 할 줄 모르며, 예제는 아자까지 땀땀이 쳤다고 아빠한테 다 일을 짓는다.
 예고예고... 집에가면 좀 많이 피곤하겠군. 날씨가 짜증나게 좋다.

박소영
 대전여고 2학년

심사평 - "서사적 상상력과 문체 미학"

예년에 비해 수준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우열이 크지 않아 심사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은 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 안도와 고마움마저 느꼈다.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제목으로 완성해야 하는 백일장의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작품이 균제된 문장,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것을 뛰어넘었다.
 우수상 박예원의 '별'은 서사적 상상력은 약했으나 유려한 문체가 인상적이었다. 이기현의 '황사'는 청소년의 의식세계를 조월하는 상상력과 입담이 돋보였으나 문체의 유려함이 부족해 아쉬웠다.
 장원을 차지한 박소영의 '황사'는 소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두루 갖춰진 수작이다. 천부적인 재질과 문학수업의 축적이 엿보이는데다, 독자를 끌어들이는 흡인력도 강했다. 정정을 바란다.
 김주영·한용환·이원규

수필

장원

꽃과 잎

꽃집이라는 곳이 있다. 그런데 잎집이라는 곳은 없다. 꽃집에 들어가 보면 한 줄기에 꽃과 잎이 같이 달려 있는데도 말이다. 꽃다발이라는 말은 있어도 잎다발이라는 말은 없다. 꽃다발에는 꽃과 잎이 함께 있는데도 말이다. 꽃한송이라는 말은 그것에 딸린 잎까지를 같이 부르는 것이지만 잎 한 장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다. 단지 잎만을 부르는 소리이다. 그 말에는 꽃이라는 존재가 포함되지 않는다. 잎이 들으면 서운해 할 지도 모를 얘기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들 한다. 꽃은 중심적인 존재이고 잎은 부수적인 존재니까……

꽃은 중요한 존재이긴 하다. 꽃을 피워 수정을 하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가게 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존재, 그것이 바로 꽃이다. 그래서인지 꽃은 잎보다도 돋보인다. 색도 짙고 생김새도 예쁘다. 또 향기까지 난다.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꽃보다는 잎을 더 좋아한다. 잎이 없는 꽃이란 있을 수 없다. 길바닥 구석 좁은 틈새에 피어난 자그마한 민들레에도 잎이 있다. 잎은 꽃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잎은 꽃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한다. 꽃의 색과는 반대되면서 꽃의 색보다 눈에 띄지 않는 양전한 색을 띤 잎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서 이 색은 꽃의 빛깔을 더 돋보이게 한다. 그리고 잎은 꽃보다 위에 달리는 법이 없다. 항상 꽃보다 아래의 위치에 있는 겸손한 모습이다. 이것이 내가 꽃보다 잎을 더 좋아하는 이유이다.

내면의 성숙함이 잎의 모습이다. 꽃은 어떤 지 자만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든다. 꼭 잎이 없어도 저 혼자 아름다울 수 있다는 자만심에…… 그런 면에서 보면 꼭 내가 꽃인 것 같다. 그리고 엄마는 잎이라고 할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엄마는 나를 위해서 양보하신다. 꼭 잎이 꽃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과 닮았다. 잎의 색이 꽃의 색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엄마의 마음은 엄마 자신보다 딸인 나를 더 소중히



꽃은 잎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아름다움은 잎의 존재가 아니면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의 외면적 아름다움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은 잎의 마음가짐에 있다.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잎이 꽃보다 아래에 달려 꽃을 더 높게 보이려 하는 것처럼 엄마는 당신을 낮추신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눈에 띄는 줄, 내가 제일 높은 줄 안다. 꽃의 자만심이다.

꽃은 잎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아름다움은 잎의 존재가 아니면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의 외면적 아름다움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은 잎의 마음가짐에 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이야말로 빛을 잃지 않는 가치있는 아름다움이다. 이제는 나도 잎이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배경이 되어 중요한 존재를 받쳐주고 돌

강예진
가락고 3학년

남기고 싶은 한마디

△식당이 레스토랑처럼 좋아요.
△스님들 뒤통수가 귀여우시다.
△우리엔 동국대 98학번이얏.
△동국대 너무 멋있어요. 동국대에 다니는 언니 오빠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동국대 짱!
△밥 맛있는데 요거르트에서 신김치 맛있어요. 장원타면 동국대 올겁니다. -N·M-
△특기자 전형에 모든 4년제 대학입상자 포함시켜 주셨으면……
△나두 삼촌 주지…… 흥! 근데 누가 알아요? 내가 정채봉시인같은 사람이 될지…… 기대하쇼. 근데 여기 방송시설 굉장히 좋더군요……서울사대 방송반

△다시온다.
△설희야. 난 니가 될 줄 알았어. 글구 언니 나~도 나가서 노래 부르고 싶었던 말이에요. 치~인. 덕성나라 은희공주
△울고싶을 때 눈물을 흘리리라. 박동준
△즐거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갑니다요. 나 한 살만 어렸어도…… 구뎁 안녕~.

△난 임상했다.
△나도 임상!
△그래 HOT 노래 불러서 수필집 받은 것 만으로도 기쁨! 근데 강타오빠 어디에……대구고 STUENT
△노력하는 모습은 실패를 해도 아름다다 -금정여고에서 온 S가 썼습니다.

△허무와 기쁨이 만났다는 이 순간 나는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
△동대!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좋네요. 열광하고 문예부입니다. 내년엔 또 오겠습니다.(정말 좋습니다~)
△잘있거라 서울아. 다비보자 동국대야. 성적이 하 수상하니 울동 말동 하려라.
△상재고가 최고야.

△삼 못타두 입선이닷!!
△양지는 왔다감! -설희도!
△전북 순창제일고에서 '정아·유미' 왔다가다. 순창에서 온 사람은 우리뿐(?) 최초의 대학교는 동국대!
△오늘 HOT오빠들 못봐어도 가서 봤다고 뺨칠생각이에요.

△슬플. 그게 내 뒤에 있다.
△수원 삼성블루밍즈 파이팅. -SES
△젊은 만큼 꿈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원고쓰다 꿈도 못꿈니다. 분위기는 좋는데 소설시간 너무 짧습니다.
△이문열씨도 양귀자씨도 동대문학콩쿠르이면 시간안에 결말 못낼걸?

△맛이맛아 등감……
△거참! 글쓰는데 마이크 남용하지 마시다.
△나는 타인의 인생을 쓰는데 그럼 누가 내 인생을 써주니? -사인
△밝은 미래를 꿈꾸는 도전은 아름답다.
△글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모두 건필해서 좋은 작품 많이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버리다! 후회할거야
△고3으로 동대 백일장에 마지막으로 참가하고 갑니다. 글쓰는 모든사람들에게 동대 백일장에서 행운이 가득하기를
△시대를 노래하는 젊은이가 되고 싶다. P·S 동대신문 집으로 한 부만 보내주세요

△경북 김천에서 왔는데 좋은 시간이었어요. 학교경치도 너무 좋았고 유명한 시인들도 뵈어서 좋았어요. 동국대를 HOT오빠들 때문에 알았는데 오빠들은 보지 못했지만 기분은 좋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건너야 할 사막을 가지고 있어요. 동국대 언니, 오빠들 꼭 그 사막을 잘 건너시길 바래요. -성의여중고 유진미

△동일여고 선배님~ 저희 왔다가는데요. 선배님들 못 뵈어서 너무 섭섭해요. 동일여고 파이팅 -수현, 소정
△수원영생고 천재시인 이제한 왔다감. 나의 명작을 아무도 못알아봤다!!!

△선영여고에서 어린이가 왔다가요. 선배님들 내년엔 저 동대신문사에 들어오면 꼭 받아주세요. 선영화이팅, 동대화이팅
△난 동국대에서 어떤 빛을 본다. 그 빛은 동국인들의 여유있는 얼굴에서, 동국대 교정 이곳저곳의 푸르름에서 그리고 감히 꿈꾸는 어떤 희망에서, 눈이 감기는 따스함으로 온다. 평생 이빛을 기억하리라. -최고가 되기를 꿈꾸는 부평여자고등학교 3학년 한유정
△수근오빠학교 와봐서 좋았구 알쁜 좋은 경험이었다.

△저는 시흥에 사는 예쁜 아이인데요, 토니오빠 강타오빠 못보고 가요. 보고 싶었는데…… 미워. 학교졸 잘 나와서 공부열심히하세요.

심사평 - "실험적 시도 아쉬워"

올해 수필은 우선 양적으로 풍년이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풍요를 앞섰음을 밝힌다. 그것은 문학에 있어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실험적' 시도가 보이지 않았다는데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수필의 '신변이야기' 로만 굳어져 있는 틀의 파괴를 고등학생들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구한 전통이 강물처럼 유장한 '동대백일장'에 모인 젊은이들 중 변칙적이고 천지를 가르는 번개가 되어 잠신한 작품이 떠오를 법도 하지 않은가.

주어진 제목 '꽃과 잎' '무지개'를 선택한 비율은 반반이었다. 그러나 참신성 쪽은 '꽃과 잎'을 쓴 학생가운데 많았고, 무지개를 선택한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소화력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주제와 구성과 문장이 삼원색의 표지 않은 취임에 따라 내놓고자 하는 새로운 색깔(작품)이 나와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 있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수필은 붓가대대로 쓰여지는 글'이라는 오해에 기인하고 있는 결과라 아닌가 싶다. 붓가대대로 쓰여지는 글이란 어느 정도 완숙한 작가에 해당하는 말이지 이제 문학의 초입에 들어서는 학생에게는 해당되는 이론이 아니다. 수필도 여느 문학장르와 마찬가지로 주제의 설정과 구성의 짜임이 완벽해야 한다.

이번에 입상자는 바로 이런 점에서 순위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입상자들은 물론 선의자들에게도 글복을 빈다.

홍기삼·정재봉·양영진

우수 1석

무지개

만질 수 없는 것,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무어라고 딱히 분류하지 않고 그저 무수히 많은 '것'들 말이다.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의자, 손에 쥐고 있는 펜, 종이, 공책, 시멘트 바닥……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모두 사용해서 느낄 수 있는, 즉, 물질적인 것들보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급급해 살아 온 까닭일 게다.

무지개, 비가 오고 나서 개인 후 생기는 색색의 무지개…… 솔직히 정말 천연의 무지개를 봤던 적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많은 문학작품 속에서 익히 경험했듯이 무지개가 아름답고, 순수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아름다움을 쉽게 볼 수도 없을뿐더러 볼 수 있다고 해도 만져볼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에서 만져지지 않는 것, 즉, 소유할 수 없는 것은 그 자체로써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에, 먼저 가지려 하고, 많이 가지려 하는 각박한 이 시대에 순수한 공감대를 형성해 준다.

언젠가 비가 오고 난 후, 아파트 저편 하늘에 걸려 있는 무지개를 본 적이 있다. 그렇게 선명한 무지개를 본 것이 처음이었던 일이라, 그 후로도 며칠동안 내 입에서 자량이 끊이지 않았던 때가 생각난다. 그 때, 무지개의 색깔은 우리가 익히 그림에서 보았던 것만큼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잿빛 아파트 머리 위로 떠오른 그 천연색은 나의 환호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무지개를 본 내가 느낀 것은 색색의 띠들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은 일종의 미덕이었다. 하

나의 색에서 다른 색으로 넘어갈 때에 아릿하게 이어지는 경계 아닌 경계에서 서로가 서로의 색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무지개가 다른 색보다 강한 어떤 색에 의해 단색의 띠로 되어있다고 생각해 보자. 과연 그 아름다움을 지금처럼 쉽게 공감할 수 있었을까?

우리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무지개를 본 내가 느낀 것은 색색의 띠들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은 일종의 미덕이었다. 하나의 색에서 다른 색으로 넘어갈 때에 아릿하게 이어지는 경계 아닌 경계에서 서로가 서로의 색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리는 서로를 소유하려 한다. 비단 남녀간의 사랑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친구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에 대한 고충을 겪곤 한다. 사랑이라는, 관

심이라는 명목아래, 서로를 자신에게 동화시키려 하고, 그 속에서 다투고 상처를 주고 받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사랑은 집착이 되고 만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처럼 서로의 색을 소유하지 않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미덕, 바로 그 자연의 미덕에서 우리는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세상에서는 무지개처럼 소유할 수 없는 것, 소유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허황된 소유욕으로 우리 속에 내재된 순수한 영혼을 더럽히려 한다.

언젠가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적이 있다. 인간이 세상에 나서 전정을 일으키

고, 끊임없이 싸우는 까닭은 그들이 필요한 무언가를 남들보다 많이 가지려하기 때문이라는. 때문에 우리가 진정 살아가는 이유도 잊은 채, 그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결국 더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고 만다는……

비록 내가 무지개를 통해 느끼고자 했던 '소유'에 대한 관념과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던져주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느끼고, 생각해 볼 어떤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얘기한 소유할 수 없는 것에 관한 것들, 우리가 진정으로 순수하고자 했던 이상향 속에 색색의 무지개를 떠올려 보자. 언젠가 보았던 그 무지개가 떠오른다. 흐릿하면서도 환상처럼 걸려있던 무지개…… 문득 울려다 불 하늘에 무지개는 없었지만, 우리 마음 속에 걸린 무지개를 떠올려 보자.

지금 이 순간, 순수한 영혼의 빛깔을 담은 무지개가 너무나도 보고 싶다.

민보라
진명여고 3학년



신작안내

그리고 어느날(시선집)



마치 시인과 대화하듯, 수필처럼 감미로운 시가있는 행촌(杏村) 백한이의 시선집. 신구대학의 길영란이 1천6백수의 백한이 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이다. 백한이 시인의 토속적 언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언어예술로 시인의 내면세계가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상을 향하여', '사람아 내게로 오라', '다운 당신', '그리운 날'의 4장으로 이루어진 이 시선집은 시인의 삶 그자체를 하나의 스토리 형식으로 표현.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백한이 시인만의 독특한 언어로 형상화했다. 우리는 이 시선집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생'을 경험할 수 있을 듯.

한미디어 출판사. 정가 6천원.

A tribute to 1977-1996 (음반)

진보적이고 건강한 노래문화에의 갈망 "고뇌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1977년부터 1996년까지의 서울대 노래래 '메아리'의 역사가 담겨있는 음반. 각기 다른 세대 20대들의 음악, 그들의 아름다웠

던 시절의 노래가 이 음반에 수록되어 있다. 이번 음반은 원곡의 느낌을 유지한채 노래의 개성을 극대화시켜 다양한 음악적 접근을 시도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삶에 대한 '메아리'의 다짐의 표현이자 그들의 적극적 외침. '메아리'가 1977-1996의 시대에 바치는 이 조그만 씨앗이 언젠가 무성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우뚝 서있는 모습을 그려본다.

서울대 노래모임 '메아리' 기획.

천사들이 꿈꾸는 세상(영화)



"스물 한 살 삶의 시작, 우린 사랑의 끝에 서 있었다." 마리와 이자, 그녀들의 스물 한 살의 청춘스케치. 부서질듯한 금발머리에 커다랗고 슬픈 눈을 가진 마리. 채워지지 않는 청춘의 허기는 그녀를 늘 외롭게 했다. 21살, 반복되는 지루한 삶에서 탈출하고 싶었고, 그때 한 남자를 만났다. 짧게 자른 검은 머리에 환한 웃음을 가진 이자. 사람들은 커다란 배낭하나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웃음만큼 큰 꿈이 있다. 21살, 그녀는 늘 세상을 향해 꿈을 꾸었다.

98간느 영화제 공동여우주연상 수상작. 코아·아트홀에서. 29일 개봉.

캠퍼스 이기주의

우리 사회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주의를 극복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가 보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가 있고 여기 동국학원에는 아직도 캠퍼스 이기주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경주캠퍼스에서 교육대학원의 여러 학과 전공개설을 요청한지는 십 여년이 넘는다. 그러나 교육대학원에서 학생모집의 어려움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캠퍼스에 없는 학과만 허용하다가 계속되는 요구에 사범계열인 수학교육학과와 가정교육학과만 교과과정을 개설하면서 그것도 현직교사만 입학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지난주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경주캠퍼스의 교육대학원 교과전공 확대와 증원을 불허한다고 통보해 왔다. 그 이유인 즉 수학교육전공과 가정교육전공의 정원확보가 어려운 실정과 교육학 강좌 개설의 어려움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수학교육전공은 현직교사만 현재 38명이 교육대학원에 등록되어 있다.

교육대학원의 어느 학과든 해마다 20명씩 현직교사를 입학생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가정교육전공은 여성교사인 점과 현재 중등학교에서 가정교과가 줄어든 학과적 특성으로 모집이 어렵기는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다. 비교사가 입학할 경우 교직과정의 개설문제는 지역적인 작은 문제일 뿐이다.

서울캠퍼스에서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입학을 허용하고 경주캠퍼스에는 현직교사만으로 정원을 확보하려고 하고서는 정원의 충원이 어렵다는 논리로 정원의 캠퍼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편협한 캠퍼스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어교육전공이나 영어교육전공을 개설하여 서울캠퍼스와 같이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다면 이 지역 현직교사와 더불어 그 수요는 엄청날 것이다.

교육대학원위원회가 전원 서울캠퍼스 교수들(위원장 1명, 위원 7명)로 구성되어 있음에 경주캠퍼스의 입장이나 발전은 안중에도 없다. 경주캠퍼스는 지역대

달하나 천강에

학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21세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도 지역 사회에 기여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로 남아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10년 전부터 교육대학원의 여러 학과 전공을 개설하여 지역사회의 중등교사를 매년 20명씩만 동국의 동문을 배출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들 2백명의 동문교사는 신입생 모집과 학교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엄청나게 기여할 것이며 이는 몇 십 억원의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경주캠퍼스의 교육대학원 학과개설에 따른 정원 및 실명의 이전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대학원의 정원은 동국의 양 캠퍼스 재학생을 근거로 인가된 것이며, 경주캠퍼스의 발전이 곧 동국학원의 발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국인들이 더 큰 동국의 발전을 위해 캠퍼스 이기주의라는 탐욕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기를 부처님께 빈다.



이 임수
인문과학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워킹홀리데이 가상 시나리오

여행 · 아르바이트 ... 값싸게 이국체험



"다행히 일주일만에 양을 키우는 농장에서 연락이 왔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는 다른 학생이나 임금체불로 일만 하고 오갈데 없이 쫓겨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보다 훨씬 행복한 경우이다."

졸업을 해도 웬만한 영어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쉽게 취직이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고 외국어 학원을 다닌다.

영어권에 위치한 호주는 시드니항과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펼쳐진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는 워킹홀리데이. 젊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군침을 흘릴 조건이다.

대학졸업반인 이양 또한 귀가 솔깃했으니, 무작정 워킹홀리데이 협회에 전화를 걸어 수속을 밟고 휴학을 했다. 떠나기까지 남은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해 모은 돈과 엄마에게 약간의 용돈을 받아 호주달러로 환전을 하고 비행기에 올랐다.

혼자 낯선 땅으로 떠난다는 생각에 울적해 있는데 마침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또다른 학생이 있었으니, 얼마나 반가웠으랴.

호주에 도착했다. 당장 갈 곳도 없는 처지라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하기만 하다. PICK-UP서비스를 신청한 그 학생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자리를 폈다. 먼저 왔다는 일본인 어학 연수자를 우연한 계기로 협회에서 만나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방을 구한다. 당장 손에 남은 돈은 앞으로 쓰일 밥값으로도 모자랄 지경에 이르렀다. 어학연수의 꿈을 버릴 수 없었던 이양.

협회에 도움을 청해 정보지에 구직공고를 내고 연락이 올 때까지 호주 곳곳을 살펴보고 잠시 여행을 떠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점점 줄어들고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다행히 일주일만에 양을 키우는 농장에서 연락이 왔다. 숙소를 정리하고 배낭을 짊어진 이양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를 갈아탈 때마다 혹시나 다른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끊어지지 않았다. 물어 물어 도착한 농장에는 중년 부부와 딸이 살고 있었다. 딸이 퉁퉁한 그는, 이양은 사전과 회화책을 손에서 뗄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동양인을 집에 들여 놓는다면 여간 신기해하지 않던 가족은 그녀에게 농장을 소개시켜주고 기분을 자랑하기에 비뻤다.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의 표정에서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가를 느낄 수 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가족우리를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낯새와 농장의 규모에 혀를 내둘렀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또한 음식도 입에 맞지않아 어려워지만 가족의 배려로 가끔 한국의 김치나 고추장을 대형 슈퍼마켓에서 구해왔다.

비록 몸은 조금 힘들고 고달프지만 잘 참아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는 다른 학생이나 임금체불로 일만 하고 오갈데 없이 쫓겨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IMF는 이양을 계속 괴롭혔다. 부모님께 약간의 의지를 하며 용돈을 받아오던 것이 환율인상으로 버텨내기 힘들지경에 이르렀다. 6개월간의 연수와 실제 경험을 뒤로하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야 한다.

양영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손재현무용단 창단공연 '넋의 소리'

“불심(佛心)을 발레로 승화시킨다”

불교포교 목적 ... 오는 3·4일 서울캠 예술극장에서

불심(佛心)을 발레로 승화시킨다? 쉽게 연상하기 힘들다. 다소 실험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 공연은 다름 아닌 손재현무용단의 창단공연이다.

손재현(체육교육) 교수가 불교포교무용단을 창단해 오는 3, 4일 서울캠 90주년기념문화관 예술극장 무대에 올린다.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에 얽힌 전설을 소재로 다룬 이 공연의 제목은 '넋의 소리'. 김흥우(연극영화학)교수가 극본을 쓰고, 신영섭(연극영화학)교수가 연출을 맡았다. 딸아이를 범종제작에 제물로 바치고 번뇌하는 어머니가 결국 불심에 귀의한다는 것이 이 극의 주된 내용이다.

본교에 무용과가 없는 상황에서 졸업생과 초청무용수 등으로 이뤄진 손재현무용단은 일반인들에게 불심에 귀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다.

색다른 점은 발레뿐만 아니라 연극, 탈춤 등도 삼입된 무용극이라는 것이다. 이는 포교가 목적인 공연에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무용의 신체표현만으로는 부족한 점을 대사를 통해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연극영화학과·체육교육학과 학생, 문화예술대학원생 등이 연습에 참여했고, 이처럼 각기 다른 소속의 사람들로 구성된리자 연습은 대개 오후 8시에 시작해 밤12시, 1시에 끝난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주말에는 하루종일 공연준비만 한다. 오늘도 이들은 본교 서울캠 체육관



단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공연준비를 하고 있다.

지하 연습실에 모여 밤늦게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하고 있다.

손재현교수는 가톨릭선교무용단은 많은데 비해 불교포교무용단이 적은 현실이 안타까워 본교에 지난 91년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무용단을 창단할 것을 고민해왔다고 한다. IMF영향으로 후원금도 적어 이번 공연의 기획, 제작비도 개인적으로 준비했다는 손교수는 이러한 자금사정보다도 "현재 체육교육과에 무용을 전공하는 학부생이 한명도 없어 포교무용단을 활성화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일반인들이 공연에 많이 찾아와 불심에 귀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는 손교수는 앞으로 "크던 작던 1년에 한 번은 꼭 공연을 치를 것"이라고 다짐한다.

손재현무용단의 창단공연 '넋의 소리'는 본교공연에 이어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에서도 공연할 예정이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매체비평

-연극편
개그콘서트

“어려운 시기일수록 요구되어지는
웃음은 해학과 풍자를 통한
가슴아픈 웃음이다”



매체를 뛰어넘은 개그 무대가 펼쳐진다.
사진은 박경림의 토크쇼의 한 장면.

요즘 대학로에는 ‘개그 콘서트’ 열풍이 불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연극과 라이브 콘서트 속에서 매일같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개그 콘서트’란 개그가 주가 되어 음악과 춤을 결합한 버라이어티 쇼를 말한다. 배우들의 순발력과 재치로 TV나 스크린을 통해서만 맛볼 수 없는 현장감과 관객과의 절묘한 호흡을 통해 또 다른 카타르시스를 창출해내는 ‘웃음의 무대’이다. 물론 현장감과 관객과의 호흡은 모든 무대 예술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개그 콘서트’에서 이러한 특징을 강조하는 것은 희극의 특성상 웃음의 순간을 위해 배우들의 절묘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웃음의 무대’는 여러 가지 형

태로서 오랜 시대에 걸쳐 존재해왔다. 그것은 사람들의 웃음에 대한 끊임없는 갈구를 말해 준다. 유난히 힘겨운 시기일수록 그 열망은 더욱 커진다. 요즘 들어 ‘개그 콘서트’의 갑작스런 흥행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IMF로 인한 불안한 국내정세와 무너져 가는 서민들의 경제기반 등이 세기말의 병적 흥분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건전한 웃음을 소멸시켰고,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빌린 웃음’이라도 애써 찾게 되는 것이다.

지금 대학로에서 울려지고 있는 ‘개그 콘서트’ 중에서도 컬트 삼총사의 ‘포복절도’ 시리즈가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컬트 삼총사는 개그맨 출신의 가수로 ‘개그 콘서트’의 특징을 잘 살려 성공적

인 공연을 하고 있다.

지난 여름에 치러진 ‘포복절도’의 흥행으로 거울에 ‘포복절도’를 선보였고, 현재 ‘포복절도’를 공연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표한 곡을 곁들여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빠른 입담과 순발력 있는 재치로 연일 매진 사례를 이루었다. 한편에서는 공간에 비해 너무 많은 보조좌석의 설치로 무리한 관객 입장을 유도한 것이나 공연 후 그들의 앨범판매에 치중하는 등 상업적인 측면이 너무 앞세워지지 않았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지만 주체의식이 있는 웃음과 라이브 음악 실력 등으로 그들에 대한 호평이 우세하다. 그들이 삼고 있는 주제는 청소년 가출문제와 국가권력 앞에 애소해질 수밖에 없는 소시민들의 처지를

다루는 것으로 관객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주고자 한 노력이 엿보인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요구되어지는 웃음은 해학과 풍자를 통한 가슴아픈 웃음이다.

한국사회는 매우 경직된 웃음을 갖고 있다. 수줍음, 혹은 거만함에 의해 억눌린 웃음은 마음껏 발산할 기회가 드물다. ‘개그 콘서트’는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한 공연 형태이다. 배우들은 매 공연마다 형성이 되는 불규칙한 3차 집단(관객의 특성 을 막아 올라가는 순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경직된 마음을 한껏 열어 2 시간만이라도 웃음 앞에 자유로워지게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관객들이 웃음을 요구하는 한 ‘개그 콘서트’는 패자를 부르며 계속하여 질주할 것이다. 문화부

가자! 미지의 세계로

얼음골 동의제 허준·유의태 두 의성 살신성인의 뜻 재겨

전국에 많은 명소가 있지만 여름의 문턱에서 뇌리에 스치는 건 얼음골 ‘동의제(東醫祭)’의 현장이다. 밀양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남명으로 가는 차 중에 얼음골로 가는 버스(1시간에 한 대)를 타고 그곳에 당도하면 그렇게 짜는 듯한 햇살도 맥을 못추는 듯 시원함만이 온몸을 감싼다. 얼음골은 분면 30℃를 오르내리는 폭염도 식혀주는 곳이다. 필자가 그곳에서 ‘동의제’가 있다는 소리를 처음 들은 것은 1997년. 그곳을 방문 후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마음은 얼음골로 달려간다.

얼음골은 천연기념물 제 2백24호로 지정되었다.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재약산(載藥山 또는 迦藥山, 1189미터) 종턱 6백미터 계곡에 위치하며 삼복에 얼음이 얼고 겨울에는 녹아 김이 나는 ‘밀양의 신비’로 이름난 곳이다.

이 얼음골과 ‘동의보감’을 탄생시킨 허준(許俊)과는 밀접한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허준은 1546년 김포에서 출생, 1615년 70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휴과 나무껍질, 풀잎 속에서 의학성분을 캐내고자 노심초사했던 한의학의 거두이다.

허준은 약재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리산(智異山)에 들어가 환자를 돌보고 의술을 익히며 호구지책으로 살았는데 여기서 유의태 선생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경상도 출신인 그는 허준 보다 열 댓살 연상인데 워낙 천부적인 의술을 타고나 채약은 물론 산약, 시맥, 탕약, 침술, 조약 등에 능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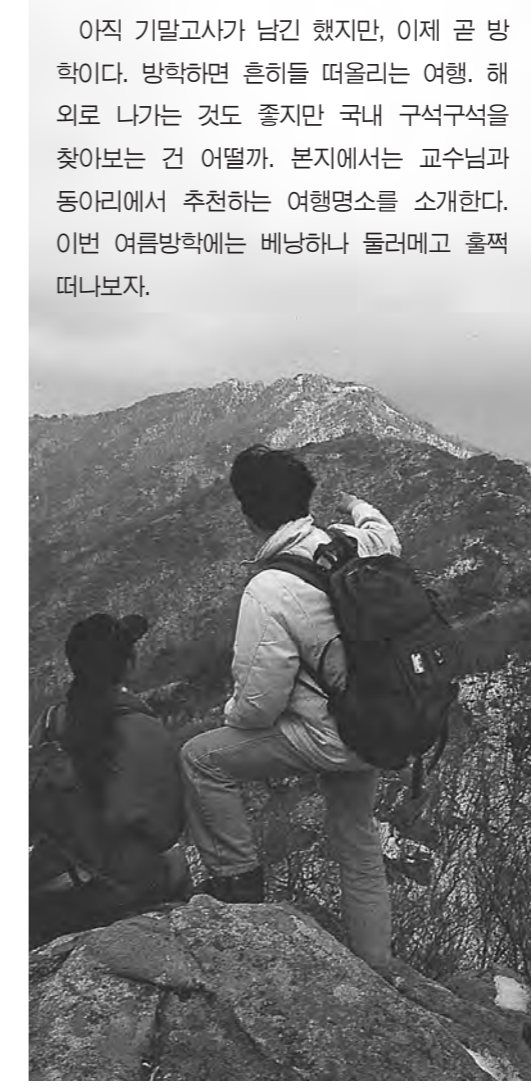
자신의 아들인 유도지마저 명의(名醫)의 맥을 전수치 않았던 그는 허준을 만나자 그의 열과 성에 압도되어 전수하게 된다. 당시만해도 동의학에 의존하여 인체해부학에 대한 임상자료는 전무한 상태였는데 유의태는 자신의 시신을 얼음골 어느 방곡(氷谷)에서 해부하도록 유언을 하고 활복,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허준은 스승을 실험용으로 해부하면서 이를 ‘동의보감’에 활용, 완성하게 되니 이가 바로 동양권에서 최고의술서로 추앙받게 된 것이다.

얼음골은 이 두 의성(醫聖)의 숭소가 여러 곳이다. 오백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은 한 여름에도 얼음을 느낄 수 있는 서늘한 곳이다.

곡사(氷谷寺)는 짧은 주지 성보원 스님에 의해 복원을 서두르고 있었다. 방곡사로 알려진 절은 천황사로 개명되었고 그렇게 부르고들 있었다. 스님은 이곳에 온 후 잡을 설치고 꿈에 노인이 나타나 시달림을 당했다는 것이다. 생각던 끝에 연전부터 산신제를 지냈고, 1996년부터는 규모를 확장하여 ‘동의제’라 하여 유·허 두 의성이 살신성인한 뜻이 은누리에 퍼지도록 했다는 것, 이후로 스님은 잠도 잘 자게 되고 불사도 원만히 풀리어 대웅전이 곧 완공된다는 것이다. 두분을 위한 추모·위령제는 나비춤과 바라춤에 범패까지 아울러 전통의례로 치루어졌고 여기에 ‘진흥무’까지 곁들여 공들인 것이었다. 더구나 3일에 걸쳐 유·허 의성의 후예들이 무료검진에 시술까지 하고 있어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일석삼조의 여행이 되었다.

올해가 얼음골 동의제가 시작된지 4년째 되는 해이다. 필자가 벌써부터 얼음골로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빨리 8월이 왔으면 좋겠다.

김홍우
예술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이직 기말고사가 남긴 했지만, 이제 곧 방학이다. 방학하면 흔히들 떠올리는 여행. 해외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국내 구석구석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본지에서는 교수님과 동아리에서 추천하는 여행명소를 소개한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배낭하나 둘러메고 훌쩍 떠나보자.

동강 한국의 ‘계림’ 수려한 자연경관 자랑



동강변 건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금강산 붓을 잠재울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장소, 동강. “새벽에 자욱한 물안개가 걷히며 펼쳐지는 자연경관은 한국의 계림이라 불릴 정도로 일품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동강의 강변에, 사전에 알아보고 출발해야 한다.

숙박은 문화마을 민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5천원의 비용이 든다. 여름철에는 황새여울 자갈밭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으며 뒷정리만 잘 한다면 캠핑이어도 가능하다고.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동강탐험 연구회는 동강에서 보트를 타고 리프팅을 즐기라고 추천한다. 강을 따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않는 곳이나 절어다니면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계곡과 동굴을 볼 수 있다고.

서울에서 동강으로 가려면 동서울 터미널에서 미탄을 경유하는 정선행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동강 근처 청리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3시간반이 소요되며 동강의 강변 마을 마하본동까지 마을버스로 20분이 소요된다. 교통비는 고속버스의 경우 8천1백원이다. 단, 하루 네차례 운행되는 마을버스와 고속버스의 환승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주의, 사전에 알아보고 출발해야 한다.

숙박은 문화마을 민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5천원의 비용이 든다. 여름철에는 황새여울 자갈밭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으며 뒷정리만 잘 한다면 캠핑이어도 가능하다고.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영남알프스 한국에서 만난 유럽의 알프스



산맥이란 울산 울주구 삼복면과 경남 밀양군 산내면, 경북 청도군 문문면 등 3개 시도에 모여 있는 해발 1천m 이상의 7개 산군을 지칭한다. 가지산(해발 1,240m) 운문산(1,188m) 재약산(1,189m) 간불산(1,208m) 취서산(1,059m) 고현산(1,032m) 신월산(1,083m) 등이 그것으로 유럽의 알프스와 버금간다는 뜻에서 영남알프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등산로는 경부고속도로 언양인터체인지로 나와

경주캠 여행동아리 유스호스텔에서 추천하는 명산지는 영남 알프스 산맥이다. 영남 알프스

울산 울주구 삼복면 석남사 뒤 배내골 울산대 연수원에서 서쪽을 따라 가거나(소요시간 2시간반)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사매포소 뒷길로 난 길을 이용하면 되며(소요시간 3시간)보통 단풍절에는 간월산 쪽으로 하는것도 좋지만 비교적 볼거리가 많은 취서산 쪽에서 시작하는 것이 수월하다.

영남알프스에는 또 통도사와 석남사 운문사 표충사 등 문화유산을 간직한 고찰이 많아 문화여행에도 좋다. 그러나 이들 고찰을 둘러보면서 영남알프스 전체를 종주하려면 2박3일의 일정을 잡아야 하기에 장기적 계획을 짜야하는 단점이 있다.

끝으로 유스호스텔의 김진갑(경상학부2) 회장은 “정상에 올라서면 펼쳐진 평원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때의 기분은 이루말할수 없으며, 꼭 한번은 가 볼만한곳”이라 말했다.

황성규 기자 dg19711439@mail.dongguk.ac.kr

낙산해수욕장 볼거리·먹거리 많은 동해안 명소



서울캠내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바람소리’가 추천하는 여행지 ‘낙산해수욕장’ 양양에서 6km떨어진 낙산해수욕장은 주위에 낙산사와 의상대를 비롯해 많은 볼거리들이 있으며 설악산을 옆에 둔 동해안의 명소이다. 예로부터 동해안에서 경포대와 쌍벽을 이루는 휴양지인 낙산해수욕장은 2km에 이르는 백사장과 백백한 송림, 주위에 산재해있는 명찰과 고적으로 유명하다.

특히 낙산에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해 운영하는 낙산학사가 있어 학생들이 하루 숙박료 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없이 여행을 즐

길 수 있다. 이 밖에도 낙산사 앞 민박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낙산 비치호텔이 유우로는 식당과 민박집이 즐비하게 들어 서있어 숙식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덧붙여 바람소리의 김영대(공학계열·2) 회장은 “낙산은 본교 학생들이 목욕가기 저렴하고 여러 가지 회 등 별미를 값싸게 즐길 수 있어 추천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가는 방법은 동서울터미널이나 상봉터미널에서 양양을 경유하는 속초행 버스 또는 양양행 버스를 타면 된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양양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며 버스비는 1만5백원이다.

상봉 터미널에서 양양을 오가는 버스는 2시간 간격으로 있으며 직행의 경우 요금은 1만5백원 소요 시간은 5시간 40분이다. (원) izmir@cakra.dongguk.ac.kr

대둔산 화려한 암봉 금강·설악에 비유



본교 서울캠 ‘동국산악회’가 추천하는 명소 ‘대둔산’. ‘호남의 금강’ ‘작은 설악산’이라 불릴만큼 사계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명산이다. 옛날 원효대사가 사흘을 둘러보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 산이라 했고, 만해 한운운은 대둔산 대고사를 보지 않고는 천하의 승지를 말하지 말라 할 정도.

전북과 충북에 걸쳐있는 이곳은 해발 8백78m로 그다지 어렵지 않은 등산로가 완주방면 3개, 논산방면 2개, 금산방면 1개가 있다. 특히 완주방면에서는 동삼바위로 올라 금강구름다리, 삼선구름다

리위에서 화려하게 펼쳐진 암봉들을 보며 마천대(정상)에 오를 수 있다. 북릉을 타고 하산하며 낙조대에서 즐기는 종식도 이 등산의 묘미.

대둔산에는 완주군 방면에 집단시설지가 있어 단체숙박이 가능하다. 민박료는 1실 2만원 안팎으로 식사도 가능. 또한 민박외에 야영을 즐길 수도 있는데, 등문골에는 야영장이 있어 매표소에서 입장권만 구입하면 별도의 야영비 없이 캠프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함께 추억만들기에 좋을 듯.

교통편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기차를 타고 2시간 정도 가면되는데 무궁화호의 경우 평일 6천8백원, 주말 7천5백원이다. 대전에 도착하면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1시간정도 버스를 탄다. 버스요금 3천5백원이다. (영) sadad@cakra.dongguk.ac.kr

메아리

도덕적 위험

▲완전경쟁시장하에 경제 주체들은 상품에 대한 완전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산업사회이후 국민들은 정보의 홍수에서 헤어나오질 못한채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정부에게 이양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등에 업은 정부는 때로는 국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정보를 오·남용해 국가전체를 위기에 몰아넣게 하기도 한다. 12.12사태, 대통령 선거 및 각종 선거,

유신정권 등 어떻게 보면 지금의 IMF사태 하에 무수한 실업자가 생기게 한 외환위기에 시 정보공유화가 되지 못한채 소수의 권력자들에게만 주어진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20세기 경제학자 레이놀스는 산업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말해 지금의 시장경제는 사람의 비인간적 요소 즉 자연에서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어떤 목적의식 아

래 얻어내는가 중요시되는 사회이며, 자본과 자연은 자본가에게 소유되지만 노동(력)만은 각자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현대사회에서는 노사분규,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관계는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 밖에 없다.

▲IMF이후 2백만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최소 1년내거리는 20년이 넘도록 일하다 하루이천에 거리로 내몰린지 했수호 2년이 다돼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실업자들을

구한다는 명분아래 공·사기업의 인건비용, 공공근로실업대책, 보조금 지급 등 여타 많은 실질적 구제정책을 펴 왔지만 그 때마다 일과성 정책의 수행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얼마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근로사업 확대, 일자리찾기 등을 또다시 벌이고 있지만 시민단체나 국민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원) sadad@cakra.dongguk.ac.kr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 하반기

실업률을 5.7%로 내다보고 있으나 여전히 실업자는 1백 5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및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구제방안은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면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파위를 자랑하는 중앙권력은 도덕적 위험에 또다시 직면할 것이다. 정희정 기자 dg19711782@mail.dongguk.ac.kr

잡은소식

학교 안에서

ANIMATION 정기상영회

서울캠 만화동아리 ‘만화열’에서 개최하는 애니메이션 상영회. 이번에 상영되는 작품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은하철도 999’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일본애니메이션과 최근 북고 바람을 일으키는 ‘8대권V’ 같은 우리 나라 고전 애니메이션 등이다. 특히 신세대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에반겔리온’은 놓칠 수 없는 볼거리. 모든 상영작에는 한글자막이 삽입된다. 오는 1일부터 2일까지. 본관 중앙당에서.



서울캠 클래식 기타연주동아리 ‘현여울’에서 세 번째로 개장터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약 10여명의 부원들이 평소 연습한 ‘에스터데이’나 ‘사랑의 콘체르토’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곡들을 솔로, 듀엣, 트리오등의 형식으로 연주한다. 사람들하고 함께 연주하고 즐기므로써 클래식 기타를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될 것. 오는 3일, 계산관 앞마당에서.

학교밖에서

오태석연극제2(우리소리·색깔·몸짓)

극장 아롱구지의 개관 기념 공연. 넓은 무대공간과 잘 갖춰진 시설로 공연공간으로써 뒤을 다 했던 ‘섬좌소극장’이 ‘극장 아롱구지’로 개관하는 것을 기념하는 공연이다. 고전으로 잘 알려진 ‘춘희의 처’와 ‘부지유천’ 두 작품을 현대에 걸맞게 전면 재각색하여 소극장 무대에 걸맞는 새로운 감성을 끌어내는 공연일 예정이다. 10월 3일까지. 극장 아롱구지(구 성좌소극장)에서. 문의는 745-3966

한겨레 (벤처 창업특강)

한겨레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벤처 창업에 관한 특강. 대학생 및 벤처창업에 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강. ‘벤처창업, 어떻게 할 것인가?’ ‘벤처창업 성공사례’ ‘벤처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3가지 주제를 통해 벤처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줄 예정이다. 오는 4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문의는 7100-763

소나기

도서관을 말한다



△난 정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어. 자리 좀 늘려줘.
 △상록원보다 도서관이 급했다.
 △도서관에 책 좀 놔라. 읽을 책이 없다.
 △해화관을 통째로 도서관으로 만들자!
 △핸드폰, 휴대폰은 도서관하고 안 어울림.
 △도서관 열람실에서 PCS 좀 자체해줄걸... 최소한 매너있는 동국인이야.
 △도서관과 C·C는 정말 짜증 도서관과 미니스크트는 엉망!
 △도서관 자리 맡아 놓고 오지도 않는 사람 핸드캡 적용합시다.
 △불교 서적 만큼만 다른 책들이 있었다면 제 2의 국립 도서관?
 △제2도서관건립 정말 하는건가요?
 △19C 건물 20C 학생이 어우러진 곳 △도서관에는 책이 있다.
 도서관에는 열람실도 있다.
 도서관에는 멀티미디어실도 있다.
 그래도 우리 도서관은 낡았다!!!
 △시험기간때마다 자리 전쟁! 이젠 그만-
 △빈 좌석에 책 한권만... 무늬만 학생 아닌가요?
 △도서관은 시정됐다.
 △도서관은 독서실이다.
 △도서관에선 제발 책으로 진리탐구좀 하자구요.
 △도서관에서 자기 공부하는 사람은 다 열람실로...
 △도서관은 학교의 얼굴
 △공부할 밥만 있으면 도서관 좁은게 무슨 상관...
 △도서관은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지난 12일 히말라야 칸첸중가봉 정상에 오른 박영석(체교91졸) 동문의 모습. '동국인의 기상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그의 모습이 늘름하지만 하다. 사진제공=1백주년기념사업본부

임석대동제 '술축제' 탈피해야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후, 대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럴즈음 대학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대동제가 시작되었다.
 우선 대학의 대동제라면 빼놓을 수 없는 술문화에 조금의 변화가 보인 것 같다. 동국인의 비주류 문화를 내걸고 진정한 대학인의 지성인다운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지인지 작년보다 주막수가 줄었다는 것이 형식적이거나 그런 구호를 실추시키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술마시는 일 아니면 할 것이 없다는 대동제에 대한 틀에 박힌 이미지는 벗어나기 힘든 것 같다. 밤이 되면 더욱 현란해지는 주막거리의 여기저기 취한 사람들이 캠퍼스의 술에 빠져들어가 있다. 대동제 문화를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낸다는 식의 이런 모습은 새내기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다 줄 뿐이다. 학생들은 대동제때만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
 그간의 행사들은 단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좀처럼 학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녹야원에서 행해지는 행사들도 그저 일정한 채우기 위한 것인지, 너무 공연에만 치우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반적인 보여주기식의 공연이 아니었으면 한다. 단지 대동제를 무로써 시간 보내기 식이나 아예 짧은 방화처럼 왜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또 새로운 새내기들이 보는 대학의 대동제는 술축제가 아닌,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흘러가는 공연위주가 아닌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정수현 (의과대 간호학과)

동대신문 '한총련 기획광고' 유감

5월 24일자 동대신문은 전면에 한총련을 지지한다는 기획광고를 실었다.
 주제적 법인격이 있는 신문으로서 자신의 논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 표현이 정당하였는가 하는 것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의든 타의든 동대신문은 우리 학생들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의 기획 광고는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동대인들이 언제 한총련에 대한 총력적인 지지를 보였는가? 우리 동대인이 언제 한총련을 탄압한다고 정부를 비난하였는가? 학생회가 그런 입장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입장 또한 그런 것은 아니다.
 한총련에 대한 입장은 저마다 차이가 있고 많은 논란이 있다. 정권의 탄압이든 아니든 탈피한 학교가 많으며, 많은 학생들이 그 논조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총련이 무조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그 강령과 행동과정에서 국가 전복적 성격이 아주 없다면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동대신문은 그런 문제점은 단 한번도 다루지 않았다. 동대신문이 진정 공정하고 그 기사가

부끄럽지 않고, 기성신문을 담당하게 비난할 수 있는 신문이 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김상현 (사범대 국어교육과)
신문사 입장 표현했을 뿐
 주제적 법인격을 가진 동대신문이라면 한총련을 지지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동대신문은 학보이다. 동대신문이 학생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것이라는 주장은 김상현님의 주관적 판단이다.
 '우리 동대인들이 언제 한총련에 대한 총력적인 지지를 보였는가?' 라는 식의 비판은 동대신문이 동국대 학생 전체가 한총련을 지지한다는 기사를 실었다면 타당하다. 동대신문사 자체의 주장에 대해 이런 비판을 한다는 건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정권의 탄압이든 아니든' 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많은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주제적 법인격을 가진 또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억압했다면 그 뒤의 결과물은 자발적 의사로 한 것과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lala98@hanimail.net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윤영아! 생일 축하해. 주희랑 너랑 나랑 셋이서 잘 살아보자. -한송 ^^
 △민환이 오빠, 경덕야. 생일 축하한다. -독문과 97이
 △혜진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도 행복한 날이 계속되길 빈다. -오빠가
 △우승을 축하합니다. 동대 야구 만세! 우리도 곧 우승합니다. -아미츄어 야구회
수고 하셨습니다
 △천막을 치고, 지켰던 문과대 학우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싸랑하는 우리 인문학부 후배님들 고생 많이 했어요. 싸랑한다. -어는 9601
 △천막 농성단 친구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문과대 학자주체

알립니다
 △사회 과학대 대의원장 용대 오빠를 사랑하는 모임이 발족합니다.
 회장 : 고XX, 부회장 : 최XX, 회계 : 미묘의 여인 김XX
그리고...
 △진석이 형! 휴학하지마요. 제가 학교 다닐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누군졸일조
 △윤호야, 경식이 스타 한관 때리지. 너들 VS 나, 성호 연락해. 종강전에. 끝내 주마.
 △도대체 총학 기준잡아 동아리 연합회 등등이 왜 한총련에 매달리는가? 한총련 사수나 하라고 총학 선거했던 말인가? 왜 공약엔 그런 내용 하나도 없더니. 있었으면 부결했을텐데. 선거 다시해라!!! -東國人
 △담배 날개로도 빠시다.
 △경찰 행적 제 33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33기 멋져! 짱!

모니터링

제 1274호 동대신문을 읽고

“대안제시 없이 문제점 나열에 그쳐”

동대신문은 명확한 자기입장을 말하지 않은 채 사실만을 전하고 있다. 학내의 언론사로서 사실의 전달도 중요하겠지만 제도권 언론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사의 주장을 펼쳐 학내의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1274호를 보면, 1면에 경주캠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되어 계열별 모집단위 반대 등의 안전을 인준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회측과 학교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나열만 하고 있다. 그리고 '본교의 실정에 맞게 개편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라며 어정쩡한 결론을 내고 있다. 모집단위의 광역화로 선후배, 동기간의 관계가 약화되고, 학생회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모집단위의 광역화를 반대하는 논조로 기사를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기사에서는 한동대 등 여러 대학에서도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학교측의 입장을 전하기도 한다.
 주제기획면을 보면 학내공간의 현재 문제점은 잘 지적해 주고 있지만, 과

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라며 어정쩡한 결론을 내고 있다. 모집단위의 광역화로 선후배, 동기간의 관계가 약화되고, 학생회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모집단위의 광역화를 반대하는 논조로 기사를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기사에서는 한동대 등 여러 대학에서도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학교측의 입장을 전하기도 한다.
 주제기획면을 보면 학내공간의 현재 문제점은 잘 지적해 주고 있지만, 과

도한 편입생의 입학으로 학생수가 늘어나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적하지 못했다. 그리고 해결책은 거의 제시가 되지 않고 있다. 추상적으로 공간을 잘 활용하지는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주제기획으로 특별하게 다뤘다면 좀 더 고민이 필요했을 것이다.
 대학신문은 자본이나 권력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수 있다. 동대신문도 그런 자유로운 논조로 사회를 비판하고 실천하는 기자정신의 정론지로 일어서길 바란다. 이종현(경상대 회계학부)

학우들이 느끼는 실제적 문제에 관심가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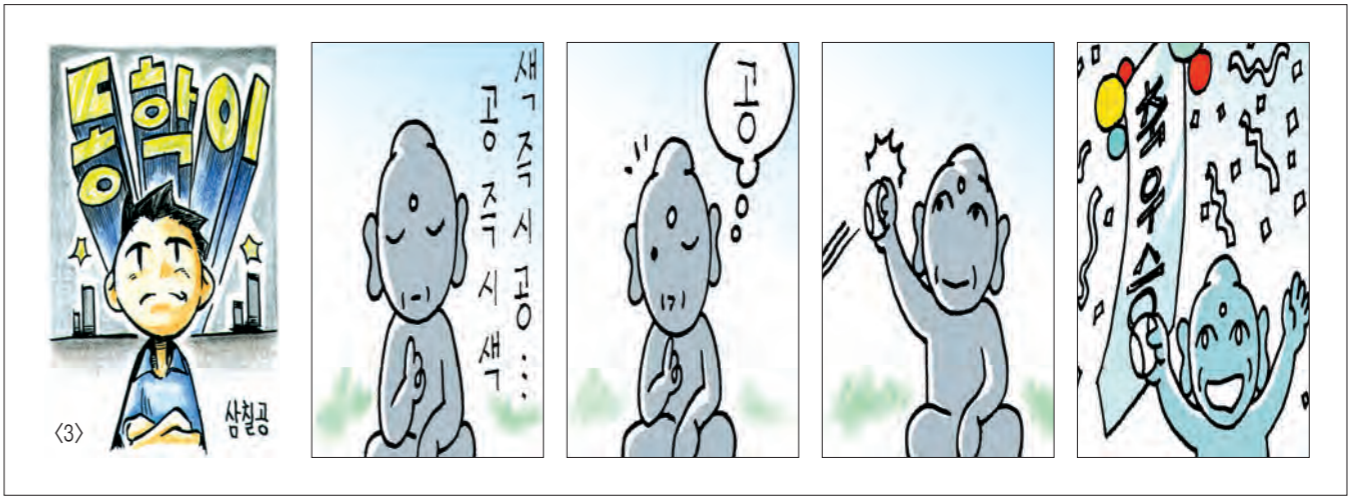
이번호 동대신문은 1면의 학생총회 성사에 대한 기사부터 학내공간문제와 대동제 기사 등등 여러가지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까지의 신문보다 훨씬 나아갔다고 본다. 그러나 기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좀 문제가 있었던 신문인 것 같다.
 먼저 "경주캠, '5·20 학생총회' 성사"라는 기사의 경우 그 내용의 중요성으로 보아 1면에 내세워 비중을 높인 것은 당연하나 반면에 계열별 모집단위나 성폭력 학칙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오히려 단편적인 상황 설명에 그쳐 아쉬움이 남았다.
 "학내자치공간을 진단한다"라는 기사 역시 두면에 걸친 장대한 기획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려진 문제점의 나열에만 그칠뿐 그러한 문제점의 개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의 흔적보다는 그저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혹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만 운운하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었다. 특히 생활면의 '의학상식'이나 학술면의 기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학우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기사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어 솔직히 지면이 아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얼마전부터 필자가 바뀐 '동국만평'이나 '동학이'의 경우 깔끔한

그림실력은 보기가 좋으나 주제적식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대학신문은 대학인의 대변자로서 누구보다도 대학인들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잘 짚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신문의 경우는 정작 시원스럽게 짚어야 할 부분은 걸뚫채, 그것을 보살하려는 듯 엉뚱한 부분만 박박 긁고 있다. 동대신문이 대학신문으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심각한 모색과 더욱 투철한 붓대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종희(인문과학대 한문학과)

“자치공간 없다” 과 · 학부 정체성 구현하기 어려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부제는 정말 많은 문제점을 떠안고 있다. 자치공간문제도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서울캠 정보문화관이 문을 열게 됨에 따라, 97년도부터 정보산업대학 -참고로 현재 정보산업대학은 학부로는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부'로, 전공으로는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전공' '산업공학전공' '정보시스템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신설되면서부터 문제시되었던 자치공간문제에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다. 방학중에 자치공간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며 현재도 학생회실이 비좁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소모임들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공간 확보를 아예 업무조차 못내고 있다.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단과대 학생회실은 맨 아래층, 통신이 두절된

구석진 곳에 있으며, 학부 또는 전공학회실은 인원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간부족의 이유로 또는 여타의 이유로 제대로 간판조차 내걸지 못하는 실정이다.
 며칠 전 정보산업대에서 대동제 기간동안 설문조사를 했다. 그 중 '정보산업대 학생회실을 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대다수가 '오늘 처음 알았다' 또는 '알고는 있었으나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다' 라고 답변했다. 이것은 학생회실 위치 조건이 좋지 않고, 또한 잦은 학제개편으로 인해 자신의 과, 학부에 대한 정체성이 많이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김근주 (정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오징어까스(1300) 닭도리탕(1500)
화	불고기백반(1500) 부추비빔밥(1300)
수	잡채밥(1300) 미트볼덮밥(1300)
목	제육덮밥(1500) 햄볶음밥(1300)
금	짜장면밥(1300) 오징어볶음(1300)

(단위:원)

상록원 학생식당 차림표

월	미트볼탕수(1500) 제육김치찌개(1300) 참치볶음밥(1300) 미트볼탕수(1500)
화	오징어채볶음(1300) 소고기버섯찌개(1500) 콜뱅이소면무침(1500) 오징어채볶음(1300)
수	제육볶음(1500) 닭개장(1300) 맛살이채볶음(1300) 제육볶음(1500)
목	순살돈까스(1300) 비빔밥(1300) 고구마별미밥(1300) 순살돈까스(1300)
금	새우볶음밥(1300) 만두육개장(1300) 콩나물무침(1300) 새우볶음밥(1300)

(단위:원)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유두사미국(1300) 불고기덮밥(1700)
화	대구매운탕(1300) 잡채덮밥(1800)
수	육개장(1300) 물냉면/수박(1800)
목	제육두부찌개(1300) 함박스테이크(1800)
금	오징어무국(1300) 전주비빔밥(1800)
토	만두국(1300) 뉴지볶음덮밥(1800)
일	콩나물해장국(1300) 햄이채볶음밥(1600)

(단위:원)

98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들



(사진은 박사학위 수여자)

박사 학위

▲ 권노갑(명예정치학박사) = 총동창회장 △30년생
▲ 오지연(철학박사) = 천태지의의 원론지연 연구 △65년생
▲ 김치은(철학박사) = 불교논리학의 성립과 적용 연구 △58년생
▲ 김주경(철학박사) = 승조의 연구 △60년생
▲ 권경임(철학박사) = 불교사회복지사상과 실천체계에 관한 연구 △55년생
▲ 박범훈(철학박사) = 영어 통역사와 부장사관적 전개에 관한 연구 △48년생
▲ 황정수(철학박사) = 경허·만공의 선사상 연구-덕산문 형상을 중심으로 △56년생
▲ 안상경(문학박사) = 영어 통역사와 부장사관의 통합이론적 연구-노력동사(effort verbs)를 중심으로 △54년생
▲ 박선경(문학박사) = 18세기 조선시대 청화백자에 관한 연구 △54년생
▲ 정창환(문학박사) = 중국 고대 불상 장신구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종교적 의미를 중심으로 △58년생
▲ 이용형(문학박사) = 다산 정약용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47년생
▲ 정호현(법학박사) = 군 사회복지법에 관한 연구-현행 군 복지관계법의 검토와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48년생
▲ 정현수(법학박사) = 호적의 신원제 방안에 관한 연구-호주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65년생
▲ 이세구(정치학박사) = 허버타스의 민주주의 기원에 관한 연구-사소통 행위론을 중심으로 △60년생
▲ 이흥주(정치학박사) = 자본 이윤론의 실학사상 연구 △45년생
▲ 정진(정치학박사) = WTO체제의 성립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60년생
▲ 이흥훈(정치학박사) = 한국 역대 정권에서의 통일정책 특징에 관한 연구-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45년생
▲ 금상문(정치학박사) =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정책 결정 메커니즘 연구-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55년생
▲ 이만영(행정학박사) = 부패방지제도의 벤치마킹에 관한 연구-주요국가와 한국의 사례비교 △49년생
▲ 정윤경(행정학박사) = 지방공공서비스의 위탁계약 관리과정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 교통관련서비스를 중심으로 △60년생
▲ 박정일(행정학박사) =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도시노인의 생활실태와 제도적 문제를 중심으로 △41년생
▲ 김형택(행정학박사) =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환경요인과 복지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 △59년생

▲ 안동규(행정학박사) = 공적연금의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46년생
▲ 김석현(행정학박사) = 조직간 네트워크체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국제교육 교류업무 관련조직을 중심으로 △49년생
▲ 이순길(법학박사) = 민영교정제도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42년생
▲ 강경선(경제학박사) = 농업생산자조직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39년생
▲ 김관홍(경제학박사) = 일제하 제주도 농촌경제의 변천에 관한 연구 △63년생
▲ 이흥복(경영학박사) = 전자거래이용 고객의 만족도향상에 관한 실증 연구 △53년생
▲ 박원기(경영학박사) = TV 매체도달률 추정에 관한 연구-BBD모델의 모수추정방법 수정을 중심으로 △61년생
▲ 강시철(경영학박사) = 선택대안간의 범위변화가 유인효과와 타협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범위역차이론을 중심으로 △61년생
▲ 정봉두(경영학박사) = 정기간 해운공공행위에 관한 연구 △53년생
▲ 조원길(경영학박사) =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국제기업간 거래를 중심으로 △68년생
▲ 김범중(경영학박사) = 국제물류시설의 이용자 만족도 평가연구-부산항,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을 중심으로 △60년생
▲ 고광이(이학박사) = 균류와 흑연도 합성에 의한 관심모수의 최우추정법에 관한 연구 △62년생
▲ 김선용(이학박사) = 이온 층화에서의 관리적 선정에 관한 연구 △67년생
▲ 김준인(문학박사) = 목재 및 목질판상재료의 도막물성 개선에 관한 연구 △56년생
▲ 우종우(공학박사) = FDTD의 TEM과 Hybrid-모드 연속계산을 이용한 마이크로스트립 구조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해석 △69년생
▲ 이일형(공학박사) = PM-HEMT를 이용한 MIMIC 전력증폭기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 △67년생
▲ 김보원(공학박사) = 방향과 위상관계를 위한 2D+String 표현과 추론기법 △67년생
▲ 김경숙(공학박사) = 외관된 문제를 위한 효율적인 분산 하이브리드 알고리즘 △60년생
▲ 김용환(공학박사) = 계단의 안전 치수계획에 관한 실증적 연구 △58년생
▲ 이재열(공학박사) = 건설정보 분류체계의 개념적 기반과 구조원리 분석-Unicode의 적용성을 중심으로 △65년생
▲ 김진(공학박사) = 실내환경에서의 쾌적감상과 구조에 대한 퍼지모형 개발 △60년생
▲ 최영순(가정학박사) = 보살보식에 대한 연구 △62년생
▲ 김중환(한의학박사) = 금은화 약용액이 항암 및 양면방 효과에 미치는 영향 △60년생
▲ 손광락(한의학박사) = 경맥체계의 형성과 발

현에 관한 문헌적 연구 △63년생
▲ 권은정(한의학박사) = 빈 지렁(Scutellaria barbata, D Don)이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68년생
▲ 오규석(한의학박사) = A Study on Inhibition of Nicotinic Receptors by Dryobalanops aromatica △58년생
▲ 서민환(한의학박사) = 황연의 항산화작용과 위장보호에 관한 연구 △60년생
▲ 김경환(한의학박사) = 진화이시기가 도입 좌공도에 나타난 경락기공에 관한 연구 △70년생
▲ 김경동(한의학박사) = 금명자 추출물이 Streptozotocin에 의한 당뇨병 환자의 유혈발기에 미치는 영향 △61년생
▲ 장인재(한의학박사) = 절골이 노화에 따른 면역반응 및 발암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 △62년생
▲ 권보형(한의학박사) = 사물인상의 부형경변 효과 및 작용기전에 관한 실험적 연구 △66년생
▲ 오용성(한의학박사) = 봉독과 운동이 흰쥐의 폐용성 근위축에 미치는 실험적 연구 △60년생
▲ 김동익(화학박사) = High Expression of NR 2B subunit mRNA and Different Neuronal Changes in Hippocampal CA1 and CA3 regions Following Hypoxia △64년생

석사 학위

일반대학원

▲ 이혜선 = 도작의 정보사상 연구 '안락집'을 중심으로
▲ 김민정 = 근대 일본불교의 한국내 활동과 그 영향
▲ 김유리 = 불타의 사념처관 연구
▲ 김동란 = 대승기신론에 있어서 불성불멸관 연구
▲ 김경숙 = 간섭의 무자공안 연구
▲ 유미영 = 선과 상담심리치료의 비교 연구
▲ 하영진 = 유식사상의 사계론 고찰 유식 30송을 중심으로
▲ 배재형 = 디그나기의 자카(pratyakasa)와 자카지(srasamvedana)에 대한 연구-집량론, 지각장을 중심으로
▲ 김희정 = 정지용시의 고향살인 연구
▲ 구인모 = '희지광' 문헌론의 미학주의
▲ 최원훈 = 현대 국어 한자어 파생법 연구-사전에 등재된 한자어 접사를 중심으로
▲ 이근희 =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The Blue Eye
▲ 윤재기 = The House of Seven Gables에 나타난

반페미니스트 속성 연구
▲ 이신영 = 영어의 비교구문에 관한 연구
▲ 이소영 = 영어의 결과구문 연구
▲ 김희정 = 어휘목록에 따른 초등 영어교과서 어휘선정에 관한 연구
▲ 오규석 = 영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 정연주 = 막스 프루시의 작품 '안드레'를 통해서 본 편견의 문제
▲ 조영수 = 프리드리히 뉘른베르트의 '노빈방'에 나타난 모더니즘 연구
▲ 이재민 = 고대 그리스의 비극과 브레히트의 서사극에 나타난 코러스(가수)의 기능-아이슬링 로스의 '아카펠라'와 브레히트의 '코카서스의 백묵'을 중심으로
▲ 박미숙 = 담화에서의 부사의 기능-부착적 기능을 중심으로
▲ 서연주 = 별의 지향성 이론
▲ 김희정 = 자연주의적 합리성-태양의 지향적 체계를 중심으로
▲ 김광주 = 컴퓨터화된 검사와 지질검사 결과 비교
▲ 이호성 = 고등교육기관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련된 문제점 분석
▲ 이정연 = 한·일 양국의 평생교육체제 비교
▲ 이재근 = 교원의 단계교섭 발전모형 구안
▲ 이찬주 = 표현적 교육목표의 성격과 그 교육적 과정에 관한 연구
▲ 김성철 =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 이영재 = 한국지배관계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발전에 관한 연구-6월 항쟁이후 국가의 포섭과 시민·사회개혁의 대응
▲ 이연애 = 합외의 노사관계 형성에서의 국가 역할 연구-한국과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 박상규 = 지역서비스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 임정호 =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창환 = 스트림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이주병 = 환율변동성이 제조업 부문에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GARCH 모형을 중심으로
▲ 한승연 = 텔레마케팅에 대한 Image가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진태 = 평가모형에 기초한 기업가치와 주가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EVA평가방법과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 정희영 = 기업의 규제 전라적 재부의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 이신호 = 남북한 경제통합 환경과 모형에 관한 연구
▲ 김근필 = 기업특성요인이 회계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윤진기 = EIV(경제적 부가가치)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 안성수 = 5mm해일 실리론 JPET제와 특

성 시뮬레이션
▲ 유지안 = Zinc동위원소 핵의 집단체 성질에 관한 연구
▲ 최강역 = [C-Methionine] 합성을 위한 on-line 합성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
▲ 김주성 = X-11-계절적 ARIMA와 X-12-계절적 ARIMA 모형의 비교에 관한 연구
▲ 신윤섭 = 공상지의 강도개선을 위한 극산 페놀민지의 물성 함상에 관한 연구
▲ 이영보 = 경기도 여주지역의 논과 그 주변 저지 군집구조의 생태학적 연구
▲ 김규범 = 웨이브렛 변환과 실리움항모형을 이용한 오디오 부호화
▲ 이승형 =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퍼지 논리 제어 방식
▲ 한영배 = X-밴드 마이크로 스트림 슬롯 안테나
▲ 김정수 = 최소 Radial Basis Function 등화기에 관한 연구
▲ 박세훈 = 웨이브렛 변환과 실리움항 모형을 이용한 오디오 워터마크
▲ 임정규 = 혼합형 학습규칙을 이용한 신경회로망에 대한 연구
▲ 장지연 = 주변 상황에 적용하는 새로운 지능 제어 시스템
▲ 허종근 = 35Hz MIMIC를 위한 ALGAs/InGaAs/GaAs 전력용 PHEMT의 제작에 관한 연구
▲ 구분화 = 이미지데이터의 색상과 질감정보를 이용한 인덱스 구조의 설계
▲ 박미화 =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을 위한 복합적인 관계 생성 기법
▲ 김동진 = 인텔리전트 VRML 에디터의 설계 및 구현
▲ 박민규 = 하이퍼링크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프로파일 학습
▲ 김인규 = 경로 분석을 이용한 유전보수후의 효율적 검증
▲ 송상영 = 다중 서버 접근을 위한 제한된 인종 서버 매카니즘
▲ 유진선 = 모호성 해결 알고리즘을 이용한 제어 가능한 SCML 패서
▲ 서재관 = 위상 이동 제어방식을 이용한 클로리지 컨버터의 효율개선에 관한 연구
▲ 송병두 = Reg. MCS 알고리즘에 의한 SF6+He혼합가스의 전자수송계수 해석
▲ 김일환 = DC 서보 모터의 적응 퍼지 제어
▲ 정해광 = 전단연결에 의하여 콘크리트와 합성된 강판의 좌굴강도
▲ 김평준 = 강합성 삼자형교의 압축플랜지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 김영우 = 십자형 연직배수재의 압축플랜지 및 등가경성 선정
▲ 황민하 = Top-down 공법의 강구조 건축 매립형주각부에 사용되는 스티드코너의 전단내력에 관한 연구

▲ 김정욱 = 아파트 옥당의 미관에 관한 연구
▲ 정철우 = 건설현장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ISO 9000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 송희훈 = 인공피부를 이용한 체외 독성반응 시험에 관한 연구
▲ 양상문 = 폴리렌 및 세포간 상호작용이 위일차 간세포의 간 기능에 미치는 영향
▲ 최정화 = 단량체 변화에 따른 포리에스테르화합물 점착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 이미경 = 면의 Stickness 분석
▲ 송창기 = Corn-grits 압출성형의 Start-up과 Shut-down의 자동제어
▲ 김정일 = 컴퓨터 자동판매기 분할의 물성 분석
▲ 손홍식 = 대체가공이 허용되는 가공시간 중심의 유연생산 시스템에서 기계설-부품군의 형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이재호 = STL 파일을 이용한 Sloping layer의 생성 알고리즘
▲ 김봉수 = TI-6Al-4V 합금의 고온 열 부식피로 거동에 미치는 온도와 미세조직의 영향
▲ 정금영 = 방사선 graft 중합에 의한 sulfonic acid type 이온교환막의 합성 및 특성
▲ 이효원 = A. 보일의 '육광의 무지개'를 활용한 치료효과 분석
▲ 조현아 = 우라라라 '헬리' 제작물에 나타난 드라미 터치의 특성 연구
▲ 이윤희 = '경의 미학'으로 살펴 본 한국영화 미학 '만다라', '달기' 등쪽으로 간 까닭'을 중심으로
▲ 김태영 = 영화에 재현된 공간의 공간장적 경제학적 입문-영화 '초콜릿'과 '강연'의 함'을 중심으로
▲ 김태은 = 제페니메이션의 장르변형 과정에 대한 연구-기본 장르 '순정/모범캐너'를 중심으로
▲ 김영미 = 한국영화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수령에서 건진 내발', '어미', '마요네즈'의 모녀관계를 중심으로
▲ 김한민 = '그렇게 김순임은 강두식을 만났다'의 35mm단편 제작과정 고찰
▲ 박수진 = 선의 집산과 상상표현
▲ 오종은 = 일상속에 나타난 인간내면 형상화
▲ 고현주 = 다원적 기억의 형상화에 관한 본인과 풀이
▲ 김상규 = A study on the effect of Holotrichia on the Streptozotocin-induced diabetes in mouse
▲ 김주성 = 시군지정합출처유형이 회귀의 만능설사에 미치는 영향
▲ 안창민 = 단삼을 추출물이 회귀의 소화력 개에 미치는 영향
▲ 임병수 = 오공추출물이 혈전에 미치는 영향
▲ 박동원 = 보종이강이 고지혈증 유발 생물의 간과 신장 조직내 지방축적에 미치는 영향
▲ 송현주 = 감삼성 기능향상제에 백강검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

